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57-01

---

##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3  
의궤류 상세해제 자료집 (2)

---

2012. 9.



# - 목 차 -

## 3. 凶禮

Ⅲ-3-01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01) .....	1
Ⅲ-3-02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1645) .....	5
Ⅲ-3-03 [仁祖]殯殿魂殿都監儀軌(1649) .....	7
Ⅲ-3-04 [孝宗]殯殿都監儀軌(1659) .....	11
Ⅲ-3-05 [仁宣后]殯殿都監儀軌(1674) .....	17
Ⅲ-3-06 [顯宗]殯殿都監儀軌(1675) .....	21
Ⅲ-3-07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80) .....	27
Ⅲ-3-08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83) .....	31
Ⅲ-3-09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1701) .....	35
Ⅲ-3-10 [端懿嬪]殯宮都監儀軌(1718) .....	39
Ⅲ-3-11 [肅宗]殯殿都監儀軌(1720) .....	43
Ⅲ-3-12 [景宗]殯殿都監儀軌(1724) .....	47
Ⅲ-3-13 [孝章世子]殯宮都監儀軌(1728) .....	51
Ⅲ-3-14 [宣懿王后]殯殿都監儀軌(1730) .....	55
Ⅲ-3-15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1751) .....	59
Ⅲ-3-16 [懿昭世孫]殯宮魂宮兩都監儀軌(1752) .....	63
Ⅲ-3-17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1757) .....	67
Ⅲ-3-18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1757) .....	71
Ⅲ-3-19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1762) .....	75
Ⅲ-3-20 [英宗大王]殯殿都監儀軌(1776) .....	79
Ⅲ-3-21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1786) .....	81
Ⅲ-3-22 [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1800) .....	85
Ⅲ-3-23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05) .....	89
Ⅲ-3-24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1815) .....	93
Ⅲ-3-25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21) .....	95
Ⅲ-3-26 [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1822) .....	97
Ⅲ-3-27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1830) .....	101
Ⅲ-3-28 [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1834) .....	103
Ⅲ-3-29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43) .....	107
Ⅲ-3-30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1849) .....	113
Ⅲ-3-31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60) .....	119
Ⅲ-3-32 [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1863) .....	125
Ⅲ-3-33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78) .....	131
Ⅲ-3-34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90) .....	137

Ⅲ-3-35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1895) .....	143
Ⅲ-3-36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903) .....	149
Ⅲ-3-37 [純明妃]殯殿魂殿都監儀軌(1904) .....	155
Ⅲ-3-38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1919) .....	161
Ⅲ-3-39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1926) .....	167

#### 4. 迎接

Ⅲ-4-01 迎接都監宴享色儀軌(1634) .....	175
Ⅲ-4-02 迎接都監雜物色儀軌(1634) .....	179
Ⅲ-4-03 迎接都監宴享色儀軌(1643) .....	181
Ⅲ-4-04 迎接都監雜物色儀軌(1643) .....	187

#### 5. 其他

Ⅲ-5-01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1605) .....	193
Ⅲ-5-02 祭器都監儀軌(1611) .....	195
Ⅲ-5-03 祭器樂器都監儀軌(1624) .....	197
Ⅲ-5-04 親臨本府時儀軌(1865) .....	199

### 3. 凶禮



【자료명】 Ⅲ-3-01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600년(선조 33) 선조비(宣祖妃)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朴氏, 1555~1600)의 국장(國葬) 때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의 운용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다. 표제는 ‘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라고 되어 있다.

각종 제전(祭奠)과 진향(進香) 시의 음식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지】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1冊(154張) : 四周雙邊, 半郭 31.2×27.5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4字,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大黑口 ; 41.5×35.5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45)

내표지 서명은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이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규장각(奎 13583의 1)에 한 질 더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권두와 권말은 낙장(落張)이 있다. 목차가 없고 항목별로 뚜렷한 제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후대의 의례에 비해 체계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권두의 첫 페이지는 도감사목(都監事目, 셋째줄)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어 [의주(儀註)]가 있는데 내용은 복(復)·목욕(沐浴)·습(襲)·영좌(靈座)·소렴(小斂)·대렴(大斂)·성빈(成殯)·영침(靈寢)·성복(成服)·제전(祭奠)·빈전기명(殯殿器皿)·혼전배비(魂殿排備)·반우(返虞) 등이다. 반우는 장례를 마치고 신주를 가지고 돌아오는 절차로 12월 22일에 행하였는데, 반우를 행한 당일 도감을 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어 혼전에 배설하는 물품의 목록과 조달처, 담당관 등을 기록한 혼전소배(魂殿所排), 도설리(都薛理)인 통정 김수원(金秀源)을 비롯하여 설리(薛里)·주방내관(酒房內官)·진지내관(進止內官)·종실(宗室)·참봉(參奉)·충의위(忠義衛)·영감(領監)·별감(別監)·수복(守僕)·각색장(各色掌)·수공(水工)·조라치(昭刺赤)·서리(書吏)·제원(諸員)·주시관(奏時官)·사령(使令) 등 실무자들의 명단을 수록한 혼전차비관(魂殿差備官), 각종 목재, 석재, 정(釘) 등의 수량과 규격, 조달처 등이 기록되어 있는 조성재료(造成材料)가 있으며, 도감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감과 예조 등에서 올린 계사와 전교를 모은 계사(啓辭), 관련 관서 간에 주고받은 공문들을 수록한 관문 및 첩정 등이 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계사는 습시계사(襲時啓辭), 개명정계사(改銘旌啓辭), 소렴시계사(小斂時啓辭), 대렴시계사(大斂時啓辭), 성빈시계사(成殯時啓辭), 비한계사(備寒啓辭), 의려시계사(倚廬時啓辭), 성복시계사(成服時啓辭), 제전계사(祭奠啓辭), 발인시계사(發引時啓辭), 혼전배비계사(魂殿排備啓辭), 관원출입계사(官員出入啓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의례는 현전하는 의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음식관련내용】

의인왕후는 1600년 6월 27일 신시(申時)에 승하하자, 빈전(殯殿)은 계림군(桂林君) 집 대청에 마련하였다. 28일 진시에 염습(斂襲)을 하고 전을 올렸으며, 여름철의 상이라서 예법에 의하면 3일째 해야 하는 소렴도 28일에 하고 전(奠)을 올렸다. 이어 7월 1일 대렴과 성빈을 하였으며, 2일에 성복하였고, 이후 12월 22일에 유릉(裕陵)에 장사지내고 우주(虞主)가 효경전(孝敬殿)으로 돌아오기까지 빈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전을 올렸다. 이와 같은 제전과 관련하여 빈전도감의례에는 의주와 계사 등에 음식관련 기록이 산견되어 있다.

의인왕후의 국상은 임진왜란을 치룬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사의 의례에 물품조달이 어려워 간소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예문에 의하면 습전(襲奠)의 찬품(饌品)이 매우 성대하여 물력(物力)이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때에 조처하기도 어려워서 가짓수는 감하지 않더라도 수량은 편의에 따라 준비하고 다음에 쓸 여러 전물(奠物)도 모두 이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화(床花)도 은사(銀絲)를 써야 하나 역시 제때에 조처하기 어려워, 지화(紙花)를 물들여 대용(代用)하도록 하였다.

빈궁을 차린 후 조석전(朝夕奠)의 찬품(饌品)은 오례의도설에 의하고, 조석상식(朝夕上食) 시수라간 찬품도 오례의에 의하여 거행하였다. 그러나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의 계에 의해서 예문(禮文)에 의하면 빈궁을 차린 후 아침 저녁 상식(上食)만 있고 낮 수라는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사옹원에서도 상고할 만한 등록이 없고, 듣기로는 주다례(晝茶禮)가 있어 국수·떡·탕·부침·과일 등을 차리는 규식이 있다고 하고, 대신에게 문의하니 주다례는 폐지할 수 없다고 하여 주다례를 거행하였다. 주다례(晝茶禮)는 오정(午正)에 행하며 상차림은 다(茶, 1器, 雀舌茶代唐禾米), 약과(藥果, 1器, 3日 1次), 병(餅, 2器, 또 1器는 3일 1次加設), 면(1器), 실과(實果, 4色, 掌苑署에서 담당) 등이었다.

또한 예조가 행한 계에 의하여 대행상(大行喪) 3년 동안에 혼전(魂殿) 및 인산(因山)의 조석 수라(水刺)와 주다례(晝茶禮)·삭망전(朔望奠)·속절(俗節)·별제(別祭)·우제(虞祭)·졸곡 등의 제사에 소용되는 물선(物膳) 및 혼전의 친신(薦新) 물선에 대해 하나같이 근거할 만한 의례가 없어서, 예조가 호조 당상과 사옹원(司饗院)·봉상시(奉常寺)의 제조(提調)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제전에 소용되는 찬물의 준비는 내섭시(內贍寺), 봉상시(奉常寺), 내자시(內資寺)의 3사에서 다음과 같이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

<표 1> 祭奠의 종류와 준비관서

월	祭奠의 명칭(日字·饌物 준비 관서명, 기타)
6월	襲奠(28日·내섭시), 小斂奠(28일·봉상시)
7월	大斂奠(1日·내자시), 成殯奠(1日·내섭시), 成服奠(2日·봉상시), 望奠(15日·내섭시)
8월	朔奠(1日, 내섭시), 望奠(15日·봉상시, 오례의에 삭망이 만약 별제를 만나면 별제만 행한다는 글이 있으나, 추석별전은 예조가 처음에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망전으로만 행했음)
9월	朔奠(1일 내자시)
10월	朔奠(1日·내섭시, 備寒告由奠 兼行 事畢後奠-찬물 내자시), 望奠(15日·봉상시), 改銘旋奠(27日·봉상시)
11월	朔奠(1日·내자시), 望奠(15日·내섭시)
12월	朔奠(1日·봉상시), 臘享奠(14日·내자시), 殯殿門墻破壞奠(14日·봉상시, 告由有祝文),



望奠(15日·내자시), 啓殯奠(20일·내섬시, 因朝奠行, 有祝文), 啓殯後別奠(20日·내섬시), 祖奠(20日·내섬시, 유축문), 遣奠(21日·내섬시, 有祝文), 解謝祭(21日·봉상시, 發引後 殯殿前庭設行, 有祝文)
출전 :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儀註 祭奠

찬물(饌物)은 국왕, 왕세자, 영의정 등 조관, 외방의 관찰사 등의 진향시(進香時)에도 준비했는데, 준비 관서는 다음과 같다.

<표 2> 進香時 찬물준비관서

월	일	進香者(代理)	찬물준비관서
7	28	上(영의정 이항복)	봉상시
8	3	왕세자	내자시
	7	영의정 이항복 및 백관	내섬시
	10	중친부	예빈시
	11	의빈부	봉상시
	15	제왕자	
	16	충훈부	충훈부
	19	경기관찰사	봉상시
	24	돈령부	돈령부
	25	강원도관찰사(도사)	예빈시
	27	개성부유수	내자시
9	29	황해도관찰사(도사)	내자시
	1	평안도관찰사(정주목사)	예빈시
	4	충청도관찰사(면천군수)	내섬시
	7	경상도관찰사(도사)	예빈시
	9	전라도관찰사(광주목사)	내섬시
	10	함경도관찰사(고원군수)	봉상시
출전 :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儀註 祭奠			

【참고문헌】

『宣祖實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02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

【정의】

1645년(인조 23) 4월부터 6월까지의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 장례(葬禮) 때의 빈궁(殯宮)에 관한 기록이다. 소현세자는 1645년 4월 26일 34세를 일기로 창경궁(昌慶宮) 환경당(歡慶堂)에서 졸(卒)하였고, 이후 6월 15일에 발인(發靚)하여 19일에 하현실(下玄室)하고 당일 사시에 입주, 오시에 인경궁(仁慶宮) 중휘당(重暉堂)으로 반우(返虞)하였다. 1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제는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이다.

인조가 소현세자의 상제를 간소화하였듯이 제전(祭奠)의 찬품(饌品)도 강쇄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찬품의 준비 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서지】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  
線裝. 1冊(181張) : 四周單邊, 半郭 37.4×28.1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5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6.3×34.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一品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919)

‘順治二年乙酉四月日 江華府上 殯宮都監昭顯世子儀軌’라는 내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은 강화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파리국립도서관(2594)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빈궁도감의례와 혼궁도감의례가 합철된 형식이다. 앞 부분의 빈궁도감의례는 도청의례(都廳儀軌, 제목은 없음), 일방의례(一房儀軌), 이방의례(二房儀軌), 삼방의례(三房儀軌) 등 빈궁각방의례(殯宮各房儀軌)와 빈궁별공작의례(殯宮別工作儀軌)로 구성되어 있다. 도청의례에는 반우(返虞)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정의 시일(時日), 이조단자(吏曹單子), 도감사목(都監事目), 도감단자(都監單子), 예장 준비와 관련된 계사(啓辭), 감결(甘結) 등이 낱짜별로 수록되어 있다. 일방의례는 제전제구(祭奠諸具)와 성복후(成服後)의 빈궁제사(殯宮諸事) 및 습의(習儀)·발인(發靚)·묘소에 도착했을 때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낭청 이하 원역의 명단에 이어 일방 담당 물품의 목록과 수량, 재료, 조달처 등과 관련된 문서를 수록하였다. 성복제구(成服諸具)를 담당하는 이방의례는 낭청 이하 원역의 명단에 이어 대전(大殿) 이하 각 처소의 상복(喪服)의 종류와 소요되는 물품의 수량, 조달처 등을 기록하였다. 습렴제구(襲斂諸具)와 찬실배설(欝室排設) 등을 담당하는 삼방의례는 낭청 이하 원역의 명단에 이어 복(復)·습(襲)·함(含)·영좌(靈座)·명정(銘旌)·소렴(小斂)·치재(治梓)·재궁(梓宮)·대렴(大斂) 등 성복(成服) 이전의 습렴(襲斂) 의식과 관련되는 물품의 목록과 수량, 조달처 등을 기록하였다. 빈궁 별공작은 빈궁도감에서 필요한 소소한 비품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혼궁도감의궤에 해당하는 후반부는 혼궁사목(魂宮事目), 혼궁이방(魂宮二房), 혼궁삼방(魂宮三房), 각소의궤(各所儀軌)가 있다. 소현세자의 장례를 마친 후 신주를 3년간 모신 혼궁은 인경궁 중회당에 설치되었다. 혼궁각소의궤에는 혼궁수리소의궤(魂宮修理所儀軌), 혼궁조성소의궤(魂宮造成所儀軌), 혼궁별공작의궤(魂宮別工作儀軌), 혼궁분장흥고의궤(魂宮分長興庫儀軌)가 수록되어 있다. 형식은 좌목에 이어 각방, 각소에서 담당할 물품의 목록과 수량 등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부록으로 도감의궤사목(都監儀軌事目)과 논상(論賞)이 있다.

**【음식관련내용】**

소현세자는 년 월 일에 1645년 4월 26일 향년 34세의 나이로 갑자기 ‘薨逝’하였는데, 빈전도감의궤에는 사서인(士庶人)의 죽음과 같은 의미인 ‘卒’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인조는 소현세자의 상제를 간소화하여 강쇄(降殺)하고 있는데, 이는 설전시(設奠時) 찬품(饌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강쇄된 습전의 찬품 종류는 다음과 같다.

中朴桂(4器), 白散子(3器 內 1器 減), 紅散子(2器), 藥果(5器 內 1器 減), 山蔘餅(1器), 松古餅(1器), 自朴餅(1器), 豆丹子(1器), 敬丹餅(1器), 節餅(1器), 床花餅(1器), 油餅(1器), 油沙餅(1器), 甫是餅(1器 減), 實栢子(1器), 實榧子(1器), 實榛子(1器), 黃栗(1器), 乾柿子(1기), 大棗(1器), 扃糰(1器), 扃蒸(1器)

俠卓 : 藥果(1器), 薰古(1器), 竹芽(1器), 烏海早(1器), 菜(1器), 水正果(1器), 糰(1기), 煎蒸(1기), 雜湯(1器), 生栗(1器), 四燭(2丁), 五燭(1丁)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빈전, 성복전, 조석전, 주다례, 삭망전 등 제전의 찬품 준비는 봉상시, 내섬시, 내자시에서 하였다. 삭망전의 경우 5월삭전은 봉상시, 망전은 내섬시, 6월삭전은 내자시에서 맡았다. 조석전과 주다례의 경우에는 각각 초차 3일은 봉상시, 재차 3일은 내섬시, 3차 3일은 내자시에서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바퀴 돌아가면, 삼사(三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윤회 설행(設行)하였다.

**【참고문헌】**

『인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03 [仁祖]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649년(효종 즉위) 인조가 승하함에 따라 시신을 모시는 빈전(殯殿)과 신주를 모실 혼전(魂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례이다. 표제는 ‘殯殿都監儀軌’로 되어 있지만, 빈전도감의례와 혼전도감의례(魂殿都監儀軌)가 합철된 형태이다.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에 빈전도감의례를, 뒷부분에 혼전도감의례를 수록하였다. 빈전도감 및 혼전도감에서 편찬하였다.

빈전도감의례의 총설과 일방의례 부분에 빈전에 올린 여러 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차림 내용도 보인다.

【서지】

[仁祖]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四周單邊, 半郭 37.2×27.8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0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4.7×33.3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55)

‘順治六年十一月日 議政府上 殯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은 의정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殯殿都監儀軌’이다. 반곽 12행, 상하 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파리국립도서관(2596)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서책명은 빈전도감의례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전반부는 빈전도감의례, 후반부는 혼전도감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도감에서는 시신을 모신 빈전의 일을 관장하였고, 혼전도감에서는 신주를 모실 혼전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인조의 혼전은 창경궁 문정전(文政殿)에 마련되었으며 영사전(永思殿)이라고 불렸다. 빈전도감의례(殯殿都監儀軌)는 총설과 빈전일방의례(殯殿一房儀軌), 빈전이방의례(殯殿二房儀軌), 빈전삼방의례(殯殿三房儀軌), 찬궁별공작(攢宮別工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혼전도감의례(魂殿都監儀軌)는 총설부분 혹은 혼전일방으로 추정되는 내용에 이어 혼전이방(魂殿二房), 혼전삼방(魂殿三房), 혼전별공작(魂殿別工作)으로 이루어져 있고, 말미에는 의례사목(儀軌事目)과 논상(論賞)이 있다.

세부목차를 보면, 빈전도감의례의 총설은 좌목(座目), 빈전도감사목(殯殿都監事目), 의주(儀註), 계사질(啓辭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 빈전일방은 좌목, 예조계목(禮曹啓目) 등, 감결질, 이문질, 제문(祭文), 빈전이방은 좌목, 소장(所掌), 감결질, 빈전삼방은 좌목, 소장, 찬궁별공작은 좌목, 소입(所入),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전도감의례의 총설은 혼전도감사목(魂殿都監事目), 좌목, 계사질, 이문질, 감결질, 혼전삼방은 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실입질(實入秩) 등, 각색장인등질(各色匠人等秩), 혼전별공작은 좌목, 소장 등,

공장질로 이루어져 있다.

빈전도감의례는 서두에 인조가 1649년 5월 8일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하였다 는 사실을 짧게 적고, 이어 총호사(總護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등 빈전도감 의 일을 맡은 이들의 명단인 이조단자(吏曹單子)를 수록해 놓았다. 사목(事目) 부분에서는 도감의 운영 규칙이 소개되고 있고, 의주(儀註)에는 복(複), 목욕(沐浴), 습(襲), 함(含),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빈(成殯), 성복(成服) 등 장례의 제반 절차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왕에게 올린 계사(啓辭), 관련 관서들에 보낸 공문인 이문(移文)과 감결(甘結)이 낱짜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빈전일방의례 부분에는, 제전(祭奠)에 필요한 여러 기물을 마련하는 일을 비롯하여 개 명정(改銘旌)과 관련된 일, 성복(成服) 후 빈전의 여러 일, 발인하여 산릉에 도착할 때까지 의 제반 일들과 관련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담당 한 자들의 명단과 각종 관련 문 서, 소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말미에는 제문(祭文) 수 편이 수록되 어 있다. 이방의례에는 상복(喪服)과 관련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삼방의례에는 습렴(襲 斂)과 관련된 일들 및 빈전의 배설(排設)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별공작 부 분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물들을 조달하고 마련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혼전도감의례의 구성도 빈전도감의례와 유사하다. 의례 말미에는 의례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적은 의례사목(儀軌事目)이 있다. 본 의례는 후대의 빈전도감의례 및 혼전도감의 례와 비교할 때, 체제가 아직 정돈되어 있지 않다.

#### 【음식관련내용】

인조는 1649년 5월 8일 미시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그런데 당일에는 복, 목 욕(술시), 습(해시)을 했으며, 다음날인 9일(신시)에 소렴(小斂)을 하였다. 원래 소렴은 3일 만에 하는 것이지만 한창 더울 때라서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었으므로 대신과 예관(禮官), 양사(兩司)에 하문하여 서둘러 거행한 것이다. 대렴(大斂)은 제5일인 12일(묘시)에 했으며, 이어 성빈을 하고, 13일(묘시)에 성복(成服)을 하였다. 발인은 9월 11일에 이루어졌으며, 9 월 20일에 장릉에 장례하고, 반우(返虞)하여 혼전을 영사전(永思殿)에 설치하였다. 이와 같 은 각각의 의식에는 전(奠)을 드렸다. 음식관련 내용은 주로 빈전도감의례의 총설부분과 빈 전1방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우선, 전상(奠床)의 간품(看品)은 조석전상(朝夕奠床)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낭청(堂上 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함께 진참하고(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 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낭청(都監堂上郎廳)과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사제조(該司提調)가 함 께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전 삭망전 별전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사관원(該司官員)이 숙수(熟 手)를 영솔(領率)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제전의 숙설(熟設)은 봉상시, 내섬시, 내자시가 돌아가면서 하였다. 5월 8일의 습전은 봉상시, 9일의 소렴전은 내섬시, 12일의 대렴전은 내자시, 성빈전은 봉상시, 13일의 성복전 은 내섬시가 숙설하였다.

성빈전 후부터 이루어지는 조석전은 5월 13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석전도 3사(司)가 돌아가면서 숙설, 즉 전물(奠物)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초차 3일은 봉상시, 재차 3일은 내 섬시, 3차 3일은 내자시에서 숙설하고 한 바퀴 다 돌아가면 다시 봉상시부터 시작하였다[周 而復始]. 삭망전은 5월 망전은 봉상시, 6월 삭전은 내자시, 망전은 내섬시에서 숙설하였다.

주다례는 원래 오례의에는 없는 것이다. 오례의에는 단지 아침 저녁으로만 상식이 있고

주상식과 주다례는 없었다. 그리하여 전례를 고찰한 결과 무신년(1608) 등록은 주상식과 주다례가 모두 있으나, 병인년(1626) 등록은 단지 주다례만 설치하고 있어서 어느 등록에 따라야 할지 아리었고, 효종은 병인년 예에 따라 주다례만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주다례의 상차림과 관련하여 5월 24일에 사용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계하기를, 빈전 각일 주다례 전물은 봉상시 내자시 내섬시에서 매 3일씩 윤회하여 숙설(熟設)하는데, 초일은 차례를 당한 해사가 으레 각색병(各色餅) 3기를 진배하고, 중일과 종일은 단지 2기를 내오니, 대개 반드시 일정한 규식이 있어서 서로 증감함이 있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도감으로 하여금 근거를 정확하게 찾도록 하였으나, 도감의 계에서도 예조로 찾아보도록 계하였고, 예조의 계에서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종조 유래를 함부로 바꿀 수 없으므로 그대로 하자고 청하였다. 주다례도 초차 3일은 봉상시에서, 재차 3일은 내섬시에서, 3차 3일은 내자시에서 숙설하였다. 이후 조상식 주다례 석상식은 사용원(司饗院) 차지(次知) 설행(設行)으로 바뀐 듯 하다.

조전이 삭망전과 겹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었다. 오래된 조전과 삭망전은 모두 그날날이 새기 전에 하는데, 한때에 양제를 아울러 행하기는 형세가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임신년 국홀시 전례에 따라 삭망전은 조전을 겸행하도록 하였다.

경아문 및 각도 관찰사의 진향은 의정부 7월 4일, 종친부 11일, 의빈부 14일, 충훈부 15일, 개성부 15일, 강화부 16일, 경기도 22일, 충청도 23일, 황해도 25일, 강원도 27일, 전라도 28일, 경상도 8월 4일, 평안도 10일, 함경도 18일, 돈령부 19일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수
襲奠, 成殯奠, 望奠 同一	中朴桂(4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5器), 六色實果(各1器), 十色餅(各1器), 饜麪(1器), 饜蒸(1器), 俠卓 : 藥果(1器), 蕈古(1器), 竹荀(1器), 烏海早(1器), 菜(1器), 水正果(1器), 實果(1器), 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四燭(2丁)·五燭(1丁)
朝夕奠	* 連三日 兩時 每一時 器數 藥果(3器), 四色實果(各1器), 餅(3器), 麪(1器), 菜(1器), 雜湯(1器), 煎蒸(1器), 召菜淸(1器), 水正果(1器), 小蜜燭(1丁)
晝茶禮	* 連三日 初日 行器, 中終日同 藥果(1器) 餅(3器) 水正果(1器) 召菜淸(1器) 四色實果(各1器) 木麥麪(1器) 菜(1器) 小蜜燭(2丁)
출전 : 『[仁祖]殯殿魂殿都監儀軌』 [총설] 甘結秩	

【참고문헌】

『효종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04 [孝宗]殯殿都監儀軌

【정의】

1659년(현종 즉위) 효종(孝宗, 1649~1659)이 승하함에 따라 시신을 모시는 빈전(殯殿)과 신주를 모실 혼전(魂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례이다. 표제는 ‘殯殿都監儀軌’로 되어 있지만, 빈전도감의례(殯殿都監儀軌)와 혼전도감의례(魂殿都監儀軌)가 합철된 형태이다.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에 빈전도감의례를, 뒷부분에 혼전도감의례를 수록하였다. 빈전도감 및 혼전도감에서 편찬하였다.

빈전도감에서는 시신을 모신 빈전의 일을 관장하였고, 혼전도감에서는 신주를 모실 혼전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효종의 혼전은 창경궁 문정전(文政殿)에 마련되었다.

빈전도감의례의 총설과 일방의례 부분에 빈전에 올린 여러 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차림 내용과 각 음식에 소용되는 재료가 제시되어 있다.

【서지】

[孝宗]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310張) : 圖, 四周單邊, 半郭 36.4×25.7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4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5×31.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5072)

‘順治十六年十二月日 議政府上 殯殿都監儀軌 乙亥’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5072)은 의정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28), 파리국립도서관(2597)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서책명은 빈전도감의례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전반부는 빈전도감의례, 후반부는 혼전도감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도감에서는 시신을 모신 빈전의 일을 관장하였고, 혼전도감에서는 신주를 모실 혼전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효종의 혼전은 창경궁 문정전에 마련되었으며 경모전(敬慕殿)이라고 불렸다. 전반부의 빈전도감의례는 총설과 빈전일방의례 빈전이방의례 빈전삼방의례, 별공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의 혼전도감의례는 혼전도감의례 총설과 혼전이방, 혼전삼방, 혼전별공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끝으로 의례사목과 논상이 실려 있다.

세부목차를 보면, 빈전도감의례의 총설은 권두(卷頭)에 소선도(素扇圖) 등 12종 기물에 대한 도설(圖說)과 좌목에 이어, 사목(事目)·의주(儀註)·계사질(啓辭秩)·이문질(移文秩)·감결질(甘結秩)이 수록되어 있다. 빈전일방의례(殯殿一房儀軌)에는 좌목(座目)과 소장(所掌)에 이어 예조단자(禮曹單子)·감결질(甘結秩)·이문질(移文秩)·제문(祭文) 등이 실려 있는데 일방의 소장(所掌)은 제전제구(祭奠諸具) 및 명정등사(銘旌等事)와 성복후(成服後)의 빈전제사(殯殿諸

事)·발인시도산릉(發靱時到山陵) 등이다. 상복(喪服)과 관련된 빈전이방의궤(殯殿二房儀軌)에는 [감결질(甘結秩) 등], 각양잡물실입질(各樣雜物實入秩), 공장질(工匠秩) 담당자들의 명단인 좌목(座目), 소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목록인 소장(所掌), 감결(甘結) 품목(稟目) 등의 문서, 실입질(實入秩), 공장질(工匠秩)이 실려 있다. 습렴제사(襲斂諸事), 찬궁배설(欝宮排設) 등과 관련된 빈전삼방의궤(殯殿三房儀軌)에는 습렴(襲斂)과 관련된 일들 및 궁의(宮) 배설(排設)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별공작(別工作) 부분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물들을 조달하고 마련하는 일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의 명단, 도감사목(都監事目)과 계사(啓辭), 감결(甘結) 등의 문서가 실려 있다.

혼전도감의궤에는 [좌목(座目)]과 도감사목(都監事目), 계사질(啓辭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이 실려 있고, 혼전이방(魂殿二房)에는 [좌목(座目)]과 [소장(所掌)], [품목질(稟目) 등]에 이어, 조성소수본급실입질(造成所手本及實入秩), 수리소수본급실입질(修理所手本及實入秩), [잡물실입질(雜物實入秩) 등]이 실려 있으며, 혼전삼방(魂殿三房)에는 [좌목(座目)], [이문질(移文秩) 등], [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등]에 이어, 각색장인질(各色匠人秩)이 실려 있고, 혼전별공작(魂殿別工作)은 [좌목(座目)]과 [소장(所掌)],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관련내용】**

효종은 1659년 5월 4일 오시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자, 당일에 복(復), 목욕(신시), 습(술시)과 습전이 이루어지고, 제3일인 6일에 소렴(진시)과 소렴전, 제5일인 8일에 대렴(사시)과 대렴전, 성빈과 성빈전이 이루어져서, 대왕 염상(斂床)을 선정전(宣政殿)으로 옮겼다. 또한 다음날인 9일 진시에 성복이 이루어졌다. 이후 매일 조석으로 전을 드리고 주다례가 행해졌으며, 삭망에는 삭망전이 올려졌다.

효종의 국장에서 인조의 국장에 이어 빈전에 주다례를 올렸다. 원래 오례의(五禮儀)에 의하면, 빈전(殯殿)에는 아침 저녁으로만 상식(上食)이 있고 낮에는 상식도 다례(茶禮)도 없다. 그런데 무신년(1608년)등록(謄錄)에는 상식과 다례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병인년(1626년) 등록에는 낮에 다례만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축년, 인조의 국장에서 병인년의 예를 따라 낮에 다례만 올렸다. 효종의 빈전에도 인조의 국장례에 따라 낮에는 다례만 올렸다.

이상의 제전은 봉상시, 내섬시, 내자시 3사(司)가 돌아가면서 맡았다(周而復始).

<표 1> 제전의 시행일시와 준비부서

祭奠	날자	준비부서	비고
습전	5월 4일	봉상시	
소렴전	5월 6일	내섬시	
대렴전	5월 8일	내자시	
성빈전	5월 8일	봉상시	
성복전	5월 9일	내섬시	
조석전, 주다례	初次三日	봉상시	成殯日(5월 8일)에 조석전 설행 시작 3司가 連3日 輪回設行
	再次三日	내섬시	
	三次三日	내자시	
망전	5월 15일	봉상시	
삭전	6월 1일	내자시	
망전	6월 15일	내섬시	

출전 : 『[孝宗]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전상(奠床)의 간품(看品)은 조석전상(朝夕奠床)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낭청(堂上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함께 진참하고(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사제조(該司提調)가 함께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전 삭망전 별전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서관원(該司官員)이 숙수(熟手)를 영솔(領率)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조상식 주다례 석상식은 사용원 차지(次知)설행(設行)이다.

제물의 그릇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祭奠의 종류	상차림(器數)
襲奠 成殯奠 成服奠 朔望奠 同	中朴桂(4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5器)·實栢子(1器)·實榛子(1器)·實糊桃(1器)·林檎(1器)·李實(1器)·眞果(1器)·油餅(1器)·自朴餅(1器)·蒸餅(1器)·敬丹餅(1器)·油沙餅(1器)·切餅(1器)·床花餅(1器)·甫是餅(1器)·山蔘餅(1器)·松古餅(1器)·粿糰(1器)·粿蒸(1器) 俠卓 : 藥果(1器)·實生栗(1器)·禁古看藍(1器)·竹荀看藍(1器)·多士麻看藍(1器)·菜(1器)·水正果(1器)·糰(1器)·煎蒸(1器)·雜湯(1器)·追淸(1器), 四兩燭(2丁)·五兩燭(1丁)
朝夕奠	藥果(3器)·松古餅(1器)·切餅(1器)·敬丹餅(1器)·實栢子(1器)·林檎(1器)·黃桃(1器)·眞果(1器)·菜(1器)·細糰(1器)·煎蒸(1器)·雜湯(1器)·水正果(1器)·追淸(1器)·小蜜燭(2丁)
출전 : 『[孝宗]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祭物器數	

제전(祭奠)의 각색 전물(奠物) 소입(所入)은 다음과 같다.

<표 3> 음식명과 재료

제전 종류	음식명(기수)	재료
朔望, 俗節, 大祭	中朴桂(4器)	每器 上末(6斤), 淸蜜(2升 9合 2夕), 油(1升 1合 4夕)
	紅散子(2器)	每器 上末(1斤 12兩 1錢), 黑糖(1斤 7兩 4錢), 芝草(2兩 5錢), 乾飯(2升), 沙粉末(1合 7夕), 油(1升 5合 2夕)
	白散子(3器)	每器 上末(1斤 12兩 1錢), 黑糖(1斤 7兩 4錢), 乾飯(2升), 油(1升 1合 5夕)
	藥果(5器, 俠卓 1器)	以上 每器 上末(2斤 6錢), 淸蜜(1升 2合 8夕), 油(1升 1合) 1床都加, 上末(6斤 15兩 7錢), 淸蜜(3升 7合), 油(9合 2夕), 殘油條(3升 5合)
	山蔘餅(1器)	粘米(5升), 實山蔘(1斤 1兩), 油(9合), 淸蜜(1升 3合 5夕), 實栢子(2合)
	松古餅(1器)	粘米(5升), 實栢子(2合), 熟松古(15兩), 淸蜜(1升 3合 5夕), 油(9合)
	油餅(1器)	粘米(7升), 油(7合)
	自朴餅(1器)	粘米(7升), 丁○(3合 5夕), 淸蜜(1合 7夕), 油(7合)
	敬丹餅(1器)	粘米(7升), 丁○(1升 7合 5夕), 淸蜜(1升 2合), 實栢子(5夕)
	豆丹子餅(1器)	粘米(7升), 淸蜜(1合 7夕), 白豆○(3升 5合), 實栢子(2合)
	油沙餅(1器)	粘米(7升), 油(1合), 上末(9兩 2錢), 淸蜜(2合 3夕)
	切餅(1器)	白米(7升), 油(7夕)
	甫是餅(1器)	白米(7升), 油(2合 1夕), 實栢子(3合 5夕)
床花餅(1器)	上末(1斤 12兩 6錢), 丁○(7合 8夕) 淸蜜(3合 9夕), 實栢子	

		(6夕), 起酒(1升 3合)	
	六色果實(各1器)	隨節互用	
	六色果實俠卓 1器	隨節互用	
	麩糰(1器)	菘豆末(3升)	
	麩蒸(1器)	太(5升) 油(5合) 艮醬(3合)	
	藁古看藍(1器)	藁古(4兩), 艮醬(1合), 油(1夕), 胡椒(2分)	
	竹荀看藍(1器)	竹笋(2升), 艮醬(1合), 油(1夕), 胡椒(2分)	
	烏海早看藍(1器)	烏海早(5兩代多士麻). 艮醬(1合), 油(1夕), 胡椒(2分)	
	菜(1器)	實苦蕒(1斤 1兩), 芥子(1合 5夕), 艮醬(1合), 油(1夕), 胡椒(2分 代生薑 5錢), 醋(3夕)	
	水正果(1器)	清蜜(2合 5夕), 實栢子(1合)	
	追清(1器)	清蜜(4合)	
	糰(1器)	菘豆末(1升 6合), 艮醬(3合), 實栢子(2夕), 胡椒(5分)	
	煎蒸(1器)	太(5升), 油(1合 5夕), 實栢子(5夕), 艮醬(2合), 胡椒(5分), 烏海早(1兩 5錢 代多士麻), 竹笋(5合), 藁古(1兩), 菘豆末(2合)	
		餅等殘油條(3升 5合)	
		都鹽(3合)	
朝夕奠	藥果(3器)	每器 上末(2斤 6錢), 清蜜(1升 1合 8夕), 油(1升 1合)	
	自朴餅(1器)	粘米(7升), 油(7合), 丁○(3合 7夕), 清蜜(1合)	
	山參餅(1器)	粘米(5升), 清蜜(1升 3合 5夕), 油(9合), 實山參(1斤 1兩), 實栢子(2合)	
	松古餅(1器)	粘米(5升), 油(9合), 熟松古(15兩), 清蜜(1升 3合 5夕), 實栢子(2合)	
	薪山參餅(1器)	粘米(4升), 清蜜(2升 5合), 眞油(1升 5合), 實山參(1斤 12兩), 實栢子(5合)	
	石耳餅(1器)	白米(8升), 石耳(2斤 3兩), 清蜜(3升), 實栢子(3升 5合), 油(1升)	
	蒸餅(1器)	白米(8升), 大棗(8合), 乾柿子(4串), 實生栗(8合), 實栢子(3合), 小豆(3升), 清蜜(5合), 油(1合), 起酒(1升)	
	敬丹餅(1器)	粘米(7升), 丁○(1升 7合 5夕), 實栢子(5夕), 清蜜(1升 2合)	
	豆丹子餅(1器)	粘米(7升), 清蜜(1合 7夕), 白豆○(3升 5合), 實栢子(2合)	
	油沙餅(1器)	粘米(7升), 上末(9兩 2錢), 油(1合), 清蜜(2合 3夕)	
	切餅(1器)	白米(7升), 油(7夕)	
	甫是餅(1器)	白米(7升), 油(2合 1夕), 實栢子(3合 5夕)	
	床花餅(1器)	上末(1斤 11兩 6錢), 丁○(7合 8夕), 清蜜(3合 9夕), 實栢子(6夕), 起酒(1升 2合)	
	水正果(1器)	白清(2合 5夕), 實栢子(1合)	
	追清(1器)	白清(4合)	
	細糰(1器)	菘豆末(1升 6合), 五味子(4合), 清蜜(4合)	
	糰(1器)	菘豆末(1升 6合), 艮醬(2合), 實栢子(1夕), 糰細糰中互用	
	菜(1器)	藁古(1兩), 實苦蕒(1斤 1兩), 艮醬(2合), 芥子(1合 5夕), 醋(3夕), 生薑(5錢)	
	煎蒸(1器)	太 5升, 艮醬 3合, 油 7夕	
	雜湯(1器)	太(3升), 烏海早(1兩 5錢 代多士麻), 竹笋(5合), 胡椒(5分), 藁古(1兩), 油(1合 5夕), 艮醬(3合), 菘豆末(2合), 實栢子(5夕)	
	四色實果(各1器)	每器 1升 2合式 隨節互用	
			都鹽 6合
	출전 : 『[孝宗]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各色奠物所入		

한편, 경아문 및 각도의 진향시(進香時)에도 진(奠)을 올렸다. 진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표 4> 진향관서와 일시

월	일	시	진향관서
7	5	오시	종친부
	8	사시	의빈부
	12	사시	충훈부
	13	사시	개성부
	14	사시	강화부
	17	오시	경기
	27	사시	황해도
8	9	손시	충흥도
	17	미시	강원도
	27	미시	전남도
9	10	사시	평안도
	3	미시	돈령부
	13	사시	경상도
	28	사시	함경도
출전 : 『[孝宗]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京衙門及各道進香			

【참고문헌】

『현종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05 [仁宣后]殯殿都監儀軌

【정의】

1674년(현종 15) 2월에 승하한 효종비(孝宗妃)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 1618~1674)의 국장(國葬)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인선왕후가 1674년 2월 24일 경덕궁(慶德宮) 회상전(會祥殿)에서 승하함에 따라, 28일 융복전(隆福殿)에 빈전을 설치하고 시신을 모셨으며, 5월 28일 발인(發靚)하여 6월 4일 하관하고 6일 우주(虞主)를 경사전(敬思殿)에 마련된 혼전(魂殿)에 봉안하기까지의 기록이다. 내제는 빈전도감의례(殯殿都監儀軌)이지만, 표제는 ‘仁宣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라고 적혀 있으며,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도감(殯殿都監) 및 혼전도감(魂殿都監)에서 함께 편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제에 강희(康熙) 13년을 ‘癸丑’으로 표기한 것은 ‘甲寅’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국장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의례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인선후 빈전도감의례의 의주와 1방의 의례 부분에 빈전에 올린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빈전, 조석곡전, 상식, 삭망전, 별전 등의 의식에서 올렸던 제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전의 종류에 따른 상차림 내용도 보인다.

【서지】

[仁宣后]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193張) : 四周雙邊, 半郭 36.1×26.5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2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4.7×34.7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一品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35)

‘康熙十三年癸丑二月日 江華府上 仁宣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535)은 강화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殯殿都監儀軌’이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관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파리국립도서관 (2598-2497)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표제가 ‘인선왕후빈전혼전도감의례(仁宣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빈전도감의례(殯殿都監儀軌)와 혼전도감의례(魂殿都監儀軌)가 합쳐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존 의례는 총설부분과 빈전1방(빈

전일방) 부분만 남아 있다. 아마 빈전2방과 빈전3방 및 혼전도감의례 부분도 있었던 것이 결락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다른 빈전도감의례(殯殿都監儀軌) 서두에 나오는 도설(圖說)이 이 책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역시 파손으로 인해 빠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충설부분은 권두(卷頭)에 장례일지가 있고 이조단자(吏曹單子)에 총호사(摠護使) 우의정(右議政) 김수흥(金壽興)을 비롯하여 제조(提調) 3명, 도청(都廳) 2명, 낭청(郎廳) 6명 등의 명단이 있으며(6명의 낭청은 3방에 2명씩 분방됨), 빈전 별공작 감역관, 찬궁 별공작 직임 등이 나열되어 있다. 이어 사목(事目)·의주(儀註)·예조단자(禮曹單子)·계사질(啓辭秩)·품목질(稟目秩)·감결질(甘結秩) 등이 실려 있다.

빈전일방(殯殿一房)은 제전제구개명정등사(祭奠諸具改銘旌等事) 성복후빈전제사(成服後殯殿諸事) 습의발인시도산릉등사(習儀發靱時到山陵等事)를 전장(專掌)한 곳이다. 구체적인 일방 의례의 목차는 빈전일방의 좌목(殯殿一房 [座目]), 예조단자(禮曹單子), 감전식(監膳式), 빈전제전기수(殯殿祭奠器數), 품목질(稟目秩), 빈전각차비수본질(殯殿各差備手本秩), 발인절목(發靱節目), 품목질(稟目秩), 예조단자(禮曹單子), 각사공사점련품목질(各司公事粘連稟目秩), 내관질(來關秩), 각사계사질(各司啓辭秩), 이관질(移關秩), 후물건이문호조환하질(後物件移文戶曹還下秩), 빈전발인후소화잡물질(殯殿發靱後燒火雜物秩), 반우후강상잡물소화질(返虞後缸上雜物燒火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성복제사(成服諸事)를 전장(專掌)한 이방(二房), 습렴제사(襲斂諸事) 찬궁배설등사(欝宮排設等事)를 전장한 삼방(三房)의 의례가 있었을 것이나 현존의례에는 낙장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인선왕후는 1674년 2월 24일 승하하였는데, 같은 날 복(復)을 하고 목욕과 습을 하였으며, 26일에 소렴, 28일에 대렴하고 용복전에 빈소[成殯]를 설치하였다. 5월 28일 발인(發靱)하여 6월 4일에 산릉에 장사를 지내고, 6월 6일 왕후의 우주(虞主)를 모시고 궁으로 돌아와 혼전[敬思殿]에 봉안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이 이루어질 때 습·소렴·대렴·성빈·성복·삭망 및 조석 등에 각각 전(奠)을 드렸다.

본 의례에서 산견(散見)되어 있는 제전(祭奠) 및 음식관련 기록을 찾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전(祭奠)은 봉상시 내섬시 내자시 3사(司)가 돌아가면서 일을 아뢰어 수행토록 하였다. 습전은 봉상시, 소렴전은 내섬시, 대렴전은 내자시, 성빈전은 봉상시, 성복전은 내섬시, 조석전은 성빈후 초차 3일은 봉상시, 재차 3일은 내섬시, 3차 3일은 내자시, 삭전은 3월 삭전은 봉상시, 3월 망전은 내자시, 4월 삭전은 내섬시에서 아뢰어 일을 시작하였다. 이상 관청별로 담당할 제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봉상시 - 습전, 성빈전, 조석전 성빈후 처음 3일, 3월 삭전
- 내섬시 - 소렴전, 성복전, 조석전 성빈후 재차 3일, 4월 삭전
- 내자시 - 대렴전, 조석전 성빈후 3차 3일, 3월 망전

성빈 후 처음 하는 조석상식 수라는 사옹원으로부터 생시의 예에 따라 거행하였으며, 조석전 상식의안에 신물(新物)은 천신(薦新)한다고 하였다.

전상(奠床)의 간품(看品)은 조석전상(朝夕奠床)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낭청(堂上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함께 진참하고(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



품시에는 도감당상낭청(都監堂上郎廳)과 예조당상해사제조(禮曹堂上該司提調)가 함께 모두 진참하였다. 또한 조석전 삭망전 별전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사관원(該司官員)이 숙수(熟手)를 영솔(領率)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의주(儀注)에는 전을 올리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주는 국조오례의 의주를 바탕으로 하되, 인선왕후 빈전도감의 성격에 맞도록 취사선택하고 일부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국조오례의와 대동소이하다.

제전의 감선(監膳)은 대제(大祭)인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삭망전(朔望奠) 속절(俗節) 제 별전(別奠) 등제는 도감제조낭청(都監提調郎廳) 각 1원이 예조당상(禮曹堂上) 1원과 본시제조(本寺提調) 1원과 안동감선(眼同監膳)하고, 조석전(朝夕奠)은 도감제조와 낭청 각 1원이 감선, 조석상식(朝夕上食) 주다례(晝茶禮)는 사옹원(司饗院)이 담당하므로 도감은 감선하는 일이 없었다. 발인시 대소 주정전(晝停奠), 숙소 성빈전, 능소 성빈전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은 모두 대제와 같고, 조석전은 모두 본 도감이 담당하여 감선하였다. 노제(路祭)는 충훈부(忠勳府)와 의정부(議政府)가 오로지 담당하므로, 본 도감이 감선하지 않았다. 교량제와 명산대전제는 국장도감이 담당하여 거행하고, 안능전은 산역도감이 담당하여 거행하였다.

빈전 제전의 상차림과 그릇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전의 종류	상차림[祭物 器數]
습전(襲奠)	中朴桂(4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5器)·實柏子(1器)·實榛子(1器)·
소렴전(小斂奠)	乾柿子(1器)·大棗(1器)·生梨(1器)·黃栗(1器)·自朴餅(1器)·油餅(1器)·敬丹餅
대렴전(大斂奠)	(1器)·油沙餅(1器)·切餅(1器)·甫是餅(1器)·山蔘餅(1器)·牀花餅(1器)·松古餅
성빈전(成殯奠)	(1器)·豆丹子餅(1器)
삭망(朔望), 속절(俗節)의 모든 대제(大祭)	挾卓器數 : 藥果(1器)·菓古看藍(1器)·竹筍看藍(1器)·多士麻看藍(1器)·水正果(1器)·實生栗(1器)·菜(1器)·麪(1器)·煎蒸(1器)·雜湯(1器)·追淸(1器)·擧乙麪(1器)·嚮蒸(1器)·四燭(2丁)·五燭(1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松古餅(1器)·豆丹子餅(1器)·油沙餅(1器)·實柏子(1器)·實生栗(1器)·生梨(1器)·大棗(1器)·煎蒸(1器)·雜湯(1器)·細麪(1器)·水正果(1器)·追淸(1器)·菜(1器)
출전 : 『[仁宣后]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監膳式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06 [顯宗]殯殿都監儀軌

【정의】

1674년(숙종 즉위) 현종(顯宗, 1659~1674)이 승하함에 따라 시신을 모시는 빈전(殯殿)과 신주를 모실 혼전(魂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궤이다. 표제는 ‘顯宗大王殯殿都監儀軌’라고 되어 있지만,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와 혼전도감의궤(魂殿都監儀軌)가 합부된 형태이다.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에 빈전도감의궤를, 뒷부분에 혼전도감의궤를 수록하였다. 1675년(숙종 1) 빈전도감(殯殿都監) 및 혼전도감(魂殿都監)에서 편찬하였다.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국장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을 설치하여 장례를 진행하였는데, 빈전도감과 혼전도감도 그 중 하나였다. 빈전도감에서는 시신을 모신 빈전의 일을 관장하였고, 혼전도감에서는 신주를 모실 혼전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빈전도감의궤의 총설과 빈전일방의궤 부분에 빈전에 올린 여러 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차림 내용과 중앙 각사와 각도의 제향일정이 제시되어 있다.

【서지】

[顯宗]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299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5.8×26.5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2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6.8×35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40)

‘康熙十四年乙卯五月日 江華府上 顯宗大王 殯殿都監儀軌<甲寅秋魂殿合付>’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540)은 강화부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4842), 파리국립도서관(2599·2498)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서책명은 빈전도감의궤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전반부는 빈전도감의궤, 후반부는 혼전도감의궤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도감에서는 시신을 모신 빈전의 일을 관장하였고, 혼전도감에서는 신주를 모실 혼전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현종의 혼전은 창경궁 환경전(歡慶殿)에 마련되었으며, 효경전(孝敬殿)이라고 불렸다. 전반부의 빈전도감의궤는 총설과 빈전일방의궤 빈전이방의궤 빈전삼방의궤, 별공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의 혼전도감의궤는 혼전도감의궤 총설과 혼전이방, 혼전삼방, 혼전조성소, 혼전수리소, 혼전별공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목차와 내용을 보면, 권두에는 소선(素扇), 소개(素蓋), 명정(銘旌), 명정부(銘旌跋),

영좌만정골(靈座滿頂骨), 고관평상(高欄平牀), 찬궁(欝宮), 영침만정골(靈寢滿頂骨) 등 8종의 기물에 대한 채색도와 그 재료, 크기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현종의 승하, 성빈(成殯), 발인(發靱), 반우(返虞) 일시를 적은 간략한 일지, 이조단자(吏曹單子), 사목(事目), [의주(儀註)], 계사질(啓辭秩), 내관질(來關秩), 감결질(甘結秩)이 수록되어 있다. 빈전일방(殯殿一房) 의례 부분에는, 제전(祭奠), 성복(成服), 개명정(改銘旌), 발인(發靱), 반우(返虞) 등의 일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목차는 [좌목(座目)], 품목질(稟目秩), 잡물등실입(雜物等實入), 장인질(匠人秩) 이루어져 있으며, 습렴(襲斂)과 관련된 일들 및 찬궁(欝宮) 배설(排設)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삼방(三房) 의례는 [좌목(座目)], 레조단자(禮曹單子), 예관질(禮關秩), 품목질(稟目秩), 빈전속소등수본질(殯殿屬所等手本秩), 삼시수본질(三寺手本秩), 감결질(甘結秩), 이관질(移關秩), 내관질(來關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 진향제문질(進香祭文秩)로 구성되어 있다.

혼전도감의례의 목차는 총설은 [좌목(座目)], 사목(事目), 계사질(啓辭秩),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 혼전이방(魂殿二房)은 [좌목(座目)], 조성소소장(造成所所掌), 수리소소장(修理所所掌), 품목질(稟目秩), 혼전삼방(魂殿三房)은 [좌목(座目)],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 혼전조성소(魂殿造成所)는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잡물실입질(雜物實入秩), 혼전수리소(魂殿修理所)는 [좌목(座目)], 공장질(工匠秩), 잡물실입질(雜物實入秩), 혼전별공작(魂殿別工作)은 [좌목(座目)], 실입질(實入秩), 환하질(還下秩), 수본질(手本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관련내용】**

현종은 어머니 인선왕후(仁宣王后)의 국상 중이던 1674년 8월 18일 해시에 창덕궁의 재려(齋廬)에서 승하하였다. 당일예 복(復), 목욕이 이루어지고, 19일 미시에 습, 20일 오시에 소렴, 22일 오시에 대렴이 이루어지고, 성빈하였는데, 시신은 선정전(宣政殿)에 마련된 빈전(殯殿)에 모셨으며, 제6일인 23일에 성복하였다. 12월 11일 축시에 발인하였고, 12월 13일 진시에 승릉에서 하현궁하고, 같은 날 우주(虞主)를 혼전(魂殿)으로 정해진 창경궁의 환경전(歡慶殿)에 봉안하고 효경전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에서 빈전에 수시로 전이 올려졌다. 23일까지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빈전이 올러지고, 성빈전 이후에는 조석전이 설행되기 시작했다. 이상의 각 전과 조석전은 빈전1방이 차지 검칙(檢飭)하였으며, 업무는 봉상시, 내섬시, 내자시의 3시(寺)에 분정되었다. 9월 1일부터 실행된 삭망전도 봉상시, 내섬시, 내자시의 3시가 윤행하였다[周而復始]. 또한 발인시의 제전도 3시가 준비하였다. 의례를 통해 확인되는 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시행일시와 준비부서

祭奠의 종류	시행 일시	준비부서
습전	8월 19일 진시	봉상시
소렴전	20일 진시	내섬시
대렴전	22일 병시	내자시
성빈전	22일 수시(隨時)	봉상시
성복전	23일 묘시	
조석전	성빈전 이후 설행	초차 3일 봉상시
		재차 3일 내섬시

		3차 3일 내자시[周而復始]
9월 삭전	9월 1일	봉상시
9월 망전	9월 15일	내섬시
10월 삭전	10월 1일	내자시[周而復始]
사직종묘경사전 고계빈전	12월 8일	봉상시
사직기청제	12월 10일	봉상시
계빈전(조석전과 겸행)	12월 10일	내섬시
계빈후별전	10일 수시	내섬시
조전	10일 일보시	내자시
견전	12월 11일 자시	내섬시
빈전해사제	12월 11일 발인후 수시	봉상시
노제	12월 11일 수시	예빈시
발인시 주정전		내자시
반우시 주정전		내섬시
산릉 정자각 성빈전		봉상시
12월 11일 석상식 석전		이상 각전 수라간 및 봉상시 내자시 내섬시가 상시례에 의 해 윤회 설행하되, 빈전도감 이 미리 분정하여 거행
12월 12일 조석전 조석상식 주다례		
12월 13일 조전 조상식		
천전	12월 13일 수시	내자시
입주전	13일 수시	내자시
사후토제	13일 수시	봉상시
안릉전	봉릉사필후 수시	내섬시
효경전봉안후별전	12월 13일 수시	봉상시
초우제부터 줄곡제까지		봉상시
반우후 산릉 3년내 조석상식 주다례		산릉수라간, 봉상시
반우후 혼전 3년내 조석상식 주다례		혼전수라간, 봉상시
혼전 삭망 속절 사시납향 범별 제 급 산릉 삭망 속절 사시납 향 범별제		봉상시
각문 각처 교량 명산대천제		봉상시

출전 : 『[顯宗]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제전의 상차림에 대한 감선은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빈전, 성복전, 속절, 삭망전, 계빈전, 조전, 천전, 견전, 주정전, 입주전은 모두 대체이기 때문에, 도감제조와 예조당상 해시제조 각 1원씩 안동감선하고, 노제는 의정부 충훈부 차지, 안릉전은 산릉도감 차지, 사제는 관상감 차지가 감선하였으며, 고유전 별전 등의 제는 도감제조 낭청, 해사제조 각 1원이 안동감선하고, 조석전은 대체를 겸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감제조 낭청 각 1원이 감선하고 주다례와 조석 상식은 사용원이 스스로 거행하였다. 각 제전감선시의 시각의 기준은 금루에 의하였다.

제전의 모든 기수는 대체는 별전과 같고, 조석전은 달랐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전의 종류	상차림
대제(大祭) 별전(別奠)	中朴桂(4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5器)·實栢子(1器)·實榛子(1器)·實榭桃(1器)·乾柿子(1器)·黃栗(1器)·生梨(1器)·油餅(1器)·丁舍敬丹餅(1器)·山參餅(1器)·松古餅(1器)·敬丹餅(1器)·豆丹子餅(1器)·油沙餅(1器)·切餅(1器)·甫是餅(1器)·牀花餅(1器) 俠卓 : 藥果(1器)·饜麪(1器)·饜蒸(1器)·實生栗(1器)·菓古看藍(1器)·竹荀看藍(1器)·多士麻看藍(1器)·迫淸(1器)·水正果(1器)·菜(1器)·細麪(1器)·煎蒸(1器)·雜湯(1器), 四兩燭(2丁)·五兩燭(1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山參餅(1器)·豆丹子餅(1器)·切餅(1器)·生梨(1器)·乾柿子(1器)·實栢子(1器)·實榭桃(1器)·細麪(1器)·煎蒸(1器)·雜湯(1器)·菜(1器)·水正果(1器)·迫淸(1器), 小蜜燭(2丁)[奉常寺則自本寺進排 內資內贍則義盈庫進排] 출전 : 『[顯宗]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式

경아문과 각도에서 진향할 때에는 경아문은 본사 당상낭청이 감선하고, 외방은 해도 차사원이 감선하고 도감은 검칙하지 않았다. 진향 관서와 진향시일은 다음과 같다.

<표 3> 진향관서와 일시

월	일	시	진향관서
10	8	미시	의정부
	10	사시	충친부
	13	사시	의빈부
	15	사시	돈령부
	23	사시	개성부
	26	사시	강화부
11	4	사시	경기
	7	사시	충청도
	9	사시	황해도
	18	사시	원양도
	21	사시	전라도
	23	사시	충훈부
	27	사시	경상도
	30	사시	평안도
12	5	사시	함경도

출전 : 『[顯宗]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京衙門及各道進香

한편, 현종의 국상은 모친인 인선왕후가 2월에 승하하여 대비전 국상 3년 안에 발생한 대상(大喪)이었다. 제사상을 흰 것을 사용하고, 전물은 소찬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예조(禮曹)에는 예문(禮文)을 상고하건대, 제상 탁자를 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지만, 초상(初喪)에는 흰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오례의(五禮儀)에 국상(國喪)의 초상에는 소찬(素饌)을 사용하다가 우제(虞祭)에 이르러서는 육찬(肉饌)을 겸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더구나 이번 대행왕(大行王)의 상(喪)은 인선 왕후(仁宣王后) 3년상 안의 우제(虞祭) 전에 있으니, 마땅히 소찬(素饌)을 사용해야 한다고 아뢰었으나, 중궁(中宮)이 내린 교지(教旨)는 우제 전의 제전(祭奠)은 마땅히 소찬을 사용해야 할 것이지만, 대행왕(大行王)이 생존해 계실 때 백관(百官)들의 정청(廷請)으로 인하여 이미 상선(常膳)을 회복하여, 내소(內所)에서 제수(祭需)를 올릴 적에 상선(常膳)으로써

드렸으니, 이런 뜻을 외부(外部)에 고지(告知)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속중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의궤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07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680년(숙종 6) 숙종의 비인 인경왕후(仁敬王后, 1661~1680)가 승하함에 따라 시신을 모시는 빈전(殯殿)과 신주를 모실 혼전(魂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례이다. 표제는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라고 되어 있으며, 내제는 ‘殯殿都監儀軌’이다.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전도감의례(殯殿都監儀軌)와 혼전도감의례(魂殿都監儀軌)가 합부된 형태로 앞부분에 빈전도감의례, 뒷부분에 혼전도감의례를 수록하였다. 1681년(숙종 7) 빈전도감 및 혼전도감에서 편찬하였다.

빈전도감의례의 총설과 빈전일방의례 부분에 빈전에 올린 여러 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차림 내용과 중앙 각사와 각도의 제향일정이 제시되어 있다.

【서지】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1冊(373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5.7×26.4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0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5.7×34.9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一品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54)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과리국립도서관(2600·2499)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전반부는 빈전도감의례, 후반부는 혼전도감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도감에서는 시신을 모신 빈전의 일을 관장하였고, 혼전도감에서는 신주를 모실 혼전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의례의 권두에는 소선(素扇), 소개(素蓋), 명정(銘旌), 명정부(銘旌趺), 영좌만정골(靈座滿頂骨), 고란평상(高欄平牀), 찬궁(欝宮), 영침만정골(靈寢滿頂骨) 등 8종의 기물에 대한 채색도와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빈전도감의례(殯殿都監儀軌)의 총설부분은 인경왕후의 승하, 성빈(成殯), 발인(發靱), 반우(返虞) 일시를 적은 간략한 일지로 시작되며, 이어서 이조단자(吏曹單子), 사목(事目), [의주(儀註)], 예조절목(禮曹節目), 계사질(啓辭秩), 감결질(甘結秩)로 구성되고, 빈전일방(殯殿一房)은 [좌목(座目)], [소장(所掌)], 예관질(禮關秩), 품목질(稟目秩), 빈전내관수본질(殯殿內官手本秩), 산릉전예수본질(山陵奠禮手本秩), 수복수본질(守僕手本秩), 빈전별감수본질(殯殿別監手本秩), 삼사수본질(三寺手本秩), 감결질(甘結秩), 이관질(移關秩), 내관질(來關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로 구성되며, 빈전이방(殯殿二房)은 [좌목(座目)], 품목(稟目), 빈전삼방(殯殿三房)은 [좌목(座目)], [소장(所掌)], 품목질(稟目秩)로 구성되어 있다.

혼전도감의례(魂殿都監儀軌)의 총설부분은 [좌목(座目)], 도감사목(都監事目), 계사질(啓

辭秩),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감결질(甘結秩), 의례사목(儀軌事目), 제색공장요포상하식(諸色工匠料布上下式), [서계(書啓)·논상(論賞)]으로 구성되며, 혼전이방(魂殿二房)은 [좌목(座目)], 조성소소장(造成所所掌), 수리소소장(修理所所掌), 품목질(稟目秩), 혼전삼방(魂殿三房)은 [좌목(座目)], 이문질(移文秩),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실입질(實入秩), 환하질(還下秩), 혼전각소장기명차지설리급도감낭청안동분급질(魂殿各所掌器皿次知薛里及都監郎廳眼同分給秩), 각색장인질(各色匠人秩), 혼전조성소(魂殿造成所)는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봉상질(捧上秩), 실입질(實入秩), 환하질(還下秩), 제색장인질(諸色匠人秩), 수리소(修理所)는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본소소장(本所所掌), 재와방전봉상질(材瓦方甄捧上秩), 실입질(實入秩), 잡물용여환하질(雜物用餘還下秩), 각사진배잡물용후환하질(各司進排雜物用後還下秩), 공장질(工匠秩), 혼전별공작(魂殿別工作)은 [좌목(座目)], [소장(所掌)], 각양잡물실입질(各樣雜物實入秩), 용후환하질(用後還下秩), 용여환하질(用餘還下秩), 수본질(手本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인경왕후는 1680년(숙종 6) 10월 26일 해시, 즉 2경에 경덕궁(慶德宮) 회상전(會祥殿)에서 승하하였다. 원래 오례의(五禮儀) 의주(儀注)에서는 승하(昇遐)한 당일에 습례(襲禮)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경왕후의 승하는 야심(夜深)한 시각이었으므로 인목왕후의 예를 참조하여 습례를 다음날인 27일에 하였다. 이후 28일에 소렴을 하고, 10월 30일 미시에 융복전(隆福殿)에 마련된 빈전(殯殿)에 시신을 모셨으며(大斂과 成殯), 이듬해 2월 20일 인시에 발인(發靱)하였다. 2월 22일 왕후를 장지에 모신 후, 왕후의 우주(虞主)를 경덕궁 계상전(啓祥殿)에 마련된 혼전에 봉안하고(返虞), 영소전(永昭殿)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국장의 식에서 수시로 전을 올렸다.

전상(奠床)의 간품(看品)은 조석전상(朝夕奠床)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함께 진참하고(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사제조(該司提調)가 함께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전 삭망전 별전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사관원(該司官員)이 숙수(熟手)를 영솔(領率)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제전의 상차림에 대한 감선은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빈전 성복전 속절 삭망전 계빈전 조전 천전 견전 주정전 입주전 모두 대체, 도감제조 및 예조당상 해시제조 각 1원이 안동감선하고, 노제는 의정부 충훈부 자지가, 안릉전은 산릉도감 차지가, 해사제는 관상감 차지가 감선하였으며, 고유전 별전은 도감제조 낭청 및 해시제조 각 1원이 안동감선하고, 조석전이 대체를 겸행할 때가 아니면 도감제조 낭청 각 1원이 감선하고, 주다례와 조석상식은 사용원에서 감선을 스스로 거행하였다. 각 제전의 감선시 준비시각은 금루 등에 준해서 행하였다.

제전식에 의하면 모든 기수는 대체와 별전이 같았으며, 조석전은 기수가 달랐다. 제물의 그릇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전의 종류	상차림
대제(大祭) 별전(別奠)	中朴桂(4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5器)·自朴餅(1器)·山蔘餅(1器)·油餅(1器)·敬丹餅(1器)·切餅(1器)·松古餅(1器)·甫是餅(1器)·油沙餅(1器)·豆丹子餅(1器)·床花餅實栢子(1器)·實榛子(1器)·乾柿子(1器)·大棗(1器)·黃栗(1器)·生梨(1器)
	俠卓 : 藥果(1器)·實生栗(1器)·饜麪(1器)·饜蒸(1器)·菓古看藍(1器)·竹荀看藍(1器)·多士麻看藍(1器)·水正果(1器)·迫淸(1器)·細麪(1器)·菜(1器)·煎蒸(1器)·雜湯(1器), 四燭(2丁)·五燭(1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豆丹子餅(1器)·松古餅(1器)·切餅(1器)·實栢子(1器)·乾柿子(1器)·實生栗(1器)·生梨(1器)·水正果(1器)·迫淸(1器)·細麪(1器)·菜(1器)·煎蒸(1器)·雜湯(1器), 小蜜燭(2丁)[奉常寺則自備進排 內贍寺內資寺則義盈庫進排]
출전 :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式	

경아문과 각도에서 진향할 때에는 경아문은 본사 당상 낭청이 감선하고, 외방은 해도 차사원이 감선하고 도감은 검칙하지 않았다. 진향 관서와 진향일시는 다음과 같다.

<표 2> 진향관서와 일시

월	일	시	진향관서
12	18	사시	의정부 (率百官)
	26	사시	종친부
	28	사시	의빈부
1	6	사시	개성부
	10	사시	강화부
	13	사시	경기도
	20	사시	충청도
	22	사시	돈령부
	23	사시	황해도
	25	사시	강원도
	29	사시	전라도
	30	사시	돈령부
	2	2	사시
7		사시	평안도
9		사시	종친부
14		사시	함경도
출전 :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殯殿一房 京衙門及各道進香			

【참고문헌】

『속중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08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683년(숙종 9) 12월 5일 현종(顯宗)의 비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가 승하함에 따라 시신을 모시는 빈전(殯殿)과 신주를 모시는 혼전(魂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례이다. 표제는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라고 되어 있으며, 내제는 ‘殯殿都監儀軌’이다.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전도감의례(殯殿都監儀軌)와 혼전도감의례(魂殿都監儀軌)가 합부된 형태로, 앞부분에 빈전도감의례를, 뒷부분에 혼전도감의례를 수록하였다. 빈전도감 및 혼전도감에서 편찬하였다.

빈전도감의례의 총설과 빈전일방의례 부분에 빈전에 올린 여러 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차림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상차림은 명성왕후의 유교에 의해 오례의보다 많이 감쇄되어 있으며, 각도와 각사의 제향은 실시되지 않았다.

【서지】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1冊(314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5.9×26.4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4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6.3×34.8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44)

‘康熙二十三年江華府上 明聖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544)은 강화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41), 파리국립도서관(2601:2501)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전반부는 빈전도감의례, 후반부는 혼전도감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도감에서는 시신을 모신 빈전의 일을 관장하였고, 혼전도감에서는 신주를 모실 혼전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의례의 권두에는 소선(素扇), 소개(素蓋), 명정(銘旌), 명정부(銘旌趺), 영좌만정골(靈座滿頂骨), 고란평상(高欄平床), 찬궁(欝宮), 영침만정골(靈寢滿頂骨) 등 빈전(殯殿)에 사용된 8종의 기물에 대한 채색도와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빈전도감의례의 총설부분은 [시일(時日)], 이조단자(吏曹單子), 사목(事目), [의주(儀註)], 계사질(啓辭秩), 감결질(甘結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전일방(殯殿一房)은 [좌목(座目)], 감선식(監膳式), 제전식(祭奠式),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이관질(移關秩), 빈전잡물소화질(殯殿雜物燒火秩), 산릉하현궁후잡물소화질(山陵下玄宮後雜物燒火秩), 영좌제구소화질(靈座諸具燒火秩), 내관질(來關秩), 빈전수복수본질(殯殿守僕手本秩), 빈전별감수본질(殯殿別監手本秩), 빈전차지별감수본질(殯殿次知別監手本秩), 산릉전례수본질(山陵奠禮手本秩),

봉상시수본질(奉常寺手本秩), 예관질(禮關秩), 예조의주급단자질(禮曹儀註及單子秩), 제문질(祭文秩)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성복(成服)과 관련된 일을 담당한 빈전이방(殯殿二房), 여러 물품들을 준비하는 일을 담당한 빈전삼방(殯殿三房), 그 밖에 필요한 기물들을 제작하는 일을 맡은 이들의 명단과 각종 기물 목록 및 관련 문서들이 수록 별공작(別工作)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혼전도감의궤(魂殿都監儀軌)도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와 유사하여, 혼전도감의 총설에 이어, 혼전이방(魂殿二房), 혼전삼방(魂殿三房), 혼전별공작(魂殿別工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명성왕후 1683년(숙종 9) 12월 5일 미시에 창경궁 저승전의 서별당에서 승하하자, 9일 사시에 창덕궁 선정전으로 옮겨, 오시에 성빈하였다. 이듬해인 1684년 4월 3일 인시에 발인하고, 사시에 산릉 가정자각으로 봉안하였으며, 5일 인시에 하현궁하고, 묘시에 창경궁 문정전에 반우하여 봉안하였다. 이 혼전은 영모전(永慕殿)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국장절차에서 수시로 제전을 올렸으며, 여기에는 상차림이 이루어졌다.

제전의 상차림에 대한 감선은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빈전, 성복전, 속절, 삭망전, 계빈전, 조진, 천진, 견진, 주정진, 입주전은 모두 대체이기 때문에, 도감제조와 낭청 및 예조당상 해시제조 각 1원씩 안동감선하고, 노전은 의정부 충훈부 차지, 안릉전은 산릉도감 차지, 해사제는 관상감 차지, 초우제는 혼전당상 차지가 감선하였으며, 고유전 별전은 도감제조 낭청, 해시제조 각 1원이 안동감선하고, 조석전은 대체를 겸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감제조 낭청 각 1원이 감선하고 주다례와 조석 상식은 사용원이 스스로 감선하였다. 각 제전감선시의 시각의 기준은 금루에 의하였다.

제전 전물의 기수는 매우 감쇄되어 있다. 이는 명성왕후가 병이 심해지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줄 알고 언문으로 유교를 지어 봉해 궁인에게 맡겼다가 승하하자 내린 유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 유서에 의하면 삭망제(朔望祭)의 과실 그릇의 수는 전례(前例)를 따르지 말고 모두 절반(折半)으로 할 것이며, 아침저녁의 전(奠)은 비록 행하지 않는다 해도 좋을 것이나, 만약 예(禮) 때문에 다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과(油果)와 이병(餌餅)을 한 그릇씩 차릴 것이며, 다른 전물(奠物)도 또한 반으로 감하라고 하였다. 또한 각도(各道)와 각사(各司)의 진향(進香)도 정지(停止)시키라고 하였다. 숙종은 모두 유교(遺敎)를 준수(遵守)하여 검소한 덕을 받들라고 명하였으나, 단지 주다례(晝茶禮)만은 예의(禮儀)대로 하라고 명하였으니, 그것은 유교(遺敎) 가운데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명성왕후의 유교가 반영된 제전의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전의 종류	상차림
대제(大祭) 별전(別奠)	中朴桂(4器內;減2器)·紅散子(2器內;減1器)·白散子(3器內;減1器)·藥果(5器內;減3器)·實栢子(1器)·乾柿子(1器)·生梨(1器, 큰 것은 10箇, 작은 것은 15箇)·自朴餅(1器)·敬丹餅(1器)·切餅(1器)·山蓼餅(1器)·松古餅(1器) * 이상은 그대로 존치 實榛子(1器)·大棗(1器)·黃栗(1器)·油餅(1器)·油沙餅(1器)·甫是餅(1器)·床花餅(1器) * 이상은 遺敎에 의해서 減省
	俠卓 : 藥果(1器)·實生栗(1器)·藁古看藍(1器)·水正果(1器)·菜(1器)·麪(1器)·雜湯(1器)·追淸(1器)·四兩燭(2丁)·五兩燭(1丁) * 이상은 그대로 존치 竹荀看藍(1器)·多士麻看藍(1器)·煎蒸(1器)·嚶麪(1器)·嚶蒸(1器) * 이상은 遺敎에 의해서 減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內;減2器)·細麪(1器)·水正果(1器)·追淸(1器)·菜(1器) * 이상은 그대로 존치 松古餅(1器)·豆丹子餅(1器)·油沙餅(1器) *以上 3器中 1器 周以復始 實栢子(1器)·實生栗(1器)·生梨(1器, 體大則十箇 體小則十五箇)·大棗(1器) * 以上 4器中 2器 周以復始 煎蒸(1器)·雜湯(1器) *以上 2器中 1器 周以復始
출전 :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式	

【참고문헌】

『속중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09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

【정의】

1701년(숙종 27) 8월에 승하한 숙종의 계비(繼妃)인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1667~1701)의 국장(國葬) 때 빈전(殯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궤이다. 인현왕후가 1701년 8월 14일 창경궁(昌慶宮)의 경춘전(景春殿)에서 승하하자, 14일 환경전(歡慶殿)에 빈전을 설치하고 시신을 모셨으며, 12월 8일 발인(發靱)하여 산릉 정자각(丁字閣)에 모셨다. 혼전은 창경궁 문정전(文政殿)에 마련되었다. 표지에 ‘仁顯王后 殯殿都監儀軌’라고 적혀 있으며 불분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현왕후빈전도감의궤의 총설과 빈전일방(殯殿一房) 부분에 빈전(殯殿)에 올린 여러 전(奠)의 의식과 간품(看品), 의식의 주관, 감선(監膳), 음식의 그릇 수 등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서지】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212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5.9×26.0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3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5.6×32.9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一品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56의1)

‘康熙四十年辛巳八月日 仁顯王后 江華府上 殯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은 강화부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파리국립도서관(2602)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목차는 크게 도설(圖說),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 총설, 빈전일방(殯殿一房), 빈전이방(殯殿二房), 빈전삼방(殯殿三房),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卷頭)의 도설은 소선도(素扇圖), 찬궁도(欝宮圖), 영침만정골도(靈寢滿頂骨圖)의 기물에 대한 도식과 규격해설 외에는 찢어져 있어서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다른 의궤에 비추어 볼 때 8종의 기물에 대한 도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서 빈전도감의궤의 총설 부분이 있다. 여기에는 장례일정 제주식(題主式) 등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찢어져 훼손되어 있어 앞부분만 확인 가능하다. 이후에는 이조계하단자(吏曹啓下單子), 사목(事目), 의주(儀註), 계사질(啓辭秩),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등이 있다.

빈전일방(殯殿一房)은 제전제사(祭奠諸事), 개명정등사(改銘旌等事), 성복 후 빈전의 여러 가지 일(成服後殯殿諸事), 습의 후 발인하여 산릉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일(習儀後發靱到山陵等事)을 담당한다. 의궤는 좌목(座目)과 소장(所掌) 업무,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품목질(稟目秩), 인차지중사분부품목질(因次知中使分付稟目秩), 봉상시(奉常

寺)·내섬시(內贍寺)·내자시(內資寺)·설리(薛里)·산릉전례(山陵奠禮)·사약(司鑰)·수복(守僕)·빈전별감(殯殿別監) 등의 수본질(手本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감결질(甘結秩), 예관질(禮關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이방(殯殿二房)은 성복제사(成服諸事)를 담당하는데, 의궤는 좌목(座目), 소장(所掌),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용하질(用下秩), 공작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삼방(殯殿三房)은 습렴제사(襲欽諸事) 찬궁배설명정등사(欖宮排設銘旌等事)를 담당하는데, 좌목(座目), 소장(所掌), 품목질(稟目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은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조작질(造作秩), 실입질(實入秩), 환하질(還下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인현왕후는 1701년 8월 14일 축시 창경궁(昌慶宮)의 경춘전(景春殿)에서 승하하자, 같은 날, 진시(辰時)에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목욕례(沐浴禮)를 행하고, 오시(午時)에 습례(襲禮), 16일(제3일) 소렴(小斂), 18일(제5일) 대렴(大斂), 성빈(成殯), 19일(제6일) 성복(成服)하였고, 12월에 산릉에 모시기까지 빈전에 여러 차례의 각종 전을 올렸다. 이와 같은 제전에는 음식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빈전도감의궤의 총설 부분과 빈전일방의궤에 산견(散見)되어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상(奠床)의 간품(看品)

빈전도감의궤의 이조계하단자(吏曹啓下單子)에 수록되어 있는 바, 조석전상(朝夕奠牀)의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 아울러 진참(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看品時)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사제조(該司提調)가 아울러 모두 진참하며,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사관원(該司官員)이 숙수(熟手)를 영솔(領率)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 2. 전을 올리는 의식의 주관

8월 14일 예조에 계하한 의주(儀註) 안에는 전을 올리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주는 국조오례의 의주를 바탕으로 하되, 인현왕후 빈전도감 성격에 맞도록 취사선택 및 보완하고 있다. 예컨대 설빙(設氷) 같은 경우 당시의 일기가 심하게 덥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주는 그 내용이 국조오례의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 의주에는 전을 올리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조석곡전과 상식(朝夕哭奠及上食) 등은 모두 1방이 전적으로 주관하여 일을 맡아 보았다(專掌次知). 음식을 만드는 책임, 곧 숙설(熟設)은 습전은 봉상시(奉常寺), 소렴전은 내섬시(內贍寺), 대렴전은 내자시(內資寺), 성빈전(成殯奠)은 봉상시(奉常寺), 성복전(成服奠)은 내섬시(內贍寺)가 돌아가면서 맡았다. 또한 조석전의 숙설은 3시(三寺)가 3일씩 윤회(輪回) 거행하였다. 이외에도 의주에는 삭망전(朔望奠)의 의식과 숙절 별전의 의식은 동일함도 밝히고 있다.

#### 3. 제전(祭奠)의 감선(監膳)

제전의 제상(祭牀)과 중배설상(中排設牀)은 상의원(尙衣院)이 내입(內入)하고, 외진설상

(外陳設牀)은 별공작(別工作)이 진배하였다.

감선은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천전(遷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 입주전(立主奠) 등은 모두 대제(大祭)이기 때문에 도감제조(都監提調) 낭청(郎廳) 예조당상(禮曹堂上) 본시제조(本寺提調)가 각각 1원씩 함께 입회하여(眼同) 감선하고, 노제(路祭)는 의정부 증훈부 차지(次知)가 안릉전(安陵奠)은 산릉도감(山陵都監) 차지가 해사제(解謝祭)는 관상감(觀象監) 차지가 우제(虞祭)는 혼전당상낭청(魂殿堂上郎廳) 차지가 감선하고, 고유전(告由奠) 별전(別奠)은 도감제조(都監提調) 낭청(郎廳)과 해당 시(該寺) 제조(提調)가 각각 1원씩 안동감선(眼同監膳)하고, 조석전(朝夕奠)을 대제(大祭)와 겸행(兼行)할 때의 감선은 도감제조(都監提調) 낭청(郎廳)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시제조(該寺提調) 각 1원이 안동감선(眼同監膳)하고, 주다례(晝茶禮)와 조석상식(朝夕上食)은 사옹원(司饗院) 차지가 감선하였다.

#### 4. 제전(祭奠) 기수식(器數式)

제전의 그릇 수는 대제와 별전이 같으며, 조석전은 기수가 달랐다. 그런데, 인현왕후 빈전의 제전 상차림에는 종전보다 감선(減膳)이 많이 보인다. 이는 인현왕후의 유지에 따른 것이다. 총설에 실려 있는 계사질(啓辭秩)의 신사년 8월 22일 조항에 의하면, 임금이 빈전(殯殿)의 조석전(朝夕奠)·상식(上食)·주다례(晝茶禮)의 기명(器皿) 숫자와 진향(進香)·제물(祭物)의 반(半)을 줄이라 명하였는데, 대개 대행왕비(大行王妃)가 폐단을 걱정한 유지(遺志)를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숙종실록에서는 빈전도감의 계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으며, 일자도 8월 20일(을해) 기사로 수록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석전(朝夕奠)의 병(餅)은 3기(器) 가운데 1기(器)를 감거(減去)하되, 2기 안에 3색병(三色餅)을 윤회비진(輪回備進)한다. 실과(實果)는 4기(器) 가운데 2기(器)를 감거(減去)하되, 2기 안에 4색(四色)을 윤회비진(輪回備進)한다.

조석상식(朝夕上食)의 몇 그릇(數器)은 점하(點下)에 의하여 영감(永減)하되, 탕(湯) 4기(四器)를 그 절물(節物)에 따라 비진(備進)한다.

주다례(晝茶禮)의 병(餅)은 2기(二器) 가운데 1기(一器)를 감거(減去)하되, 양색병(兩色餅)을 윤회(輪回) 비진(備進)하고, 실과(實果)는 4기(四器) 가운데 2기(二器)를 감거(減去)하되 2기(二器) 안에 4색(四色)을 윤회(輪回)로 비진(備進)한다.

조석전(朝夕奠)에 진설하는 전증(煎蒸) 잡탕(雜湯)은 계해년등록에 의하여 윤회(輪回) 비진(備進)한다.

주다례(晝茶禮)에 진설하는 병(餅)은 초일(初日)은 3기(三器) 중일과 중일(中終日)은 2기로 하는 것이 규례인데, 중종일을 전교에 의하여 1기 비진하면, 이에 맞추어 초일도 2기 비진한다.

이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가 빈전일방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이다. 이를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수
대제(大祭) 별전(別奠)	中朴只(4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5器)·自朴餅(1器)·山蔘餅(1器)·油餅(1器)·切餅(1器)·松古餅(1器)·甫是餅(1器)·敬丹餅(1器)·油砂餅(1器)·豆丹子餅(1器)·床花餅(1器)·實柏子(1器)·實榛子(1器)·實胡桃(1器)·大棗(1器)·實生栗(1器)·生梨(1器)
	俠卓 藥果(1器)·實生栗(1器)·饜麪(1器)·饜蒸(1器)·蒙古看藍(1器)·竹荀看藍(1器)·多士麻看藍(1器)·水正果(1器)·迫淸(1器)·細麪(1器)·菜(1器)·煎蒸(1器)·雜湯(1器)·四兩燭(2丁)·五兩燭(1丁)奉常寺當次則本寺備進內贍內資寺則義盈庫進排
조석전 (朝夕奠)	[日都監定奪各色餅式以俗節所用餅輪回代用事傳教] 藥果(3器內 1器減) 豆丹子餅(1器)·松古餅(1器)·切餅(1器)[以上 3器中 1器 減去, 2器中3色 輪回 備進事 傳教] 實柏子(1器)·生梨(1器)·實生栗(1器)·實胡桃(1器)[以上 4器中 2器 減去, 2器中 4色 輪回 備進事 傳放] 迫淸(1器)·水正果(1器)·細麪(1器)·菜(1器-姑減) 煎蒸(1器)·雜湯(1器)[煎蒸雜湯 2色亦爲輪回備進事 定奪] 小蜜燭(2丁)[奉常寺當次則自本寺備進 內贍內資寺 則義盈庫進排]
출전 :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監膳式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속중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0 [端懿嬪]殯宮都監儀軌

【정의】

1718년(숙종 44) 2월에 홍서(薨逝)한 경종의 왕세자 시절 빈(嬪)인 단의빈(端懿嬪, 1686~1718)<sup>1)</sup> 심씨(沈氏)의 국장 때 빈전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례이다. 단의빈이 1718년 2월 7일 창덕궁(昌德宮) 장춘헌(長春軒)에서 홍서(薨逝)하자, 창경궁(昌慶宮) 경극당(敬極堂)에 빈소를 설치하고 시신을 모셨으며, 4월 16일 발인하여 묘소 정자각에 모셨다. 의례는 표지에 '魂宮都監儀軌'라고 되어 있으나 혼궁(魂宮)은 빈궁(殯宮)의 착오로 여겨진다. 단의빈 국장과 관련하여서는 단의빈예장도감의례(端懿嬪禮葬都監儀軌)(奎 13573), <奎 13572>와 [단의빈]혼궁도감의례([端懿嬪]魂宮都監儀軌)<奎 13574>가 별도로 남아 있다.

단의빈빈궁도감의례의 총설과 빈궁일방(殯宮一房) 부분에 빈궁(殯宮)에 올린 여러 전(奠)의 의식과 간품(看品), 의식의 주관, 감膳(監膳), 음식의 그릇 수 등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서지】

[端懿嬪]殯宮都監儀軌  
線裝. 1冊(194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5.7×26.0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0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5.8×32.9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75)

‘康熙五十七年戊戌八月日 端懿嬪 江華府上 魂宮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575)은 강화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殯宮都監儀軌’이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목관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어미 문양은 실제로는 오판(五瓣) 화문어미이므로 3엽 혹은 2엽으로 보인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52), 파리국립도서관(2637)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목차는 크게 도설(圖說), 빈궁도감의례(殯宮都監儀軌) 총설, 빈궁일방(殯宮一房), 빈궁이방(殯宮二房), 빈궁삼방(殯宮三房), 빈궁별공작(殯宮別工作)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卷頭)의 도설은 소선도(素扇圖) 소개도(素盖圖) 명정도(銘旌圖) 명정부도(銘旌跋圖) 영좌평상일좌(靈座平床一坐) 영침평상일좌(靈寢平床一坐) 양장(仰帳) 등 7종의 기물에 대한 도식(圖式)과 해설이 실려 있다. 이후에는 이조계하단자(吏曹啓下單子), 사목(事目), 의주(儀註), 계사질(啓辭秩), 무술이월초구일품목질(戊戌二月初九日稟目秩) 등이 있다.

빈궁일방은 제전제구(祭奠諸具) 개명정등사(改銘旌等事) 성복후빈궁제사(成服後殯宮諸

1) 경종이 즉위하자 단의왕후(端懿王后)로 추봉됨.

事) 습의후발인시도산묘등사(習儀後發靱時到山墓等事)를 담당하는데, 의례에는 세자빈(世子嬪)이 홍서한 후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에 관한 것과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 봉상시(奉常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삼시(三寺)·빈궁설리(殯宮薛里)·묘소전례(墓所奠禮)·빈궁별감(殯宮別監) 등의 수본질(手本秩), 내관질(來關秩), 예관질(禮關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 등이 실려 있다.

빈궁이방은 성복제사(成服諸事)를 담당하는데, 의례에는 좌목(座目), 소장(所掌),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삼방(殯殿三房)은 습렴제사(襲欽諸事) 빈궁배설명정등사(殯宮排設銘旌等事)를 담당하는데, 좌목(座目), 목욕소용제구봉감각해사진배질(沐浴所用諸具捧甘各該司進排秩), 습제구봉감각해사진배질(襲諸具捧甘各該司進排秩), 반함행용제구봉감각해사진배질(飯舍行用諸具捧甘各該司進排秩), 소렴행용제구봉감각해사진배질(小斂行用諸具捧甘各該司進排秩), 대렴행용제구봉감각해사진배질(大斂行用諸具捧甘各該司進排秩), 재실입안처제구봉감각해사진배질(梓室入安處諸具捧甘各該司進排秩), 빈궁금화제구봉감각해사진배질(殯宮禁火諸具捧甘各該司進排秩), 품목질(稟目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은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조작질(造作秩), 용환질(用還秩), 초불봉질(初不捧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단의빈 빈궁의 상사에 관계되는 절목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소현세자 상사 때의 등록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세하게 구비하지 못한 것은 초상의 여러 가지 절목을 일일이 대신들에게 문의하여 거행하였다.

2월 9일 오시에 대렴례를 행함

2월 10일 사시에 성복.

4월 16일 축시에 단의빈(端懿嬪)의 발인을 행함

4월 18일 단의빈(端懿嬪)의 장례를 행하였다. 이날 반우(返虞)할 적에 세자가 빈궁(殯宮)에 곡립하였다.

단의빈은 1718년 2월 7일 술시(戌時) 창덕궁(昌德宮) 장춘軒(長春軒)에서 홍서(薨逝)하자, 다음날인 8일 오시에 목욕례(沐浴禮)를 행하고, 미시에 습례, 술시에 소렴, 제3일인 9일 오시에 대렴례를 행하고 영상(靈牀)을 창경궁 경극당(敬極堂)으로 봉이(奉移)하여 빈소를 마련[成殯]하였으며, 10일 사시에 성복하였고, 4월 16일 축시에 발인(發靱)하여 오시에 묘소 정자각에 봉안(奉安)하고, 4월 19일 축시에 하현실(下玄室) 묘시 길유궁(吉帷宮) 제우주(題虞主) 신시에 창경궁 구내반원(舊內班院)에 우주를 봉안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각종 전을 올렸다. 이와 같은 제전에는 음식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빈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과 빈전일방의례에 산견되어 있다. 이를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상의 간품

총설의 사목 중에 수록되어 있는 바, 조석전상(朝夕奠牀)의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아울러 진참(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낭청(禮曹郎廳) 해사낭청(該司郎廳)이 아울러 모두 진참하며, 조석전과 삭망전 별전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서관원(該

司官員)이 영솔숙수(領率熟手)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 2. 전을 올리는 의식의 주관

2월 8일 예조에 달하한 의주 안에는 전을 올리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빈전과 조석곡전(朝夕哭奠) 및 상식의(上食儀) 등은 모두 빈전일방이 일을 맡아 보았다(一房次知). 음식을 만드는 책임, 즉 숙설(熟設)은 습전(襲奠)은 봉상시(奉常寺), 소렴전은 내섬시(內贍寺), 대렴전은 내자시(內資寺), 성빈전은 봉상시(奉常寺), 성복전은 내섬시(內贍寺)가 돌아가면서 맡았고, 조석전의 숙설은 삼시(三寺), 즉 봉상시·내섬시·내자시가 돌아가면서(輸回) 3일씩 거행하였다.

이외에도 예조의주(禮曹儀註)에서는 삭망전(朔望奠)의 의식과 숙절 및 모든 별전의 의식은 동일함을 밝히고 있다.

## 3. 제전의 감선(監膳)

제전의 제상(祭牀)과 중배설상(中排設牀)은 상의원(尙衣院)이 내입(內入)하고, 외진설상(外陳設牀)은 별공작(別工作)이 진배하였다.

감선은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복전 숙절(俗節) 삭망전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견전(遣奠)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 등은 모두 대제(大祭)로 도감제조(都監提調) 낭청(郎廳) 예조당상(禮曹堂上) 본시제조(本寺提調)가 각각 1원씩 함께 입회하여(眼同) 간심(看審)하고, 예조계사(禮曹啓辭)로 도감당상 낭청과 예조낭청이 함께 입회하여(眼同) 감선(監膳)하였다.

노제(路祭)는 의정부·충훈부가 차지감선(次知監膳)하고, 안묘제(安墓祭)는 묘소(墓所) 도차지(都次知)가, 고유전(告由奠) 별전(別奠)은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낭청(禮曹郎廳)이 함께 입회하여 감선하였다.

조석전에서 대제를 겸행(兼行)할 때에는 도감당상 낭청 예조낭청이 안동감선(服同監膳)하고, 주다(晝茶) 및 조석상식(朝夕上食)은 사옹원 차지가 하고, 각제(各祭) 감선시 준비시각은 금누(禁漏)를 기준으로 거행(舉行)하였다.

## 4. 제전 기수식(祭奠器數式)

제전의 그릇 수는 대제(大祭)와 별전(別奠)이 같았다. 그런데 단의빈 빈궁 제전 기수에 대해서는 2월 10일에 성복하고 나서 조석전(朝夕奠)에서 상식(上食)의 그릇 수는 모두 간략하게 감소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예조(禮曹)에서 그 숫자를 작성하여 바치니, 임금이 계하(啓下)하여 준행하게 하였다[이는 실록의 기록임]. 이와 같은 조치가 반영된 것이 다음의 제전기수식이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수
大祭 別祭	中桂果(4器 內 2器減), 紅散子(2器 內 1器減), 白散子(3器 內 2器減), 藥果(5器 內 4器減), 實柏子(1器)·實胡桃(1器)·實生栗(1器)·乾柿子(1器)·生梨(1器)·大棗(1器) [이상 6器 內 2器 減하고 各色實果를 輪回함] 油餅(1器)·自朴餅(1器)·豆丹子(1器)·敬丹餅(1器)·油沙餅(1器)·切餅(1器)·甫是餅(1器)·山蔘餅(1器)·松古餅(1器)·牀花餅(1器) [이상 10器 內 5器 減하고, 以上色餅輪回備進] 鬻麪(1器, 與細輪回進), 鬻蒸(1器, 姑減)
	俠卓 藥果(1器, 姑減), 實生栗(1器, 姑減), 菓古看覽(1器), 竹筍看覽(1器), 多士麻看覽(1器), 水正果(1器), 追淸(1器), 細麪(1器, 與鬻麪輪回進), 煎蒸(1器), 雜湯(1器), 菜(1器), 四兩燭(2丁), 五兩燭(1丁)
朝夕奠 [晝茶禮則藥果無餅氏二器]	藥果(3器 內 1器 減), 餅氏(3器 內 2器 減, 各色餅輪回備進) 實果(4器 內 2器 減, 各色實果輪回備進), 水正果(1器), 追淸(1器), 細麪(1器), 煎蒸(1器), 采(1器), 雜湯(1器) [以上輪回備進] 小蜜燭(2丁)
출전 : 『[端懿嬪]殯宮都監儀軌』 殯宮一房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1 [肅宗]殯殿都監儀軌

【정의】

1720년(경종 즉위년) 6월에 승하한 숙종(肅宗, 1674~1720)의 시신을 모신 빈전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례이다. 숙종이 1720년 6월 8일 경덕궁(慶德宮) 융복전(隆福殿)에서 승하함에 따라, 12일 자정전(資政殿)에 빈전을 설치하고 시신을 모셨으며, 10월 20일 발인(發靚)하여 21일 하관하고 우주(虞主)를 창덕궁(昌慶宮) 문정전(文政殿)에 마련된 혼전(魂殿)에 봉안하기까지의 기록이다. 표지에 ‘殯殿都監儀軌’라고 적혀 있으며, 불분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에 국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의례가 만들어졌다. 숙종의 국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작성된 국장도감의례, 혼전도감의례, 산릉도감의례 등도 전해진다.

숙종빈전도감의례의 의주와 1방 의례 부분에 빈전에 올린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빈전, 조석곡전, 상식, 삭망전, 재궁결리후 별전 등의 의식에서 올렸던 제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전과 별전, 조석전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차림 내용도 보인다.

【서지】

[肅宗]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259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5.4×26.0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4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6.4×32.5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一品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49)

‘康熙五十九年六月日 江華府上 殯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549)은 강화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39, 파리국립도서관(2603)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불분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는 크게 도설(圖說), 빈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과 빈전1방, 빈전2방, 빈전3방, 빈전별공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卷頭)에는 소선도(素扇圖)·소개도(素蓋圖)·명정정도(銘旌旌圖)·명정정부도(銘旌旌跬圖)·영좌만정골도(靈座滿頂骨圖)·고란평상도(高欄平床圖)·찬궁도(欝宮圖)·영침만정골도(靈寢滿頂骨圖) 등 8종의 기물에 대한 채색(彩色) 도식(圖式)과 규격 해설이 실려 있고, 이어서 장례일정과 시보식(諡寶式), 개명정식(改名旌式), 우주식(虞主式)이 있다.

빈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은 이조달하단자(吏曹達下單子)와 사목(事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조달하단자에는 총호사(摠護使) 의정부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을 비롯하여 제조(提調) 3명과 도청(都廳) 2명, 낭청(郎廳) 6명 등의 명단, 빈전초상시낭청분장(殯殿初喪時郎廳分掌),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과 찬궁별공작(欝宮別工作)의 각종 직임 등이 나열되어 있으며, 사목

은 의주(儀注), 계사질(啓辭秩),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로 구성되어 있다. 의주에는 장례의 제반 절차들이 기록되어 있고, 계사질, 품목질, 감결질에는 관련 공문들이 날짜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빈전1방(殯殿一房)은 제전제사(祭奠諸事) 성복후빈전제사(成服後殯殿諸事) 개명정등사(改銘旌等事)를 담당하였다. 의례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품목질(稟目秩), 삼사수본질(三寺手本秩), 빈전설리내관수본질(殯殿薛里內官手本秩), 빈전사약수본질(殯殿司鑰手本秩), 빈전차지별감수본질(殯殿次知別監手本秩), 사지수복수본질(事知守僕手本秩), 전례수본질(奠禮手本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감결질(甘結秩), 예관질(禮關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2방(殯殿二房)은 성복제사(成服諸事)를 담당하였으며, 의례는 성복제구(成服諸具)와 품목질(稟目秩), 경자유월십일일감결질(庚子六月十一日甘結秩), 용하질(用下秩), 장인질(匠人秩)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3방(殯殿三房)은 습렴제사(襲斂諸事)·찬궁배설(欝宮排設)·명정선등사(銘旌旋等事)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어서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은 그 밖에 필요한 비품들을 조달하고 제작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들의 기록으로, 조각질(造作秩), 공장질(工匠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숙종은 1720년 6월 8일 승하하였는데, 같은 날 목욕과 습, 9일에 소렴, 12일에 대렴하고 성빈하였으며, 13일에 성복(成服)하였다. 10월 20일 발인하여 21일에 산릉에 도착하여 하관하였으며, 우주를 모시고 숙종의 혼전인 효령전에서 초우제를 지냈다. 이와 같은 의식이 이루어질 때 습(襲)·소렴(小斂)·대렴(大斂)·성빈(成殯)·성복(成服)·삭망 및 조석 등에 각각 전(奠)을 드렸다.

음식관련 내용은 주로 총설부분과 빈전1방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음식의 준비는 빈전수라간(殯殿水刺間)과 능소수라간(陵所水刺間) 등에서 하였다. 전상(奠床)의 간품(看品)은 조석전상(朝夕奠床)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낭청(堂上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함께 진참하고(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낭청(都監堂上郎廳)과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사제조(該司提調)가 함께 모두 진참하였다. 또한 조석전 삭망전 별전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서관원(該司官員)이 숙수(熟手)를 영솔(領率)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의주(儀注)에는 전을 올리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주는 국조오례의 의주를 바탕으로 하되, 숙종빈전도감의 성격에 맞도록 취사선택하고 일부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국조오례의와 대동소이하다.

제전(祭奠)의 종류에는 대제(大祭)인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천전(遷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 입주전(立主奠)과 노제(路祭) 안릉전(安陵奠) 해사제(解謝祭) 우제(虞祭)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등이 있었다.

제전의 감선(監膳)은 대제(大祭)인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천전(遷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 입주전(立主奠) 등은 도감제조낭청(都監提調郎廳) 예조당상(禮曹堂上) 본시제조(本寺提調) 각 1원(員)이 안동감선(眼同監膳)하고 노제(路祭)는 의정부(議政府) 충훈부(忠勳府) 차지(次知)가 감선하고, 안릉전(安陵奠)은 산릉도감(山陵都監) 차지

가 감선하고 해사제(解謝祭)는 관상감(觀象監) 차지 감선, 우제(虞祭) 이후는 혼전(魂殿) 당상낭청(堂上郎廳) 차지가 감선하였다. 또한 조석전(朝夕奠)을 대제와 겸행(兼行)할 때의 감선은 대제와 같았다. 주다례(晝茶禮)와 조석(朝夕)의 상식(上食)은 사옹원(司饗院) 차지가 감선하였다.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전의 종류	상차림
대제(大祭)	中朴桂(4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5器)·實柏子(1器)·實榛子(1器)·實糊桃(1器)·大棗(1器)·實生栗(1器)·生梨(1器)·自朴餅(1器)·山蔘餅(1器)·油餅(1器)·松古餅(1器)·敬丹餅(1器)·甫是餅(1器)·豆丹子餅(1器)·牀花餅(1器)·切餅(1器)·油沙餅(1器) 挾卓 : 藥果(1器)·實生栗(1器)·饜麪(1器)·饜蒸(1器)·菓古看藍(1器)·竹荀看藍(1器)·多士麻看藍(1器)·追淸(1器)·水正果(1器)·細麪(1器)·菜(1器)·煎蒸(1器)·雜湯(1器), 四燭(2丁)·五燭(1丁)[以上燭奉常寺本寺備進內贍內資義盈庫進排]
별전(別奠)	대제와 동일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山蔘餅(1器)·豆丹子餅(1器)·切餅(1器)[以上三器以十色餅中輪回備進] 生梨(1器)·實柏子(1器)·實生栗(1器)·實糊桃(1器)[以上四器以六色實果中輪回備進] 追淸(1器)·水正果(1器)·細麪(1器)[後以茶麪代入] 菜(1器)·煎蒸(1器)·雜湯(1器)·小蜜燭(2丁)[奉常寺則本寺自備內贍內資則義盈庫進排]
출전 : 『[肅宗]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監膳式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경종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2 [景宗]殯殿都監儀軌

【정의】

1724년(경종 4) 8월에 승하한 경종(景宗, 1720~1724)의 시신을 모신 빈전(殯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례이다. 경종이 1724년 8월 25일에 창경궁(昌慶宮) 환취정(環翠亭)에서 승하함에 따라, 29일 창덕궁(昌德宮) 선정전(宣政殿)에 빈전을 설치하고 시신을 모셨으며, 12월 16일 발인(發靚)하여 재궁(梓宮)을 산릉의 현궁(玄宮)에 안치하고 17일에 우주(虞主)를 창경궁 문정전(文政殿)에 마련된 혼전에 봉안하기까지의 기록이다. 표제 및 내제는 모두 ‘殯殿都監儀軌’이다.

조선시대에 국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의례가 만들어졌다. 경종의 국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작성된 『경종국장도감의례(景宗國葬都監儀軌)』, 『경종혼전도감의례(景宗魂殿都監儀軌)』 등도 전해진다.

빈전도감의례의 총설과 빈궁일방(殯殿一房) 부분에 빈궁(殯殿)에 올린 여러 전(奠)의 의식과 감膳(監膳), 음식의 그릇 수 등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서지】

[景宗]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237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5.7×26.6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2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5.9×33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67)

‘雍正二年甲辰八月日 江華府上 殯殿都監儀軌’라는 표지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567)은 강화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殯殿都監儀軌’이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54)에 한 질 더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빈전도감(殯殿都監)에서 편찬하였으며,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는 크게 도설(圖說), 빈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과 빈전1방, 빈전2방, 빈전3방, 빈전별공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卷頭)에는 소선도(素扇圖)·소개도(素蓋圖)·명정정도(銘旌旌圖)·명정정부도(銘旌旌跋圖)·영좌만정골도(靈座滿頂骨圖)·고란평상도(高欄平床圖)·빈궁도(殯宮圖)·영침만정골도(靈寢滿頂骨圖) 등의 채색도(彩色圖)가 설명 없이 그려져 있다. 다음으로 장례 과정에 대한 간략한 일지가 적혀 있으며, 이어 왕의 묘호와 능호, 시보식(諡寶式), 우주식(虞主式)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어 빈전도감의 일을 관장하는 총호사, 제조, 도청, 낭청 등을 비롯하여 도감 내 각

방과 각 소의 일을 주관하는 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이조달하단자(吏曹達下單子), 도감의 운영 규칙을 적은 빈전도감사목(殯殿都監事目), 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계사(啓辭)가 날짜순으로 수록된 계사질(啓辭秩)이 있고, 복(復), 목욕(沐浴), 습(襲), 반함(飯含), 거림의(舉臨儀),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빈(成殯), 성복(成服), 조석곡전급상식의(朝夕哭奠及上食儀), 삭망전의(朔望奠儀), 재궁결과후별전의(梓宮結裹後別奠儀) 등 장례 의식의 제반 절차들이 자세히 기록한 의주(儀註), 빈전도감과 관련 관서들 간 업무 협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소요 물품들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문서가 수록된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내관질(來關秩) 등이 있다.

제전(祭奠)과 관련된 제반 일들과 성복(成服) 후 빈전의 여러 일, 개명정(改銘旌) 등의 일들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빈전일방(殯殿一房) 의례 부분에는 서두에 이 일들을 주관한 자들의 명단과 담당 업무가 나오고[座目, 所掌], 각종 제식에 필요한 기물들의 목록과 소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그리고 업무 분담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품목질(稟目秩)과 3시(三寺)·3사도수(三司都手)·빈전설리내관(殯殿薛里內官)·빈전사약(殯殿司鑰)·사지수복(事知守僕) 등의 수본질(手本秩),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문서들과 각종 제식에 쓰인 축문을 비롯하여, 의정부, 종친부, 돈녕부 등과 개성부, 경기도 등 각 지역의 진향제문(進香祭文) 수 편이 실려 있는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감결질(甘結秩), 예관질(禮關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 등이 있다.

성복(成服)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빈전이방(殯殿二房) 의례에는 [좌목(座目)], [소장(所掌)],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 내관질(來關秩), 용하실입(用下實入), 장인질(匠人秩)이, 습렴(襲斂) 및 찬궁(欝宮)의 배설 등의 일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빈전삼방(殯殿三房)의례는 [좌목(座目)], [소장(所掌)]이 그 밖에 빈전도감에서 필요한 기물들을 조달하고 제작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은 [좌목(座目)], 수목질(手木秩), 조각질(造作秩), 공장질(工匠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음식관련내용】

경종은 1724년 8월 25일 축시에 승하하였는데, 같은 날 사시에 목욕(沐浴), 미시에 습(襲), 26일 미시에 소렴, 29일 오시에 영상(靈牀)을 창경궁 환취정으로부터 창덕궁 선정전에서 받들어 옮겨 성빈(成殯)하고 대렴(大斂)을 하고, 30일 묘시에 성복(成服)하였으며, 12월 16일 자시에 발인(發靱)하여, 오시에 산릉 정자각(山陵丁字閣)에 봉안하고, 신시에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으로 내리고, 유시에 우주를 정자각 배위청(丁字閣拜位廳)에 제(題)하였으며, 17일 진시에 우주를 창경궁 문정전에 봉안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이 이루어질 때, 습(襲)·소렴(小斂)·대렴(大斂)·성빈(成殯)·성복(成服)·삭망 및 조석 등에 각각 전(奠)을 드렸다.

음식관련 내용은 주로 빈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과 빈전일방의례에 산견되어 있다. 이를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상의 간품

총설의 사목 중에 수록되어 있는 바, 조석전상(朝夕奠牀)의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아울러 진참(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사제조(該司提調)가 아울러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조과시

(造果時)에는 해사관원(該司官員)이 영솔숙수(領率熟手)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2. 전을 올리는 의식의 주관

2월 8일 예조에 달하한 의주 안에는 전을 올리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3. 제전의 감선(監膳)

제전의 제상(祭牀)과 중배설상(中排設牀)은 상의원(尙衣院)이 외진설상(外陳設牀)은 별공작(別工作)이 진배하였다.

감선은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은 모두 대제(大祭)이기 때문에 도감제조(都監提調) 낭청(郎廳) 예조당상(禮曹堂上) 본시제조(本寺提調)가 각각 1원씩 함께 입회하여(眼同) 감선(監膳)하였다. 단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은 능소(陵所)가 편근(便近)하여 설치하지 않았다.

노제(路祭)는 의정부·충훈부가 해사제(解謝祭)는 관상감이 안능전(安陵奠)은 산릉도감이 차지감선(次知監膳)하였으며, 우제(虞祭) 이후는 혼전(魂殿)의 당상(堂上) 낭청(郎廳)이 차지감선하였다. 초우제(初虞祭)는 산릉에서 설행하므로 도감(都監)에서 감선하였다. 조석전(朝夕奠)은 도감의 당상과 낭청이 각 1원씩 차지감선하되, 대제를 지낼 때의 감선은 대제와 같았다. 주다례(晝茶禮)와 조석(朝夕)의 상식(上食)은 사옹원(司饗院)에서 차지감선하였다. 이상의 제적시각(祭奠時刻)은 금누(禁漏)가 차지거행(次知舉行)하였다.

4. 제전 기수식(祭奠器數式)

제전(祭奠)의 그릇 수는 대제와 별전은 같고, 조석전의 기수(器數)는 다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그릇 수
大祭 別奠	中朴桂(4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5器)·實柏子(1器)·實胡桃(1器)·生梨(1器)·實銀杏(1器)·紅柿子(1器)·實榛子(1器)·油餅(1器)·自朴餅(1器)·豆丹子餅(1器)·敬丹餅(1器)·油沙餅(1器)·甫是餅(1器)·山蔘餅(1器)·松古餅(1器)·牀花餅(1器)·鬻麪(1器)·鬻蒸(1器)
	俠卓 藥果(1器)·實生栗(1器)·菓古看藍(1器)·竹筍看藍(1器)·多士麻看藍(1器)·水正果(1器)·迫淸(1器)·細麪(1器)·煎蒸(1器)·雜湯(1器)·菜(1器)·四燭(2丁)·五燭壹丁以上燭奉常寺進排內贍內資寺義盈庫進排
朝夕奠	藥果(3器)·山蔘餅(1器)·松古餅(1器)·敬丹餅(1器)·實榧子(1器)·實胡桃(1器)·實生栗(1器)·生梨(1器)·細麪(1器)·水正果(1器)·迫淸(1器)·煎蒸(1器)·雜湯(1器)·菜(1器)·小蜜燭(2丁)奉常寺則本寺進排內贍寺內資寺則義盈庫進排
출전 : 『[景宗]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法制處,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3 [孝章世子]殯宮都監儀軌

【정의】

1728년(영조 4)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928)가 홍서(薨逝)함에 따라 시신을 모시는 빈궁(殯宮)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궤이다. 1729년(영조 5) 빈궁도감(殯宮都監)에서 편찬하였다.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효장세자빈궁도감의궤(孝章世子殯宮都監儀軌)로 되어 있으며, 내제는 빈궁도감의궤(殯宮都監儀軌)로 되어 있다.

의궤의 총설 부분과 빈궁일방 의궤 부분에 전상의 간품(看品), 감선(監膳), 상차림 등의 음식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서지】

[孝章世子]殯宮都監儀軌  
線裝. 1冊(206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5.5×26.1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2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5.8×32.6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57)

‘雍正六年戊申十一月日 孝章世子 議政府上 殯宮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4857)은 의정부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2951)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 소장본의 표지서명은 ‘殯宮都監儀軌’이다. 1冊(198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본과 달리 주사란(朱絲欄)의 공책지(空冊紙)에 정성껏 필사한 것으로 보아 어람용(御覽用)으로 추정된다.

【목차와 구성】

본 의궤는 빈전도감(殯殿都監)에서 편찬하였으며,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는 크게 빈전도감의궤의 총설 부분과 빈궁일방, 빈궁이방, 빈궁삼방, 빈궁별공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설 부분은 권두의 도설은 없이(규장각본에는 도설 있음) 장례 과정에 대한 간략한 일지가 적혀 있고, 이어 이조단자(吏曹單子), 빈궁도감사목(殯宮都監事目), 의주(儀註), 승전질(承傳秩), 계사질(啓辭秩),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내관질(來關秩)이 실려 있다. 각종 제전(祭奠)을 준비하는 일을 비롯하여 개명정(改銘旌)과 관련된 사항, 성복(成服) 후 빈궁(殯宮)의 제반 일들과 관련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는 빈궁일방(殯宮一房)은 [좌목(座目)],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품목질(稟目秩), 사약(司鑰)·사지수복(事知守僕)·설리내관(薛里內官)·전례(奠禮)·봉장시(奉掌寺)·내섬시(內贍寺)·내자시(內資寺)·사복시(司藥寺) 등의 수본질(手本秩), 내관질(來關秩), 이문질(移文秩), 예관질(禮關秩), 의주질(儀註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로 구성되어 있다. 성복(成服)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빈궁이방(殯宮二房)은 [좌목(座目)], [소장(所掌)],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

(甘結秩), 실입질(實入秩), 공장질(工匠秩)로, 습렴(襲斂) 및 찬실(攢室) 배설(排設)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빈궁삼방(殯宮三房)은 [좌목(座目)], [소장(所掌)], 품목질(稟目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궁별공작(殯宮別工作)은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정당배설급내입잡물조작질(正堂排設及內入雜物造作秩), 잡물실입질(雜物實入秩), 용환질(用還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로 1724년(영조 즉위) 경의군(敬義君)에 봉해졌으며, 이듬해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후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아들 정조가 그의 양자(養子)가 되어 왕위에 오름에 따라 진종(眞宗)으로 추존되었다. 1728년(영조 4) 11월 16일 해시에 왕세자로 창경궁(昌慶宮) 진수당(進修堂)에서 홍서(薨逝)함에 따라, 18일 창경궁 시민당(時敏堂)에 빈궁(殯宮)을 마련하고 시신을 옮겼다. 이듬해 1월 24일 축시에 발인하여 26일 오시에 하현궁(下玄宮)하고, 27일 묘시에 반우(返虞)하여 창경궁 영휘전(永徽殿)에 마련된 혼궁(魂宮)에 우주(虞主)를 봉안하였다. 이와 같은 장례 절차에서 올린 여러 차례의 제전내용이 총설과 빈궁일방에 수록되어 있다.

진상(奠床)의 간품은 총설의 빈궁도감사목 중에 수록되어 있는 바, 조석진상(朝夕奠床)의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아울러 진참(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낭청(禮曹郎廳) 해사낭청(該司郎廳)이 아울러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진(朝夕奠)과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서관원(該司官員)이 영솔숙수(領率熟手)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빈궁일방의 감선식에 의하면, 제상(祭床)과 중배설상(中排設床)은 상의원(尙衣院)이 내입하고, 외진설상(外陳設床)은 별공작(別工作)이 진배하였다. 감선(監膳)은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 영악궁성빈전(靈幄宮成殯奠),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은 모두 대제(大祭)이기 때문에 도감제조(都監提調) 낭청(郎廳) 예조당상(禮曹堂上) 본시제조(本寺提調)가 각각 1원씩 함께 입회하여(眼同) 감선(監膳)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효장세자의 장례에서는 예조의 계사로 도감당상 낭청과 예조낭청이 안동 감선하였다.

노제(路祭)는 의정부·충훈부 차지가 해사제(解謝祭)는 관상감 차지가 안묘제(安墓祭)는 묘소도감 차지가 감선(監膳)하였으며, 우제(虞祭)는 혼궁(魂宮) 차지가 거행하였다. 조석진(朝夕奠)이 대제를 겸행할 때의 감선은 대제와 같으며, 주다례(晝茶禮)와 조석(朝夕) 상식(上食)은 사옹원 차지가 감선하였다. 이상의 제전시각(祭奠時刻)은 금누(禁漏) 차지(次知)가 맡았다.

제전 기수식(祭奠器數式)에 의하면, 제전(祭奠)의 그릇 수는 대제와 별전은 같고, 조석전의 기수(器數)는 다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그릇 수
大祭 別奠	中朴桂(2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2器)·細實果(5器), 原六器中輪回用之)·各色餅(7器, 原十器中輪回用之)·饜麵(1器)·饜蒸(1器) 俠卓 : 藥果(1器)·看藍(2器)·水正果(1器)·追淸(1器)·雜湯(1器, 輪回用之)·煎蒸(1器, 輪回用之), 菜(1器)·四燭(2丁)·五燭(1丁)
朝夕奠	藥果(1器)·餅(2器)·實果(3器)·水正果(1器)·細麵(1器)·追淸(1器)·煎蒸(1器)·雜湯(1器)·菜(1器)·小蜜燭(2丁)
출전 : 『[孝章世子]殯宮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영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장서각소장의례해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4 [宣懿王后]殯殿都監儀軌

【정의】

1730년(영조 6) 6월부터 10월까지 경종의 계비(繼妃)인 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魚氏, 1705~1730)의 국장(國葬) 때 빈전(殯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궤이다. 빈전도감에서 편찬하였다. 빈전도감(殯殿都監)에서 편찬하였으며,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와 내제 모두 ‘殯殿都監儀軌’이다.

의궤의 총설 부분과 빈전일방 의궤 부분에 전상의 간품(看品), 감膳(監膳), 상차림 등의 음식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서지】

[宣懿王后]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194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5.4×26.1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4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6.5×32.8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77)

‘雍正八年庚戌六月日 宣懿王后 江華府上 殯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577)은 강화부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五瓣)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53), 파리국립도서관(2604)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목차는 크게 빈전도감의궤의 총설부분과 빈전일방(殯殿一房) 빈전이방(殯殿二房) 빈전삼방(殯殿三房) 빈전도감별공작(殯殿都監別工作)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卷頭)에 소선(素扇), 소개(素蓋), 명정(銘旌), 명정부(銘旌趺), 영좌만정골(靈座滿頂骨), 고란평상(高欄平床), 찬궁(欝宮), 영침만정골(靈寢滿頂骨) 등 빈전에 사용된 8종의 기물에 대한 채색도와 설명이 수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장례 과정에 대한 간략한 일지와 이조계 하단자(吏曹啓下單子), 빈전도감사목(殯殿都監事目), 의주(儀註), 계사질(啓辭秩), 승전질(承傳秩),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내관질(來關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전(祭奠)과 관련된 제반 일들과 개명정(改銘旌) 등의 일, 성복(成服) 후 빈전의 여러 일과 관련된 사항들을 기록한 빈전일방은 [좌목(座目)], [소장(所掌)], 품목질(稟目秩), 승전질(承傳秩), 전례(奠禮)·빈전설리내관(殯殿薛里內官)·빈전사약(殯殿司鑰)·빈전사지수복(殯殿事知守僕)·사복시(司槩寺)·봉상시(奉常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 등의 수본질(手本秩), 예관질(禮關秩), 의주질(儀註秩), 제문질(祭文秩), 축문질(祝文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복(成服)과 관련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는 빈전이방은 [좌목], [소장(所掌)],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용하실입(用下實入), 공장질(工匠秩)로, 습렴(襲斂) 및 찬궁(欝宮) 배설 등의 일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빈전삼방은 [좌목], [소장(所掌)], 품목질

(稟目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기물들을 조달하고 제작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별공작(別工作)은 [좌목], [품목질], 조작질(造作秩), 실입질(實入秩), 환하질(還下秩), 용후환하질(用後還下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관련내용】

선의왕후(宣懿王后)는 어유구의 딸로 1718년(숙종 44)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며, 1920년 경종(景宗)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다. 1730년(영조 6) 6월 29일 인시에 경덕궁(慶德宮) 어조당(魚藻堂)에서 승하함에 따라 미시에 염습을 하고 하루 앞당긴 30일에 소렴을 하고, 7월 3일 을시(묘시와 진시 사이)에 경덕궁 광명전(光明殿)에 빈전을 설치하여 시신을 모셨다. 10월 19일 자시에 발인(發靚)하여 진시에 산릉 가정자각에 봉안하고 오시에 하현궁하였으며, 20일 사시에 신주를 창경궁(昌慶宮) 문정전(文政殿)에 마련된 혼전에 봉안하였다(返虞). 이와 같은 국장 절차에서 올린 여러 차례의 제전 내용이 총설과 빈전일방에 수록되어 있다.

전상(奠床)의 간품(看品)은 총설의 빈전도감사목 중에 수록되어 있는바, 조석전상(朝夕奠床)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함께 진참하고(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사제조(該司提調)가 함께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전 삭망전 별전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사관원(該司官員)이 숙수(熟手)를 영솔(領率)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빈전일방의 감선식에 의하면, 제전의 상차림에 대한 감선은 습전 소렴전 대렴전 성빈전 성복전 속절 삭망전 계빈전 조건 천전 견전 주정전 입주전 모두 대제, 도감제조 및 예조당상 해사제조 각 1원이 안동감선하고, 노제는 의정부 충훈부 자지가, 안릉전은 산릉도감 차지가, 해사제는 관상감 차지가 감선하였으며, 고유전 별전은 도감제조 낭청 및 해사제조 각 1원이 안동감선하고, 조석전이 대제를 겸행할 때가 아니면 도감제조 낭청 각 1원이 감선하고, 주다례와 조석상식은 사옹원에서 감선을 스스로 거행하였다. 각 제전의 감선시 준비시각은 금루 등에 준해서 행하였다.

제전 기수식(祭奠器數式)에 의하면, 제전(祭奠)의 그릇 수는 대제와 별전은 같고, 조석전의 기수(器數)는 다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그릇 수
大祭 別奠	中朴桂(4器)·紅散子(2器)·白散子(3器)·藥果(5器)·實栢子(1器)·實胡桃(1器)·生梨(1器)·實銀杏(1器)·紅柀子(1器)·實榛子(1器)·油餅(1器)·自朴餅(1器)·豆丹子餅(1器)·敬丹餅(1器)·油沙餅(1器)·甫是餅(1器)·山蔘餅(1器)·松古餅(1器)·床花餅(1器)·饜麪(1器)·饜蒸(1器)
	俠卓 藥果(1器)·實生栗(1器)·禁古看藍(1器)·竹筍看藍(1器)·多士麻看藍(1器)·水正果(1器)·追淸(1器)·細糲(1器)·煎蒸(1器)·雜湯(1器)·菜(1器)·四燭(2丁)·五燭(1丁) 以上燭 奉常寺則本寺備進 內贍內資寺義盈庫進排
朝夕奠	藥果(3器)·山蔘餅(1器)·松古餅(1器)·敬丹餅(1器)·實榧子(1器)·實胡桃(1器)·實生栗(1器)·生梨(1器)·細糲(1器)·水正果(1器)·追淸(1器)·煎蒸(1器)·雜湯(1器)·菜(1器)·小蜜燭(2丁) 奉常寺則本寺備進 內贍內資寺則義盈庫進排
출전 : 『宣懿王后』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영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5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

【정의】

1751년(영조 27) 11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영조의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追尊 眞宗)의 빈(嬪)인 효순현빈(孝純賢嬪, 1715~1751, 孝純王后)의 장례 때 마련된 빈궁도감(殯宮都監)과 혼궁도감(魂宮都監)의 기록으로 빈궁혼궁도감(殯宮魂宮都監)에서 편찬하였다. 표제와 내제 모두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이다.

의례의 총설 부분과 빈궁일방 의례 부분에 전상의 간품(看品), 감선(監膳), 상차림 등의 음식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서지】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  
線裝. 2冊: 圖, 四周單邊, 半郭 34.6×26.0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2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5.2×33.7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48)

‘乾隆十六年辛未十一月日 孝純賢嬪 議政府上 殯宮魂宮兩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4848)은 의정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 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五瓣)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599), 파리국립도서관 (2462·2460)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도감의례는 동일한 내용의 [奎14848]본(本)은 상책(上冊)만이 현존하고, [奎14599]본은 하책(下冊)만이 현존하고 있어서 두 본을 합치면 완본(完本)이 된다. 상책은 총설과 빈궁도감일방의례로 구성되어 있고, 하책에는 이방의례(二房儀軌)와 삼방의례(三房儀軌) 및 별공작의례(別工作儀軌)가 실려 있다.

상책의 경우, 빈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은 [도설(圖說)], 각종 [식(式)], 리조계하단자(吏曹啓下單子), 빈궁도감(殯宮都監)의 사목(事目), 예조의주질(禮曹儀註秩), 승전질(承傳秩), 계사질(啓辭秩), 예조계하관질(禮曹啓下關秩), 감결질(甘結秩), 내관질(來關秩), 혼궁도감(魂宮都監)의 사목(事目), 의주질(儀註秩), 승전질(承傳秩), 계사질(啓辭秩), 장계식(狀啓式), 예조계하관질(禮曹啓下關秩), 감결질(甘結秩),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로 구성되어 있고, 빈전도감 일방의례는 간단한 일지와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품목질(稟目秩), 설리(薛里)·전례(奠禮)·사지수복(事知守僕)·봉상시(奉常寺)·내섬시(內贍寺)·내자시(內資寺)·자문감(紫門監) 등의 수본질(手本秩), 내관질(來關秩), 이관질(移關秩), 감결질(甘結秩), 예관질(禮關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로 구성되어 있다.

하책은 빈궁혼궁양도감이방의례(殯宮魂宮兩都監二房儀軌)의 [좌목(座目)], 복제(服制),

품목질(稟目秩), 실입질(實入秩)에 이어, 혼궁도감이방의궤(魂宮都監二房儀軌)의 [본방소장(本房所掌)],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 각색실입질(各色實入秩), 혼궁도감조성소이방(魂宮都監造成所二房)의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감결질(甘結秩), 이상실입질(以上實入秩), 용후환하질(用後還下秩), 공장질(工匠秩), 혼궁도감수리소이방(魂宮都監修理所二房)의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감결질(甘結秩), 실입질(實入秩), 도이상실입질(都以上實入秩), 용환질(用還秩), 공장질(工匠秩), 빈궁혼궁양도감삼방의궤(殯宮魂宮兩都監三房儀軌)의 [좌목(座目)], 목욕제구(沐浴諸具), 습제구(襲諸具), 반함제구(飯含諸具), 소렴제구(小斂諸具), 재실제구(梓室諸具), 출회제구(糝灰諸具), 대렴제구(大斂諸具), 영좌제구(靈座諸具), 영침제구(靈寢諸具), 빈궁금화제구(殯宮禁火諸具), 재궁서상자제구(梓宮書上字諸具), 혼궁도감삼방주성소의궤(魂宮都監三房鑄成所儀軌)의 이문질(移文秩), 품목질(稟目秩), 실입질(實入秩), 제색공장질(諸色工匠秩), 혼궁각소장기명령각해사진배(魂宮各所掌器皿令各該司進排), 빈궁혼궁양도감별공작의궤(殯宮魂宮兩都監別工作儀軌)의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조각질(造作秩), 잡물실입질(雜物實入秩), 초분봉질(初分捧秩), 공장질(工匠秩), 혼궁도감별공작의궤(魂宮都監別工作儀軌)의 수본질(手本秩), 잡물실입질(雜物實入秩), 목물수보소입질(木物修補所入秩), 용환질(用還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현빈 조씨의 본관은 풍양(豐壤)으로, 풍릉부원군(豐陵府院君) 조문명(趙文命)의 딸이다. 1727년(영조 3) 세자빈에 간택되어 1735년 현빈에 봉해졌고, 1752년 효순(孝純)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1776년(영조 52) 정조(正祖)가 효장세자를 계승하면서 승통세자빈(承統世子嬪)의 명호를 받았고, 정조의 즉위 이후 효순왕후(孝純王后)로 추존되었다. 효순현빈은 1751년 11월 14일 해시(亥時)에 창경궁(昌慶宮) 건극당(建極堂) 의춘헌(宜春軒)에서 홍서(薨逝)한 후, 당일 사시에 습(襲), 미시에 소렴(小斂)이 이루어지고, 16일 오시에 대렴이 이루어지면서, 건극당에 성빈되고, 17일 사시에 성복하였다. 이듬해인 1752년 정월 21일 축시에 발인하여 신시에 묘소에 도착하여 정자각에 봉안되고, 22일 사시에 하헌궁하였으며, 23일 묘시에 반우되어 미시에 신주가 창경궁 영회전에 봉안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시로 전을 드렸으며, 그 과정과 음식관련 내용이 주로 총설과 빈궁일방의궤에 수록되어 있다.

전상(奠床)의 간품은 총설의 빈궁도감사목 중에 수록되어 있는 바, 조석전상(朝夕奠床)의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아울러 진참(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낭청(禮曹郎廳) 해사낭청(該司郎廳)이 아울러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서관원(該司官員)이 영솔숙수(領率熟手)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빈궁도감일방의궤의 감선식에는 습전 등 14종의 대체와 노제, 우제, 조석상식 등 다양한 제전의 감선 담당자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제상(祭床)과 중배설상(中排設床)은 상방(尙方)이 내입(內入)하고, 외진설상(外陳設床)은 별공작(別工作)이 진배하였다. 감선(監膳)은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 영악궁성빈전(靈幄宮成殯奠)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 등 14종의 대체(大祭)는 도감당상, 낭청(郎廳) 각 1원과, 예조낭

청 1원이 함께 입회하여(眼同) 감선(監膳)하고, 노제(路祭)는 의정부·충훈부 차지가, 해사제(解謝祭)는 관상감 차지가, 안묘제(安墓祭)는 묘소도감 차지가 감선(監膳)하였으며, 고유제별전(告由祭別奠)은 대제와 감선이 같고, 우제(虞祭)는 혼궁(魂宮) 차지가 거행하였다. 조석전(朝夕奠)이 대제를 겸행할 때의 감선은 대제와 같으며, 조석(朝夕) 상식(上食)과 주다례(晝茶禮)는 사용원 차지가 감선하였다. 이상의 제전시각(祭奠時刻)은 금루(禁漏)에서 거행하였다.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대제, 별전, 조석전에 올리는 제물의 목록을 기록하였다. 이에 의하면, 무술등록에 의하여 삼시로부터 비진하고, 추가로 전교로 인하여 걸증과 걸면은 제감하였다. 제전(祭奠)의 그릇 수는 대제와 별전은 같고, 조석전의 기수(器數)는 다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그릇 수
大祭別奠	中朴桂(2器)·紅散子(1器)·白散子(1器)·藥果(1器) 實栢子(1器)·實胡桃(1器)·實生栗(1器)·乾柿(1器)·生梨(1器)·大棗(1器) * 이상 實果 6器 내에서 2器는 감하여 각색을 輪回備進한다. 油餅(1器)·自朴餅(1器)·敬丹餅(1器)·油沙餅(1器)·切餅(1器)·甫是餅(1器)·山蔘餅(1器)·松古餅(1器)·床花餅(1器) * 이상 10器 내에서 5器는 감하고 10색명을 輪回備進한다. 饜麪(1器)·饜蒸(1器) * 이상은 감한다.
	俠卓 : 藁古看藍(1器)·竹筍看藍(1器)·多士麻看藍(1器)·水正果(1器)·追淸(1器)·細麵(1器)·煎蒸(1器)·雜湯(1器)·菜(1器)·三兩燭(3丁)
朝夕奠	藥果(2器)·實果(2器, 各色輪回備進)·水正果(1器)·追淸(1器)·細麵(1器)·煎蒸(1器)·雜湯(1器)·菜(1器)·小蜜燭(2丁)
출전 :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영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6 [懿昭世孫]殯宮魂宮兩都監儀軌

【정의】

1752년(영조 28) 3월부터 5월까지 영조 세손(世孫)인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 思悼世子의 元子 琿)의 장례 때 빈궁(殯宮)과 혼궁(魂宮)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록으로, 빈궁혼궁도감(殯宮魂宮都監)에서 간행하였다. 표제와 내제 모두 ‘懿昭世孫殯宮魂宮兩都監儀軌’라고 되어 있으며, 상하 2책이다.

의례의 총설 부분과 빈궁일방 의례 부분에 전상의 간품(看品), 감膳(監膳), 상차림 등의 음식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서지】

[懿昭世孫]殯宮魂宮兩都監儀軌  
線裝. 2책: 圖, 四周單邊, 半郭 34.6×26.0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5.6×33.5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一品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838)

‘乾隆十七年八月日 懿昭世孫 議政府上 殯宮魂宮兩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은 의정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五瓣)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과리국립도서관 (2515)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상하 2책으로 이루어진 본 의례는 상책에 빈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과 빈궁도감일방의례(殯宮都監一房儀軌), 빈궁도감이방의례(殯宮都監二房儀軌), 혼궁도감이방의례(魂宮都監二房儀軌)가 실려 있고, 하책에는 혼궁도감이방조성소의례(魂宮都監二房造成所儀軌) 혼궁도감이방수리소의례(魂宮都監二房修理所儀軌) 빈궁도감삼방의례(殯宮都監三房儀軌) 혼궁도감삼방주성소의례(魂宮都監三房鑄成所儀軌) 빈궁도감별공작의례(殯宮都監別工作儀軌) 혼궁도감별공작의례(魂宮都監別工作儀軌)가 실려 있다.

상책의 총설은 [도설(圖說)], [시일(時日)], 빈궁예장묘소삼도감사목(殯宮禮葬墓所三都監事目), 감膳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이조계하단자(吏曹啓下單子), 도감사목(都監事目), 예조의주질(禮曹儀註秩), 승전질(承傳秩), 계사질(啓辭秩), 감결질(甘結秩), 내관질(來關秩),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전제구(祭奠諸具), 개명정(改銘旌), 성복(成服) 이후 빈전의 여러 일, 각종 의식의 습의(習儀), 발인하여 묘소에 도착할 때의 일을 담당하는 빈궁도감일방의례(殯宮都監一房儀軌)는 [좌목(座目)], [시일(時日)], [식(式)], 품목질(稟目秩), 사약(司鑰)·사지수복(事知守僕)·설리내관(薛里內官)·전례(典禮)·봉상시(奉常寺)·내자시(內資寺) 등의 수본질, 내관질(來關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복제사(成服諸事)와 성복 후 혼궁(魂宮)의 조성

과 수리에 관한 일을 담당한 빈궁도감이방의궤(殯宮都監二房儀軌)는 [좌목(座目)], [성복제사(成服諸事)], 품목질(稟目秩), 실입질(實入秩)로, 각종 기물(器物)들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일을 담당한 혼궁도감이방의궤(魂宮都監二房儀軌)는 [본방소장(本房所掌)], 품목질9稟目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 각색물종실입(各色物種實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책의 혼궁도감이방조성소의궤(魂宮都監二房造成所儀軌)는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감결질(甘結秩), 용후환하질(用後還下秩), 공장질(工匠秩)로, 혼궁도감이방수리소의궤(魂宮都監二房修理所儀軌)는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도이상실입질(都以上實入秩), 용환질(用還秩), 전배용환질(前排用還秩)로 구성되어 있고, 초상제구(初喪諸具)와 습렴(襲殮)과 관련된 일, 빈궁의 배설(排設), 성복 이후 각종 제기(祭器)의 주성(鑄成) 등을 담당한 빈궁도감삼방의궤(殯宮都監三房儀軌)는 [좌목(座目)], 목욕제구(沐浴諸具), 습제구(襲諸具), 반함제구(飯含諸具), 소렴제구(小斂諸具), 대렴제구(大斂諸具), 재실제구(梓室諸具)로, 기명제작(器皿製作)에 관한 일을 담당한 혼궁도감삼방(魂宮都監三房)의 주성소의궤(鑄成所儀軌)는 [좌목(座目)], 이문질(移文秩), 품목질(稟目秩), 제색장인질(諸色匠人秩), 혼궁각소장기명분수질(魂宮各所掌器皿分授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궁도감별공작의궤(殯宮都監別工作儀軌)는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정당배설급내입잡물조작질(正堂排設及內入雜物造作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 공장질(工匠秩)로, 혼궁도감별공작의궤(魂宮都監別工作儀軌)는 수본질(手本秩), 용환질(用還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의소세손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제1자로 혜경궁 홍씨 소생이다. 1751년(영조 27) 5월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되었으나, 이듬해인 1752년 3월 4일 묘시에 창경궁(昌慶宮) 통명전(通明殿)에서 홍거(薨去)하였다. 당일 오시에 염습, 5일 묘시에 소렴, 6일 오시에 대렴하고 승문당(崇文堂)에 빈궁(殯宮)을 설치하였으며, 7일 사시에 성복하고 5월 11일 해시에 발인(發靱)하였으며, 5월 12일에 하현실(下玄室)하고 신주(神主)를 창경궁 강서원(講書院)으로 반우(返虞)하여 봉안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시로 전을 드렸으며, 그 과정과 음식 관련 내용이 주로 총설과 빈궁일방의궤에 수록되어 있다.

전상(奠床)의 간품은 총설의 빈궁예장묘소삼도감사목 중에 수록되어 있는 바, 조석전상(朝夕奠床)의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아울러 진참(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낭청(禮曹郎廳) 해사낭청(該司郎廳)이 아울러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사관원(該司官員)이 영솔숙수(領率熟手)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빈궁도감일방의궤의 감선식에는 제전(襲奠) 등 14종의 대제(大祭)와 노제(路祭), 우제(虞祭), 조석상식(朝夕上食) 등 다양한 제전(祭奠)의 감선 담당자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제상(祭床)과 중배설상(中排設床)은 상의원(尙衣院)이 내입하고, 외진설상(外陳設床)은 별공작(別工作)이 진배하였다. 감선(監膳)은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 영악궁성빈전(靈幄宮成殯奠)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 등 14종의 대제(大祭)는 도감당상, 낭청(郎廳), 예조낭청이 함께 입회하여(眼同) 감선(監膳)하고, 노제(路祭)는 의정부·충훈부 차지가, 해사제(解謝祭)는 관상감 차지가, 안묘제(安墓祭)는 묘소도감 차지가 감선(監膳)하였으며, 우제(虞祭)는 혼궁(魂宮) 차지가 거행하였다. 조석전(朝夕奠)이 대제를 겸행할

때의 감선은 대제와 같으며, 주다례(晝茶禮)와 조석(朝夕) 상식(上食)은 사용원 차지가 감선하였다. 이상의 제전시각(祭奠時刻)은 금루(禁漏) 차지(次知)가 맡았다.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대제, 별전(別奠), 조석전(朝夕奠)에 올리는 제물(祭物)의 목록을 기록하였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그릇 수
大祭 別奠	藥果(1器)·小桂(2器)·散子(2器) *이상 高八寸 餅(3器)·細糲(1器)·湯(1器)·看藍(2器)·菜(1器)·水正果(1器)·追淸(1器)·實果(3器) ·二兩燭(3丁)
朝夕奠	藥果(1器)·餅(1器)·追淸(1器)·水正果(1器)·細糲(1器)·湯(1器)·實果(2器)·二兩燭(2丁)
출전 : 『[懿昭世孫]殯宮魂宮兩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영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7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정의】

1757년(영조 33) 3월부터 7월까지 숙종의 제2계비(繼妃)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의 국장 때 빈전(殯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례로 빈전도감(殯殿都監)에서 간행하였다.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는 ‘仁元王后 殯殿都監儀軌 上’이며, 내제는 ‘殯殿都監儀軌’이다.

빈전도감의례의 총설과 빈전일방(殯殿一房) 부분에 빈전(殯殿)에 올린 여러 전(奠)의 의식과 감선(監膳), 음식의 그릇 수 등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서지】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174張) : 圖, 四周單邊, 半郭 34.3×26.0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3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5.2×33.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59의1)

‘乾隆二十二年丁丑三月日 仁元王后 五臺山上 殯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파리국립도서관(2605)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표제어는 인원왕후빈전도감의례 상(仁元王后 殯殿都監儀軌 上)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빈전도감의례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혼전도감의례(<奎 13559의2>)의 표제가 ‘仁元王后 魂殿都監儀軌 下’로 되어 있으며 내제가 ‘魂殿都監儀軌’인 점에 비추어 보아, 상하의 구분은 빈전도감의례와 혼전도감의례를 구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빈전도감의례는 크게 총설과 빈전일방(殯殿一房), 빈전이방(殯殿二房), 빈삼전방(殯殿三殿房),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목차를 살펴보면, 빈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은 권두의 [도설(圖說)], 개요(概要)에 해당하는 간략한 일지와 각종 식(式)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 이조계하단자(吏曹啓下單子), 빈전도감사목(殯殿都監事目), 의주(儀註), 승전질(承傳秩), 계사질(啓辭秩), 예관질(禮關秩), 감결질(甘結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전제구(祭奠諸具), 성복(成服) 후 그대로 살필 빈전의 여러 일, 개명정(改銘旌) 등의 일들, 습의(習儀), 발인시 산릉에 도착하는 등의 일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빈전일방(殯殿一房)은 [좌목(座目)], [시일(時日)], [식(式)], 품목질(稟目秩), 능소소화질(陵所燒火秩), 본방소화질(本房燒火秩), 삼시조과청(三寺造果廳)·설리(薛里)·산릉전례(山陵奠禮)·사약(司鑰)·수복(守僕)·차지별감(次知別監)·빈전차지별감(殯殿次知別監) 등의 수본질(手本秩), 각처각

차비여사군탈하질(各處各差備輿士軍頓下秩), 감결질(甘結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예관질(禮關秩),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재궁가칠고유조전겸행의(梓宮加漆告由朝奠兼行儀), 재궁가칠시곡임의(梓宮加漆時哭臨儀), 재궁결과시곡임의(梓宮結裹時哭臨儀), [진향제문(進香祭文)], [고유문(告由文)], [축문(祝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복제사(成服諸事)와 관련된 이방의례는 [좌목(座目)], [성복제구(成服諸具)],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실입질(實入秩), 장인질(匠人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습렴제사(襲斂諸事) 찬궁배설등사(欝宮排設等事) 찬궁자문감(欝宮紫門監) 등과 관련된 삼방의례는 [좌목(座目)],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빈전도감에서 필요한 기물들을 조달하고 제작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은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조각질(造作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 공장질(工匠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인원왕후는 경주(慶州) 김씨로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의 딸이다. 1702년(숙종 28)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소생은 없다. 1757년(영조 33) 3월 26일 사시에 창덕궁(昌德宮) 영모당(永慕堂)에서 승하(昇遐)하자, 술시에 염습을 하고 27일 오시에 소렴을 하고 영상을 경복전으로 옮겼으며, 30일 묘시에 다시 통명전으로 옮겨 손시(진시와 사시의 사이)에 대렴을 하고 성빈하였으며, 4월 1일에 성복하였다. 7월 11일 축시에 발인하여 12일 묘시에 하현궁하고, 우주를 창경궁 문정전에 모셨다.

전상(奠床)의 간품은 총설의 빈전도감사목 중에 수록되어 있는 바, 조석전상(朝夕奠床)의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아울러 진참(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사제조(該司提調)가 아울러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사관원(該司官員)이 영솔숙수(領率熟手)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빈전도감일방의례의 감선식에는 다양한 제전(祭奠)의 감선 담당자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제상(祭牀)과 중배설상(中排設牀)은 상방(尙方)이 내입하고, 외진설상(外陳設牀)은 별공작(別工作)이 진배하였다. 감선은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 산릉성빈전(山陵成殯奠)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 등은 모두 대제(大祭)이기 때문에 도감제조(都監提調) 낭청(郎廳) 예조당상(禮曹堂上) 본시제조(本寺提調)가 각각 1원씩 함께 입회하여(眼同) 감선(監膳)하였다. 노제(路祭)는 의정부·충훈부 차지(次知)가 해사제(解謝祭)는 관상감 차지가 안릉전(安陵奠)은 산릉도감 차지가 감선(監膳)하였으며, 고유제별전(告由祭別奠)은 대제와 감선이 같았다. 우제(虞祭)는 혼전(魂殿) 차지가 거행했으며, 조석전(朝夕奠)은 대제를 겸행할 때에는 대제와 같았으며, 주다례(晝茶禮)는 도감 차지가 감선하고, 조석(朝夕)의 상식(上食)은 사옹원(司饗院) 차지가 감선하였다. 이상의 제전시각(祭奠時刻)은 금누(禁漏)에서 거행(舉行)하였다.

제전(祭奠)의 그릇 수는 대제와 별전은 같고, 조석전과 주다례는 다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하면, 대제의 가지 수가 줄고, 협탁도 없어졌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그릇 수
大祭別奠	中桂果(4器)·紅散子(2器)·白散子(2器)·藥果(5器)·松古餅(1器)·山蔘餅(1器)·白朴餅(1器)·油餅(1器)·切餅(1器)·生梨(1器)·乾柿子(1器)·大棗(1器)·實胡桃(1器)·實栢子(1器)·黃栗(1器)·糲(1器)·煎蒸(1器)·雜湯(1器)·醴酒(1瓶)·三兩燭(3丁)
朝夕奠	藥果(3器)·餅(2器, 各色餅 輪回備進)·水正果(1器)·細糲(1器)·雜湯(1器)·煎蒸(1器)·實果(3器, 六色中 輪回備進)·菜(1器)·醴酒(1瓶)·三兩燭(2丁)
晝茶禮	藥果(1器)·餅(2器)·細糲(1器)·水正果(1器)·實果(2器, 六色中 輪回備進)·菜(1器)·醴酒(1瓶)·三兩燭(2丁)
朔望祭	藥果(3器)·中桂果(4器)·散子(2器)·餅(4器)·糲(1器)·實果(5器)·煎蒸(1器)·雜湯(1器)·醴酒(3瓶)·三兩燭(3丁)
출전 :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器數式	

인원왕후는 흥서하기 전에 유교(遺敎)로 모든 상사(喪事)에서의 진공(進供) 및 진향(進香) 때의 의물(儀物)은 힘써 절약하여 검소하게 해서 줄이는 데 따르도록 하고, 별도로 백금(白金) 1천 5백 냥(兩)과 금단(錦緞)·사초(紗綃) 등의 물품을 저축하여 국휼(國恤) 때의 경비로 쓰게 하였었고, 또 숙종 국휼 때에 사용했던 은기(銀器)를 봉(封)하여 보관하였다가 뒷날 사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었는데, 영조가 유의(遺意)에 따라 이를 해당 관사에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또한 영조는 하교하여,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에는 으레 내외 상식(內外上食)이 있기 때문에 수라(水刺) 두 그릇을 설치하는데, 삽시(插匙)하고 점다(點茶)하는 것은 바로 내수라(內水刺)이고, 외수라(外水刺)의 경우는 단지 진설(陳設)만 해 놓을 따름이니, 일이 형식적인 것에 관계가 되므로 휘령전(徽寧殿)을 위시하여 사도시(司禦寺)의 수라미(水刺米)를 내수라에 넘겨 주고 가봉(加封)한 것은 감(減)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릉(山陵)에는 옛날에 육찬(肉饌)이 없던 것을 1734년(영조 10) 승릉(崇陵)의 국휼(國恤) 때에 추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베풀게 하였는데, 그 뒤에 그대로 하게 되어 갈수록 더욱 지나치게 되었다고, 중관(中官)이 육찬을 배진(陪進)하느라 도로에 서로 잇달게 되므로, 이를 불가하다고 여겨서 홍릉(弘陵)에서부터 시작하여 육찬을 배진하지 말도록 하고, 그대로 정제(定制)로 삼아 『상례보편(喪禮補編)』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례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8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정의】

1757년(영조 33) 2월부터 6월까지 영조비(英祖妃) 정성왕후(貞聖王后, 1692~1757)의 국장(國葬) 때 빈전(殯殿)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록으로 빈전도감(殯殿都監)에서 간행하였다.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는 ‘貞聖王后 殯殿都監儀軌 上’이라고 되어 있으며, 내제는 ‘殯殿都監儀軌’이다.

빈전도감의례의 총설과 빈전일방(殯殿一房) 부분에 빈전(殯殿)에 올린 여러 전(奠)의 의식과 감선(監膳), 음식의 그릇 수 등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서지】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174張) : 圖, 四周單邊, 半郭 34.8×26.0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3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5.4×33.8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90의1)

‘乾隆二十二年丁丑二月日 貞聖王后 五臺山上 殯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파리국립도서관(2606)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표제어는 정성왕후빈전도감의례 상(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上)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빈전도감의례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혼전도감의례(奎 13590의 2)의 표제가 ‘貞聖王后魂殿都監儀軌 下’로 되어 있으며 내제가 ‘魂殿都監儀軌’인 점에 비추어 보아, 상하의 구분은 빈전도감의례와 혼전도감의례를 구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빈전도감의례는 크게 총설과 빈전일방(殯殿一房), 빈전이방(殯殿二房), 빈삼전방(殯三殿房),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목차를 살펴보면, 빈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은 권두의 [도설(圖說)], 개요(概要)에 해당하는 간략한 일지와 각종 식(式)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 이조계하단자(吏曹啓下單子), 빈전도감사목(殯殿都監事目), 의주(儀註), 승전질(承傳秩), 계사질(啓辭秩), 예관질(禮關秩), 감결질(甘結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전제구(祭奠諸具), 성복(成服) 후 그대로 살필 빈전의 여러 일, 개명정(改銘旌) 등의 일들, 습의(習儀), 발인시 산릉에 도착하는 등의 일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빈전일방(殯殿一房)은 [좌목(座目)], [시일(時日)], [식(式)], 품목질(稟目秩), 본방소화질(本房燒火秩), 설리(薛里)·산릉전례(山陵奠禮)·사약(司鑰)·수복(守僕)·차지별감(次知別監)·빈전별감(殯殿別監) 등의 수본질(手本秩), 각처각차비여사군탈하질(各處各差備輿士軍頭下秩), 감결질(甘結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예관질(禮關秩), 의주질(儀註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복제사(成服諸事)와 관련된 이방의례는 [좌목(座目)], [성복제구(成服諸具)],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실입질(實入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습렴제사(襲斂諸事) 찬궁배설등사(欝宮排設等事) 찬궁자문감(欝宮紫門監) 등과 관련된 삼방의례는 [좌목(座目)],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습제구봉감각사진배질(襲諸具捧甘各司進排秩), 반함제구각사진배질(飯含諸具各司進排秩), 명정제구봉감각사진배질(銘旌諸具捧甘各司進排秩), 영좌제구봉감각사진배질(靈座諸具捧甘各司進排秩), 혼백제구각사진배질(魂帛諸具各司進排秩), 소렴행용제구봉감각사진배질(小殮行用諸具捧甘各司進排秩), 대렴행용제구봉감각사진배질(大殮行用諸具捧甘各司進排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빈전도감에서 필요한 기물들을 조달하고 제작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은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조작질(造作秩), 실입질(實入秩), 환하질(還下秩), 공장질(工匠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정성왕후는 달성(達城) 서씨로, 달성부원군(達城府院君) 서종제(徐宗悌)의 딸이다. 1704년(숙종 30) 연잉군과 가례(嘉禮)를 행하고 달성군부인(達成郡夫人)에 봉해졌고,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王妃)로 진봉(進封)되었다. 1757년(영조 33) 2월 15일 유시(酉時)에 창덕궁(昌德宮) 관리각(觀理閣)에서 승하(昇遐)하자, 16일 사시에 습을 하고 미시에 소렴, 19일 진시에 영상(靈床)을 경훈각(景薰閣)으로 옮겨 사시에 대렴을 하고, 빈전(殯殿)을 설치하였으며, 20일 진시에 성복하였다. 6월 3일 축시에 발인(發靱)하여 산릉(山陵) 정자각(丁字閣)에 모신 후 다음날인 4일 진시에 하현궁(下玄宮)하고, 창경궁(昌慶宮) 강서원(講書院)으로 반우(返虞)하였다. 이와 같은 국장절차에서 수시로 제전을 올렸으며, 여기에는 상차림이 이루어졌다. 음식관련 내용은 주로 빈전도감의례의 총설 부분과 빈전일방의례에 산견되어 있다.

전상(奠床)의 간품은 총설의 빈전도감사목 중에 수록되어 있는 바, 조석전상(朝夕奠床)의 간품시(看品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각 1원과 전물감조관(奠物監造官)이 아울러 진참(進參)하고,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간품시에는 도감당상(都監堂上) 낭청(郎廳)과 예조당상(禮曹堂上) 해사제조(該司提調)가 아울러 모두 진참하였다.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전(朔望奠) 별전(別奠) 조과시(造果時)에는 해사관원(該司官員)이 영솔숙수(領率熟手)하고 직숙감조(直宿監造)하였다.

빈전도감일방의례의 감선식에는 다양한 제전(祭奠)의 감선 담당자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제상(祭床)과 중배설상(中排設床)은 상의원(尙衣院)이 외진설상(外陳設床)은 별공작(別工作)이 진배하였다. 감선은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 산릉성빈전(山陵成殯奠)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 등은 모두 대제(大祭)이기 때문에 도감제조(都監提調) 낭청(郎廳) 예조당상(禮曹堂上) 본사제조(本寺提調)가 각각 1원씩 함께 입회하여(眼同) 감선(監膳)하였다. 노제(路祭)는 의정부·충훈부 차지(次知)가 해사제(解謝祭)는 관상감 차지가 안능전(安陵奠)은 산릉도감 차지가 감선(監膳)하였으며, 고유제별전(告由祭別奠)은 대제와 감선이 같았다. 우제(虞祭)는 혼전(魂殿) 차지가 거행했으며, 조석전(朝夕奠)은 대제를 겸행할 때에는 대제와 같았으며, 주다례(晝茶禮)는 도감 차지가 감선하고, 조석(朝夕)의 상식(上食)은 사옹원(司饗院) 차지가 감선하였다. 이상의 제전시각(祭奠時刻)은 금누(禁漏)에서 거행(擧

行)하였다.

제전(祭奠)의 그릇 수는 대제와 별전은 같고, 조석전의 기수(器數)는 다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하면, 대제의 가지 수가 줄고, 협탁도 없어졌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그릇 수
大祭別奠	中桂果(4器)·紅散子(2器)·白散子(2器)·藥果(5器)·松古餅(1器)·山蔘餅(1器)·白朴餅(1器)·油餅(1器)·切餅(1器)·生梨(1器)·乾柿子(1器)·大棗(1器)·實胡桃(1器)·實栢子(1器)·黃栗(1器)·糲(1器)·煎蒸(1器)·雜湯(1器)·醴酒(1瓶)·三兩燭(3丁)
朝夕奠	藥果(3器)·餅(2器)·水正果(1器)·細糲(1器)·雜湯(1器)·煎蒸(1器)·實果(3器, 六色中 輪回備進)·菜(1器)·醴酒(1瓶)·三兩燭(2丁)
晝茶禮	藥果(1器)·餅(2器)·細糲(1器)·水正果(1器)·實果(2器, 六色中 輪回備進)·菜(1器)·醴酒(1瓶)·三兩燭(2丁)
朔望祭	藥果(3器)·中桂果(4器)·散子(2器)·餅(4器)·糲(1器)·實果(5器)·煎蒸(1器)·雜湯(1器)·醴酒(3瓶)·三兩燭(3丁)
출전 : 『[貞聖王后] 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영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19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정의】

1762년(영조 25) 윤5월부터 7월까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빈궁(殯宮)과 혼궁(魂宮)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록으로 빈궁혼궁도감(殯宮魂宮都監)에서 편찬하였다. 본 의례는 上·下 2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제는 ‘思悼世子 殯宮魂宮都監儀軌 上·下’이고 내제는 ‘殯宮魂宮兩都監儀軌’이다.

빈전도감의례의 빈궁일방(殯宮一房) 부분에 감선식(監膳式)과 음식의 그릇 수 등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서지】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線裝. 2冊 : 圖, 四周單邊, 半郭 34.5×26.0cm, 有界, 烏絲欄套式板, 半葉 12行  
24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5.4×33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06)

‘乾隆二十七年壬午十月日 思悼世子 五臺山上 殯宮魂宮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606)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과리국립도서관(2595)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상권은 빈궁혼궁도감의례(殯宮魂宮都監儀軌) 총설에 이어 빈궁도감일방의례(殯宮都監一房儀軌) 빈궁도감이방의례(殯宮都監二房儀軌) 혼궁도감이방의례(魂宮都監二房儀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권은 빈궁도감삼방의례(殯宮都監三房儀軌), 혼궁도감삼방주성소의례(魂宮都監三房鑄成所儀軌), 혼궁도감이방조성소의례(魂宮都監二房造成所儀軌), 혼궁도감이방수리소의례(魂宮都監二房修理所儀軌), 빈궁도감별공작의례(殯宮都監別工作儀軌), 혼궁도감별공작의례(魂宮都監別工作儀軌)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의 경우, 빈궁혼궁도감의례의 총설 부분은 목록(目錄), [도설(圖說)], [시일(時日)], [좌목(座目)]에 이어, 빈궁예장도감사목(殯宮禮葬都監事目), 예조의주질(禮曹儀註秩), 승전질(承傳秩), 계사질(啓辭秩), 예조계하관질(禮曹啓下關秩), 감결질(甘結秩), 내관질(來關秩), 혼궁도감사목(魂宮都監事目), 예조의주질(禮曹儀註秩), 승전질(承傳秩), 계사질(啓辭秩), 예조계하관질(禮曹啓下關秩), 감결질(甘結秩),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서계(書啓), [논상(論賞)], [의례(儀軌)](儀軌事目, 啓辭秩, 甘結秩, 移文秩)로 구성되어 있고, 빈궁도감일방의례는 [좌목(座目)], [시일(時日)], [식(式)], 품목질(稟目秩), 사약(司鑰)·설리내관(薛里內官)·전례(奠禮)·내섬시(內瞻寺)·내자시(內資寺) 등의 수본질(手本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감결질(甘結秩), 제문축문질(祭文祝文秩), 실입질(實入秩)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궁도감이방의례는 [좌목(座目)], [성복제사(成服諸事)], 품목질(稟目秩), 실입질(實入秩)로, 혼궁도감이방의례는 [본방소장(本房所掌)],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빈궁도감삼방의례의 [좌목(座目)], 감결질(甘結秩), 혼궁도감삼방주성소의례의 [좌목(座目)], 이문질(移文秩), 품목질(稟目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 공장질(工匠秩), 혼궁도감이방조성소의례의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감결질(甘結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 전배용환질(前排用還秩), 공장질(工匠秩), 혼궁도감이방수리소의례의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 공장질(工匠秩), 빈궁도감별공작의례의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 공장질(工匠秩), 혼궁도감별공작의례의 [좌목(座目)], 수본질(手本秩), 실입질(實入秩), 용환질(用還秩), 전배용환질(前排用還秩), 공장질(工匠秩)로 구성되어 있다.

### 【음식관련내용】

사도세자는 영조(英祖)의 둘째 아들로, 생모(生母)는 영빈 이씨(映嬪李氏)이며, 부인은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이다. 이복형인 효장세자(孝章世子, 후에 眞宗으로 추존)가 일찍 죽고 난 후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자(世子)로 책봉되었고, 10세에 혜경궁 홍씨와 가례(嘉禮)를 올렸다. 1762년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실덕(失德)과 비행을 지적한 10조목의 상소에 크게 노한 영조는 세자를 휘령전(徽寧殿)으로 불러 자결을 명했다. 그러나 세자가 끝내 자결하지 않자 그를 서인(庶人)으로 폐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8일 만에 죽게 했으니, 1762년(영조 25) 윤5월 21일 자시(子時)였다. 장례절차는 21일 술시에 염습을 하고, 22일 축시에 소렴을 했으며, 23일 오시에 대렴과 성빈을 시강원에서 하고, 24일 진시에 성복하였다. 7월 23일 축시에 발인하여 묘시에 묘소에 도착하여 정자각에 봉안하고, 신시에 하현실, 유시에 반우하여 술시에 우주를 창경궁 강서원에 봉안했다.

빈궁도감일방의례의 감선식(監膳式)에 의하면, 제상(祭床)과 중배설상(中排設床)은 상의원(尙衣院)이 내입(內入)하고, 외진설상(外陳設床)은 별공작(別工作)이 진배하였다. 감선은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 대렴전(大斂奠) 성빈전(成殯奠) 성복전(成服奠) 속절(俗節) 삭망전(朔望奠) 계빈전(啓殯奠) 조전(祖奠) 견전(遣奠) 주정전(晝停奠) 영장궁성빈전(靈帳宮成殯奠) 천진遷奠) 입주전(立主奠) 등은 대전관(代奠官)이 본방 즉 빈전일방 낭청과 함께 입회하여(眼同) 감선(監膳)하고, 노제(路祭)는 의정부·충훈부 차지(次知)가 해사제(解謝祭)는 관상감 차지가 안묘제(安墓祭)는 묘소도감 차지가 감선(監膳)하였으며, 우제(虞祭)는 혼궁(魂宮) 차지가 거행했으며, 조석전(朝夕奠)은 대제를 겸행할 때에는 대제와 같았으며, 주다례(晝茶禮), 조석(朝夕)의 상식(上食)은 사옹원(司饔院) 차지가 감선하였다. 이상의 제전시각(祭奠時刻)은 금누(禁漏) 차지가 거행(舉行)하였다.

제전 기수식(祭奠器數式)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전의 상차림과 음식

제의 종류	상차림 그릇 수
大祭 別奠	藥果(2器)·中桂果(2器)·散子(2器)·餅(2器)·細糲(1器)·湯(2器)·實果(3器)·醴酒(1瓶)·二兩燭(3丁)
朝夕奠	藥果(1器)·餅(2器)·水正果(1器)·菜(1器)·湯(2器)·細糲(1器)·實果(3器)·醴酒(1瓶)·二兩燭(2丁)
晝茶禮	藥果(1器)·餅(2器)·細糲(1器)·湯(1器)·菜(1器)·水正果(1器)·實果(1器)·醴酒(1瓶)·二兩燭(2丁)
朔望殷奠俗節	散子(2器)·藥果(1器)·餅(2器)·湯(1器)·細糲(1器)·實果(1器)·醴酒(1瓶)·二兩燭(3丁)

출전 :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殯殿一房 祭奠器數式

【참고문헌】

『영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법제처,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통합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집필자】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0 [英宗大王] 殯殿都監儀軌

【정의】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5일 경희궁(慶熙宮) 집경당(集慶堂)에서 승하(昇遐)한 영조(英祖, 1724~1776)의 국장을 치르기 위해 자정전(資政殿)에 설치한 빈전(殯殿)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빈전도감에서 간행한 의례이다.

빈전은 재궁(梓宮)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다. 국장 절차에 따라 발인(發引) 전까지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 봉상시(奉常寺)에서 돌아가며 각종 전(奠)이나 제(祭), 상식(上食) 등을 빈전에서 설행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례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알 수 있다.

【서지】

[英宗大王] 殯殿都監儀軌  
線裝. 1冊 (26張) : 圖, 四周單邊, 半郭 34.4×26.0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3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5.9×33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84의1)

‘乾隆四十一年丙申三月日 英宗大王 五臺山上 殯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584의1)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83의 1)에 한 질 더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1책으로 표지제목은 ‘[英宗大王] 殯殿都監儀軌’이고 목차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 내용은 도설(圖說), 좌목(座目), 빈전도감사목(殯殿都監事目), 의주(儀註), 승전질(承傳秩), 계사질(啓辭秩),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예관질(禮關秩), 내관질(來關秩), 빈전일방(殯殿一房), 빈전이방(殯殿二房), 빈전삼방(殯殿三房), 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빈전일방에서는 제전제구(祭奠諸具)와 개명정(改銘旌)부터 산릉에 이르는 일을 담당하고,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수리조성에 관한 일을, 삼방에서는 습렴(襲斂)과 찬궁배설 및 성빈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이중 「빈전일방」에 ‘감선식(監膳式)’과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 실려 있어 국장의 절차에 따라 설행되는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으나, 진설도(陳設圖)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음식관련내용】

1. 1776년 국장의 설행 과정

영조는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5일 묘시에 경희궁 집경당에서 승하였다. 같은 날 목

욕과 습을 하고 3월 6일에 소렴하고 3월 9일에 자정전으로 옮겨 대렴하고 성빈하였다. 3월 10일에 성복하고 7월 26일에 발인하였다. 7월 27일에 안장하고 우주(虞主)를 만들어 초우제를 지낸 후 반우(返虞)하여 경희궁(慶熙宮) 태녕전(泰寧殿)에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하였다.

## 2. 제전기수식

조선시대에는 국장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영조대 중반 이후 제작된 국장관련 의례는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의 의례가 합록(合錄)되어 『빈전혼전도감의례(殯殿魂殿都監儀軌)』로 제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나, 영조 국장의 경우에는 『국장도감의례』, 『빈전도감의례』, 『혼전도감의례』, 『산릉도감의례』 등이 각기 제작되었다. 이중 『빈전도감의례』의 「빈전일방」에 수록된 ‘제전기수식’의 항목에 <표 1>과 같은 ‘제전’, 조석전, 주다례, 삭망전의 찬품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祭奠器數式

제전구분	찬품기수(饌品器數)
제전(祭奠)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切餅(1器), 宗栢子(1器), 宗榛子(1器), 乾柿(1器), 大棗(1器), 宗榧子(1器), 黃栗(1器),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宗果(3器), 苦蕒菜(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糲(1器), 水正果(1器), 宗果(2器), 苦蕒菜(1器), 雀舌茶(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삭망전(朔望奠)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宗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출전 : 『[英宗大王]殯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위의 표에서 ‘제전’이라고 표기한 것은 의례의 기록이 아니다. 의례에는 ‘제전기수식’이란 항목명 아래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 구절이 있고 특별한 제전명칭이 없이 바로 음식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음식 구성은 『국조상례보편』의 전찬도(奠饌圖)와 같은 것으로 국장절차에 따라 소렴부터 입주안릉전까지의 각전(各奠)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조석전과 삭망전 역시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 ‘삭망전찬도’와 음식 구성은 같으나 삭망전의 중박계가 삭망전찬도에는 소박계로 되어 있는 점만 다르다.

### 【참고문헌】

『[英宗大王]殯殿都監儀軌』 (규 13584의 1)

『春官通考』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집필자】 박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1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정의】

1786년(정조 10) 5월 11일에 창경궁(昌慶宮) 별당에서 홍서(薨逝)한 정조(正祖, 1776~1800)의 맏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의 예장(禮葬)을 치르기 위해 설치한 빈궁과 혼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의궤이다.

빈궁은 재실(梓室)을 묘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궁은 재실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동안 신주[우주(虞主), 연주(練主)]를 모시는 곳이다. 문효세자의 빈궁은 창경궁 요화당(瑤華堂)이고, 혼궁은 경희궁(慶熙宮) 태녕전(泰寧殿)이었다.

입묘(入廟)전까지 빈궁과 혼궁에서 예장 절차에 따라 각종 전(奠)이나 제(祭), 상식(上食) 등이 설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궤를 통해 예장 중 상차림을 알 수 있다.

【서지】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線裝. 2冊 : 圖, 四周單邊, 半郭 33.3×26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6.3×33.1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923)

‘乾隆五十一年丙午江華府上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은 강화부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파리 국립도서관(2692·2693)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궤는 상·하 2책으로 되어 있다. 상책(上冊)은 목록, 좌목(座目), 도감처소(都監處所) 이하 시일(時日)부터 신백매안(神帛埋安)까지 예장의 각 절차에 따른 항목과 내하(內下)부터 의궤(儀軌)까지의 제반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하책(下策)은 일방의궤(一房儀軌),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의 순으로 기재 되어있다. 일방은 각종 제전(祭奠), 개명정(改銘旌), 성복(成服) 후 빈궁의 제반 사항을 관장하였다. 이방은 성복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삼방은 습렴과 관련된 일과 찬실(欝室)의 배설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다.

예장 중에 설행되는 상차림은 하책의 「일방의궤」에 기록된 6면의 도식(圖式)과 제전찬품(祭奠饌品)을 통해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788년 예장의 설행 과정

문효세자는 1786년 5월 11일 미시(未時)에 창경궁 별당에서 홍서하였다. 같은 날 목욕

과 습을 하고 12일에 소렴하고 13일에 요화당으로 옮겨 대렴하고 성빈하였다. 14일에 성복(成服)하고 29일에 혼궁을 수리하였다. 6월 25일에 개명정(改銘旌)하고 윤7월 18일에 계찬실(繼室)하여 19일에 발인하고 재실을 현실(玄室)에 내렸다. 같은 날 우주(虞主)를 만들어 초우제를 지낸 후 반우하여 경희궁 태녕전에 봉안하였다.

## 2. 빈궁혼궁에서의 상차림

본 의례의 하권 「일방의례」에는 총 6면의 도식과 제전찬품이 기재되어 있다. 도식은 ‘빈궁전찬도(殯宮奠饌圖)’, ‘조석상식(朝夕上食)’, ‘주다례(晝茶禮)’, ‘삭망전(朔望奠)’, ‘각전(各奠)’, ‘혼궁전찬도(魂宮奠饌圖)’, ‘주다례(晝茶禮)’, ‘우제졸곡소상대상담제’, ‘삭망전’, ‘절제’, ‘오향제(五享祭)’, ‘명일(名日)’ 등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제전찬품은 ‘습전이하각제(襲奠以下各祭)’, ‘빈궁삭망전’, ‘조석전’, ‘주다례’, ‘우제이하각제(虞祭以下各祭)’, ‘오향제이하각제(五享祭以下各祭)’, ‘조석상식’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도식화 하면 <표 1>과 같다.

<표 1> 祭奠饌品

제전 구분	찬품기수(饌品器數)
습전이하각제(襲奠以下各祭)	藥果(3器), 中朴桂(2器), 白散子(1器), 紅散子(2器), 自朴餅(1器), 敬丹餅(1器), 松古餅(1器), 煎蒸(1器), 雜湯(1器), 茶糲(1器), 栢子(1器), 榧子(1器), 黃栗(1器), 大棗(1器), 乾柿(1器), 淸酒(1瓶), 一柄三兩燭(3丁)
빈궁삭망전(殯宮朔望奠)	藥果(1器), 小朴桂(2器), 自朴餅(1器), 雜湯(1器), 茶糲(1器), 栢子(1器), 黃栗(1器), 大棗(1器), 淸酒(1瓶), 一柄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切餅(1器), 水正果(1器), 茶糲(1器), 菜(1器), 雜湯(1器), 實栢子(1器), 淸酒(1瓶), 一柄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1器), 栢子餅(1器), 追酒(1器), 水正果(1器), 菜(1器), 雜湯(1器), 茶糲(1器), 果(1器), 乾柿(1器), 淸酒(1瓶), 一柄三兩燭(3丁)
우제이하각제(虞祭以下各祭)	藥果(3器), 小朴桂(2器), 白散子(1器), 自朴餅(1器), 松餅(1器), 艾青餅(1器), 荏子餅(1器), 栢子餅(1器), 水丹餅(1器), 獐肉湯(1器), 生鮮湯(1器), 軟肉湯(1器), 魚炙(1器), 生雉炙(1器), 獐肉炙(1器), 魚煎(1器), 糲(1器), 菜(1器), 栢子(1器), 榧子(1器), 黃栗(1器), 大棗(1器), 乾柿(1器), 淸酒(1瓶), 一柄三兩燭(3丁)
오향제이하각제(五享祭以下各祭)	藥果(1器), 小朴桂(2器), 餅(1器), 生鮮湯(1器), 魚炙(1器), 生雉炙(1器), 魚煎(1器), 糲(1器), 菜(1



	兪), 果(2兪), 淸酒(1瓶), 一柄三兩燭(3丁)
조석상식(朝夕上食)	水刺(1兪), 湯(1兪), 淸泡湯(1兪), 多士麻湯(1兪), 三色炙(1器), 沉菜(1器), 生菜(1器), 熟菜(1器), 艮醬, 芻醬(1器), 多士麻佐飯(1器), 荏子屑(1器), 海衣佐飯(1器), 淸酒(1瓶), 牛毛(1器), 一柄三兩燭(3丁)
출전: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一房儀軌」祭奠饌品	

이중 ‘조석상식’의 경우 제전찬품에서는 ‘조선상식’이라 하고 아래 세주로 ‘빈궁과 혼궁이 같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도식은 빈궁의 경우 ‘조석상식’으로 혼궁의 것은 ‘혼궁전찬도 <조석상식내외합설>’이라 하여 2종의 도식을 수록하고 있는데, 제목뿐 아니라 도식의 내용도 동일하지 않다. ‘주다례’의 경우 역시 도식은 빈궁과 혼궁의 것이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비해 제전찬품에는 하나의 주다례만 기재되어 있는데 도식과 비교했을 때 이는 혼궁의 ‘주다례’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규 13923)

『春官通考』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집필자】** 박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2 [正宗大王] 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00년(순조 즉위년) 6월 5일 창경궁(昌慶宮) 영춘헌(迎春軒)에서 승하(昇遐)한 정조(正祖, 1776~1800)의 국장을 치르기 위해 설치한 빈전(殯殿)과 혼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빈전혼전도감에서 간행한 의례이다.

빈전인 창덕궁(昌德宮) 환경전(歡慶殿)은 재궁(梓宮)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인 창덕궁(昌德宮) 효원전(孝元殿)은 재궁을 안장한 후 반우하여 상기(喪期) 동안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한 곳이다.

본 의례에는 국장 절차에 따라 부모(祔廟)하기 전까지 내심시(內瞻寺), 내자시(內資寺), 봉상시(奉常寺)에서 돌아가며 각종 전(奠)이나 제(祭), 상식(上食) 등을 빈전과 혼전에서 설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알 수 있다.

【서지】

[正宗大王] 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책: 圖, 四周單邊, 半郭 33.4×25.8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7.2×33.5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37)

‘嘉慶五年庚申六月日 正宗大王 五臺山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637)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正宗大王 殯殿魂殿都監儀軌’이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38·奎 13639)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상, 중, 하 3책으로 표지제목은 ‘[正宗大王] 殯殿魂殿都監儀軌’이고 상권에 목차가 작성되어 있다.

상권은 도감역시(都監設始)부터 의례사례(儀軌事例)까지 12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략한 장례일지와 의주 및 의례의 체제에 대한 설명 등이 있다. 중권은 「일방(一房)」이며, 하권은 「이방(二房)」, 「삼방(三房)」, 「별공작(別工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 삼방과 별공작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중권의 「일방」이다. 「일방」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식(陳設圖式)이 있어서 국장의 절차에 따라 설행되는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기수(器數)를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776년 국장의 설행 과정

정조는 1800년(순조 즉위년) 6월 28일 유시(酉時)시에 창경궁 영춘헌에서 승하였다. 같은 날 목욕과 습을 하고 6월 29일에 소렴하고 7월 2일에 환경전으로 옮겨 7월 3일에 대렴하고 성빈하였다. 7월 4일에 성복하고 11월 3일에 발인하였다. 11월 6일에 안장하고 우주(虞主)를 만들어 초우제를 지낸 후 반우(返虞)하였고, 창경궁 효원전에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하였다. 11월 9일 삼우제를 지내고 신백(神帛)을 숭문당(崇文堂) 서쪽 계단 위에 매안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본 의례의 중권 「일방」에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식’이 수록되어 있다. 감선식은 습진(襲奠) 등 15종의 대제(大祭)와 노제(路祭), 해사제, 안릉진, 우제, 조석전, 주다례, 조석상식 등의 각종 제전(祭奠)의 감선 담당자 목록이고, 제전기수식은 제전, 조석전, 주다례, 삭망전에 올리는 제물목록이다. 진설도식은 조석상식과 주다례의 진설도로 향안과 준상을 생략한 제상만이 그려져 있다. 이중 제전기수식을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祭奠器數式

제전구분	찬품기수(饌品器數)
제전(祭奠)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蓼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切餅(1器), 實栢子(1器), 實榛子(1器), 軋柿(1器), 大棗(1器), 實榧子(1器), 黃栗(1器),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蕒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蕒菜(1器), 雀舌茶(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삭망전(朔望奠)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출전 : 『[正宗大王]殯殿都監儀軌』中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위의 표에서 ‘제전’이라고 표기한 것은 의례의 기록이 아니다. 의례에는 ‘제전기수식’이란 항목명 아래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이란 구절이 있고 특별한 제전명칭이 없이 바로 음식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음식 구성은 『국조상례보편』의 진찬도(奠饌圖)와 같은 것으로 국장절차에 따라 소렴부터 입주·안릉전까지의 각전(各奠)에 동일하게 차려졌다. 조석전과 삭망전 역시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와 삭망전찬도와 음식 구성이 같으나 삭망전의 중박계가 삭망전찬도에는 소박계로 되어 있는 점과 『국조상례보편』에는 청주와 삼량축을 표기하지 않은 점만 다르다.

**【참고문헌】**

『[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규 13637-v.1-3)

『春官通考』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집필자】** 박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3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05년(순조 5) 1월 12일 오시(午時)에 창경궁(昌慶宮) 경복전(景福殿)에서 승하(昇遐)한 영조(英祖)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의 국장을 치르기 위해 설치한 빈전(殯殿)과 혼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빈전혼전도감에서 간행한 의례이다.

빈전인 창경궁(昌慶宮) 환경전(歡慶殿)은 재궁(梓宮)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인 문정전(文政殿)은 재궁을 안장한 후 반우하여 상기(喪期) 동안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한 곳이다.

본 의례에는 국장 절차에 따라 부묘(附廟)하기 전까지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 봉상시(奉常寺)에서 돌아가며 각종 전(奠)이나 제(祭), 상식(上食) 등을 빈전과 혼전에서 설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알 수 있다.

【서지】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4冊: 圖, 四周單邊, 半郭 33.2×25.8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7.1×33.5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94)

‘嘉慶十年乙丑正月日 貞純王后 鼎足山城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594)은 정족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康熙十年辛亥四月 日嘉禮都監 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이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595)에 한 질 더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4권 4책으로 겉표지에는 ‘嘉慶十年乙丑正月日 貞純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라 기재되어 있고 1권에 총목차가 작성되어 있다.

1권은 시일(時日), 좌목(座目) 순으로 의례(儀軌)까지 14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략한 장례일지와 의주 및 의례의 체제에 대한 설명과 일이 끝난 후 소임을 맡았던 관원에게 상을 내리는 내용 등이 있다. 2권은 「일방(一房)」이며, 3권은 「이방(二房)」, 3권은 「삼방(三房)」과 「별공작(別工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삼방과 별공작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2권의 「일방」이다. 「일방」에는 ‘제전

식(祭奠式)'과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어 국장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제전의 종류와 이를 준비하는 담당관청 및 각 전의 찬품 구성과 기수(器數) 등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05년 정순왕후 국장의 설행 과정

정순왕후는 1805년(순조 5) 1월 12일 창경궁(昌慶宮) 경복전(景福殿)에서 승하(昇遐)하여, 같은 날 목욕과 습을 하고 1월 13일에 소렴하고, 빈전으로 사용할 환경전을 수리하고 찬궁(欝宮)을 조성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1월 15일에 환경전으로 옮겨 1월 16일에 대렴하고, 성빈하였다. 1월 17일에 성복하고 6월 19일에 발인하였다. 6월 20일에 안장하고 21일에 우주(虞主)를 만들어 초우제를 지낸 후 반우(返虞)하였고, 창경궁 문정전에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하였다. 6월 23일 재우제를 지내고 신백(神帛)을 문정전 서쪽 계단 위에 매안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본 의례의 2권 「일방의례」에 '제전식(祭奠式)'과 '제전기수식' 항목이 있다. '제전식'은 봉상시(奉常寺),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가 전담하여 준비해야 하는 제전과 소임을 명기해 놓은 것이고, 제전기수식은 대전, 조석전, 주다례, 삭망전에 올리는 제물목록으로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祭奠器數式

제전구분	찬품기수(饌品器數)
대전(大奠)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切餅(1器), 實栢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大棗(1器), 榧子(1器), 黃栗(1器),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蕒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蕒菜(1器), 雀舌茶(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삭망전(朔望奠)	藥果(3器), 小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출전 :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2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례』는 『[영종대왕]빈전도감의례』나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례』가 '제전기수식'이란 항목명 밑에 별다른 제전명칭 없이 음식명을 나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이란 제전명칭을 적고 음식명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제전명칭의 유무와 상관없이 위의 3종의 의례에 실린 '제전기수식' 중 '대전' 혹은 그에 해당하는 제전의 음식구성은 모두 『국조상례보편』의 전찬도(奠饌圖)의 음식구성과 같은 것으로 국장절차에 따라 소렴부터 입주·안릉전까지의 각 전(奠)에 동일하게 차려졌다.

세주에는 <표 1>의 대전에 올리는 절병(切餅)은 경단병(敬團餅), 두단병(豆團餅), 상화



병(霜花餅)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모두 9가지 색의 떡을 돌아가며 올린다고 되어 있다. 또한 6가지의 실과는 생실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 면은 4월에는 다면(茶糰)을, 8월에는 탕면을 올리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석전’과 ‘삭망전’ 역시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 및 ‘삭망전찬도’와 음식 구성이 같다. 단지 『[영종대왕]빈전도감의궤』나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는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및 『국조상례보편』과는 달리 삭망전의 중박계가 소박계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규 13594-v.1-4)

『春官通考』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집필자】** 박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4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

【정의】

1815년(순조 15) 12월 15일 신시(申時)에 창경궁(昌慶宮) 경춘전(景春殿)에서 홍서(薨逝)한 혜빈 홍씨(惠嬪 洪氏, 1735~1815)의 예장을 치르기 위해 설치한 빈궁(殯宮)과 혼궁(魂宮)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빈궁혼궁도감에서 간행한 의궤.

빈궁인 창경궁(昌慶宮) 환경전(歡慶殿)은 재궁(梓宮)을 묘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궁인 통화전(通和殿)은 재궁을 안장한 후 반우하여 상기(喪期) 동안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한 곳이다.

본 의궤에는 예장 절차에 따라 입묘(入廟)하기 전까지 내심시(內瞻寺), 내자시(內資寺), 봉상시(奉常寺)에서 돌아가며 각종 전(奠)이나 제(祭), 상식(上食) 등을 빈궁과 혼궁에서 설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예장 중 상차림을 알 수 있다.

【서지】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  
線裝. 2冊: 圖, 四周單邊, 半郭 32.9×25.6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7.2×33.3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12)

‘嘉慶二十年十二月日 禮曹上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612)은 예조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13·奎 13614·奎 13615), 파리국립도서관(2468·2469·2471)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궤는 상, 중, 하 3책으로 겉표지에는 ‘嘉慶二十年(乙亥)十二月日 獻敬惠嬪 殯宮魂宮都監儀軌 上 春秋館上’라 기재되어 있다.

1권은 거행일기(舉行日記), 좌목(座目)부터 순차적으로 의궤사례(儀軌事例)까지 15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략한 장례일지와 의주 및 의궤의 체제에 대한 설명 등이 있다. 2권은 「일방의궤(一房儀軌)」이며, 3권은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실(梓室)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삼방에서는 습렴과 찬궁의 배설에 관한 일을, 별공작에서는 예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궤 가운데 예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2권의 「일방」이다. 「일방」에는 도설(圖說), 제전식(祭奠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등의 항목이 있어 예장의 절차에 따라 설행

되는 제전의 종류와 이를 준비하는 담당관청 및 각 전의 찬품 구성과 기수(器數) 등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15년 혜빈 홍씨 예장의 설행 과정

혜빈은 1815년(순조 15) 12월 15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홍서하여, 같은 날 목욕과 습을 하고 16일에 소렴하고, 17일에 대렴하고, 성빈하였다. 3월 1일에 발인하여 3일에 안장하고, 4일에 초우제를 지내고 5일에 반우(返虞)하여, 통화전에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하였다.

2. 도설(圖說)의 상차림

본 의례 2권 「일방의례」에는 ‘조석상식’과 ‘주다례’의 진설도가 실려 있다. 이 진설도의 도식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과는 달리 영좌(靈座), 향안(香案), 준상(樽床)을 생략하고 제상(祭床)만을 그렸다. 또한 향로와 향합은 제상 하단에 진설된 음식과 같이 그리거나 생략하고, 음식명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라고 표기하였다. 여기에 표기된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이고, ‘외’는 관(官)에서 올린 것을 말한다. ‘주다례’ 진설도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겨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晝茶禮 陳設圖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櫟, 餅<外>, 追淸<內>, 餅<內>, 麵<內>,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窠果<內>, 窠果<內>, 窠果<外>, 窠果<外>
1	藥果<外>

출전: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참고문헌】**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 (규 13613-v.1-3)

『春官通考』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집필자】** 박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5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21년(순조 21) 3월 9일 오시(午時)에 자경전(慈慶殿)에서 승하한 정조(正祖) 비(妃)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1821) 김씨(金氏)의 국장을 치르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빈전혼전도감에서 간행한 의례.

빈전인 창경궁(昌慶宮) 환경전(歡慶殿)은 재궁(梓宮)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궁인 통화전(通和殿)은 재궁을 안장한 후 반우하여 상기(喪期) 동안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한 곳이다.

본 의례에는 국장 절차에 따라 부묘(祔廟)하기 전까지 내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 봉상시(奉常寺)에서 돌아가며 각종 전(奠)이나 제(祭), 상식(上食) 등을 빈전과 혼전에서 설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알 수 있다.

【서지】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33.1×25.8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7.1×33.1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50)

‘道光元年辛巳三月日 孝懿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上’이라는 표지 기록이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51·奎 13652·奎 13653), 파리국립도서관(2445·2457·2452)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상, 중, 하 3책으로 겉표지에는 ‘道光元年辛巳三月日 孝懿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라고 기재되어 있다.

1권은 거행일기(舉行日記), 좌목(座目)부터 순차적으로 의례사례(儀軌事例)까지 13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략한 장례일지와 의주 및 의례의 체제에 대한 설명 등이 있다. 2권은 「일방의례(一房儀軌)」이며, 3권은 「이방의례(二房儀軌)」, 「삼방의례(三房儀軌)」, 「별공작의례(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마(人馬)를 과정하는 일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삼방에서는 습렴과 찬궁의 배설에 관한 일을, 별공작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2권의 「일방의례」이다. 「일방의례」에는 ‘도설(圖說)’, ‘제전식(祭奠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등의 항목이 있어 국장의 절차에 따라 설행되는 제전의 종류와 이를 준비하는 담당관청 및 각 전의 찬품 구성과 기수(器

數) 등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21년 효의왕후 국장의 설행 과정

효의왕후는 1821년(순조 21) 3월 9일 자경전에서 승하하여, 같은 날 목욕과 습을 하고 10일에 소렴하고, 13일에 대렴하고, 성빈하였다. 9월 10일에 발인하여 13일에 안장하고, 14일 반우(返虞)하여, 통화전에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하였다. 16일에 삼우제를 지내고 문정전 서쪽 계단 위에 신백(神帛)을 매안하였다.

2. 도설(圖說)의 상차림

본 의례 2권 「일방의례」에 수록된 도설(圖說)에는 ‘조석상식’과 ‘주다례’의 진설도가 실려 있다. 이 진설도의 도식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과는 달리 영좌(靈座), 향안(香案), 준상(樽床)을 생략하고 제상(祭床)만을 그렸다. 또한 향로와 향합은 제상 하단에 진설된 음식과 같이 그리거나 생략하고, 음식명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라고 표기하였다. 여기에 표기된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이고, ‘외’는 관(官)에서 올린 것을 말한다. ‘주다례’ 진설도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겨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晝茶禮 陳設圖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櫛, 餅<外>, 追淸<內>, 餅<內>, 麵<內>,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外>, 實果<外>, 實果<外>, 實果<外>
1	藥果<外>

출전: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참고문헌】**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규 13650-v.1-3)  
 『春官通考』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집필자】** 박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6 [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정의】

1882년(순조 22) 12월에 사망한 순조(純祖)의 생모(生母) 수빈(綏嬪, 1770~1822) 박씨(朴氏)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궁(殯宮)과 혼궁(魂宮)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궤이다. 조선시대에 국상은 대상(大喪)과 소상(小喪)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왕과 왕비의 장례를 가리키고 후자는 왕세자와 빈의 장례를 가리킨다. 소상인 경우 대상보다 격을 낮추기 위해서 빈전과 혼전 대신 빈궁과 혼궁이라 불렀다. 후궁의 소생으로 국왕의 지위에 오른 경우 그 생모를 높이어 빈(嬪)으로 삼고 사후에 사당과 무덤을 각각 궁과 원이라 불렀다. 후궁으로서 자식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죽어 장례를 소상의 예에 맞추어 거행한 예는 수빈 박씨가 처음이다. 본 의궤를 통해서 이러한 빈궁과 혼궁에서 올리는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의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33.1×25.7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7.1×32.4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934)

‘道光二年壬午十二月日 顯穆綏嬪 五臺山上 殯宮魂宮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934)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 엮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931·奎 13932·奎 13933), 과리국립도서관(2479·2480·2478)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궤는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거행일기(舉行日記), 좌목(座目), 사목(事目) 등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책은 「일방의궤(一房儀軌)」이며, 제3책은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삼방과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궤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2책의 일방의궤이다. 「일방의궤」의 도설(圖說)과 제전식(祭奠式)에서 상기(喪期) 중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22년(헌종 즉위) 국장의 설행 과정

수빈 박씨는 1822년 12월 26일에 승하하였다. 상례는 사망 당일에 복(復)을 하고, 27일에 목욕과 습, 소렴, 28일 대렴하고 성빈하였는데 빈궁은 환경전(歡慶殿)으로 하였다. 다음해 2월 26일에 발인하여 휘경원(徽慶園)에 도착하였으며, 27일에 재실(梓室)을 현실(玄室)에 안장(安葬)한 후 반우(返虞)하여 창경궁 문정전에 봉안하였는데 궁호(宮號)를 현사궁(顯思宮)이라 하였다.

2. 빈궁혼궁에서의 상차림

1) 도설(圖說)의 상차림

본 의례의 제2책 「일방의례(一方儀軌)」의 도설(圖說)조에는 ‘조석전(朝夕奠)’과 ‘주다례(晝茶禮)’ 2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두 개의 도설 모두 준소상의 진설은 생략하고 제상의 찬품만 표시하였다.

<표 1>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4	盞, 盞, 盞
3	煎蒸, 餅, 餅, 麪, 湯 (동)
2	菜, 藥果, 水正果
1	果, 果, 果

출전 : 『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2>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4	盞, 盞, 盞
3	餅, 麪, 餅
2	茶, 水正果
1	果, 藥果, 果

출전 : 『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1>의 <조석전 진설도식>은 빈궁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찬품은 제 1행에 과일이 3그릇, 2행에 채(菜), 약과, 수정과 각각 1그릇, 제 3행에 전증 1그릇, 병 2그릇, 면 1그릇, 탕 1그릇, 제 4행에 잔 3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는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주다례는 매일 점심 식사 때 올리는 음식을 가리킨다. 제 1행에 과일 2그릇, 약과 1그릇, 제 2행에 차와 수정과가 각각 1그릇, 제 3행에 떡 2그릇과 면 1그릇, 제 4행에 잔 3이다.

2) 제전식(祭奠式)의 상차림

본 일방의례의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대전(大奠)’,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삭망전(朔望奠)’ 등에 대한 찬품의 기수(器數)가 기록되어있다. 대전은 소렴, 대렴,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건, 견진, 노제, 하산릉전, 천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빈전에서 올리는



것과 동일하지만 유밀과의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찬품은 중박계 2기, 홍산자 1기, 백산자 1기, 약과 3기, 떡 5기, 과실 6기, 탕면 1기, 전증 1기, 잡탕 1기, 청주 1병, 삼량축 3정이다. 떡은 송고병(松古餅), 산삼병(山蔘餅), 자박병(自朴餅), 유사병(油沙餅), 절병(切餅) 등 5가지이다. 세주에는 이외 경단병, 두단병, 상화병, 유병과 함께 전체 9색의 떡으로써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탕면(湯糰)은 역시 주(註)에 의하면 4월에서 7월까지의 다면(茶糰)을 준비하고 8월부터는 탕면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糰),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苦莢菜), 청주, 이량축 등이다. 이것은 진전의 찬품과 종류가 동일하다. 다만 약과의 수가 줄어들었고, 삼량축이 이량황축으로 바뀌었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注)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면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길경채 1기, 작설차 1기 등이다. 병은 5가지 중 돌아가며 준비하고, 실과는 여섯 가지 과일 중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설차는 수라간에서 준비해 올린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세주에서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1기), 소박계(2기), 산자(2기), 병(3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1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전의 삭망전과 비교하면 약과와 떡의 수가 줄어들었고, 중박계가 소박계로 바뀌고 수량도 줄어들었다.

<표 3>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대전(大奠)	中朴桂(2器), 紅散子(1器), 白散子(1器), 藥果(3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切餅(1器), 實柏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大棗(1器), 榧子(1器), 黃栗(1器), 湯糰(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1瓶), 三兩黃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1器), 餅(2器), 水正果(1器), 糰(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莢菜(1器), 淸酒(1瓶), 二兩黃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糰(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莢菜(1器), 雀舌茶(1器), 淸酒(1瓶), 二兩燭(3丁)
삭망전(朔望奠) (別奠 同)	藥果(1器), 小朴桂(2器), 散子(2器), 餅(3器), 糰(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출전 : 『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式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옥(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7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정의】

1830년(순조 30) 5월 6일 묘시(卯時)에 창덕궁(昌德宮) 희정당(熙政堂)에서 홍서(薨逝)한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의 예장을 치르기 위해 설치한 빈궁(殯宮)과 혼궁(魂宮)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빈궁혼궁도감에서 간행한 의례이다.

빈궁인 창경궁(昌慶宮) 환경전(歡慶殿)은 재실(梓室)을 묘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궁인 통화전(通和殿)은 재실을 안장한 후 반우하여 상기(喪期) 동안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한 곳이다.

본 의례에는 예장 절차에 따라 입묘(入廟)하기 전까지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 봉상시(奉常寺)에서 돌아가며 각종 전(奠)이나 제(祭), 상식(上食) 등을 빈궁과 혼궁에서 설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예장 중 상차림을 알 수 있다.

【서지】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33.1×25.8cm, 有界, 烏絲欄套式板, 半葉 12行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7×32.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721)

‘道光十年庚寅五月日 孝明世子 五臺山上 殯宮魂宮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721)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엇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719·奎 13720·奎 13722·奎 13723·奎 13724)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상, 중, 하 3책으로 겉표지에는 ‘道光十年庚寅五月 日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라 기재되어 있다.

1권은 시일(時日), 좌목(座目)부터 순차적으로 의례(儀軌)까지 15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략한 장례일지와 의주 및 의례의 체제에 대한 설명 등이 있다. 2권은 「일방의례(一房儀軌)」이며, 3권은 「이방의례(二房儀軌)」, 「삼방의례(三房儀軌)」, 「별공작의례(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실(梓室)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삼방과 별공작에서는 예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예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2권의 「일방」이다. 「일방」에는 도설(圖說), 제전식(祭奠式), 제전기수(祭奠器數) 등의 항목이 있어 예장의 절차에 따라 설행되는 제전의 종류와 이를 준비하는 담당관청 및 각 전(奠)의 찬품 구성과 기수(器數) 등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30년 효명세자 예장의 설행 과정

효명세자는 1830년(순조 30) 5월 6일 창덕궁 희정당에서 흥서하여, 같은 날 목욕과 습을 하고 7일에 소렴하고, 8일에 대렴하고, 성빈하였다. 8월 1일에 빈궁인 환경전에 불이나 재실(梓室)을 환취정(環翠亭)으로 옮기고 다시 빈궁을 도총부(都摠府)에 설치하였다. 8월 3일에 발인하여 4일에 안장하고 초우제를 지낸 후 반우(返虞)하여 통화전에 신주[우주(虞主)]를 봉안하였다.

2. 도설(圖說)의 상차림

본 의례 2권 「일방의례」에는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조석상식(朝夕上食)’, ‘우제찬도(虞祭饌圖)’, ‘혼전속절삭망제찬도(魂殿俗節朔望祭饌圖)’, 등의 진설도가 실려 있다. 이것은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례』에 실린 ‘빈궁전찬도(殯宮奠饌圖)’, ‘조석상식(朝夕上食)’, ‘주다례(晝茶禮)’, ‘삭망전(朔望奠)’, ‘각전(各奠)’, ‘혼궁전찬도(魂宮奠饌圖)’, ‘주다례(晝茶禮)’, ‘우제졸곡소상대상담제’, ‘삭망전’, ‘절제’, ‘오향제(五享祭)’, ‘명일(名日)’ 등의 진설도 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진설도를 싣고 있지 않거나 2~3개의 진설도를 수록하고 있는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례』,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례』,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례』 보다는 많은 것이다.

이중 영좌(靈座), 향안(香案), 준상(樽床)을 생략하고 제상(祭床) 만을 그린 조석전 진설도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겨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朝夕奠 陳設圖

행	찬품
4	盞, 盞, 盞
3	煎蒸, 餅, 餅, 麵, 湯
2	菜, 藥果, 水正果
1	果, 果, 果

출전: 『[孝明世子]宮魂宮都監儀軌』 「一房儀軌」 圖說

**【참고문헌】**

『[孝明世子]宮魂宮都監儀軌』 (규 13721-v.1-3)

『春官通考』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집필자】** 박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8 [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34년(순조 34) 11월에 승하한 순조(純祖, 1800~1834)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궤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는 국장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의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순조 국장 때 빈전은 경희궁의 장락전(長樂殿)이고, 혼전은 선정전(宣政殿)이었다. 두 곳 모두에서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궤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冊 : 圖, 四周單邊, 半郭 33.1×25.9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  
行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5.8×3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印文未詳,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72)

‘道光十四年甲午十一月日 純宗大王 五臺山城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672)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엮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73·奎 13674·奎 13675·奎 13676)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궤는 3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목록과 권지일(卷之一)로 구분된다. 권지일은 거행일기(舉行日記), 좌목(座目), 사목(事目) 등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책은 일방의궤(一房儀軌)이며, 제3책은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삼방과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궤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2책의 일방의궤이다. 일방의궤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설(進設圖說)」이 있어서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34년(헌종 즉위) 국장의 설행 과정

1834년 11월 13일에 승하하였는데 동일날 복(復)을 하고, 14일에 목욕과 습, 15일에 소렴, 17일 대렴하고 성빈하였는데 빈전은 장락전으로 하였다. 18일에 성복하였다. 다음해 4월 17일에 발인하여 18일에 산릉에 도착하였으며, 19일에 재궁을 현궁에 내렸다. 같은날 우주목에 제주하고 초우제를 지낸 후 반우하여 20일에 창덕궁이 선정전에 봉안하였다. 1837년 1월 1일에 담제를 거행하고 동월 7일에 종묘에 부묘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본 의례의 일방의례의 목차에는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전기수식’이란 이름 다음에 곧바로 음식명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형태는 영조의 빈전혼전도감의례부터이다. 『[경종]빈전도감의례』에서는 ‘제전기수식’의 편명 아래 ‘대제별전(大祭別奠)’라는 제전명칭이 별도로 있다. 즉,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아래 ‘대제별전’, ‘삭망전’, ‘주다례’로 구분되어 있다. <표 1>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전’이란 이름을 제전명으로 사용하지만 괄호로 ‘대제별전’을 괄호에 넣어 부기하였다.

<표 1>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제전(祭奠) [大祭別奠]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實栢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切餅(1器), 大棗(1器), 實榧子(1器), 黃栗(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삭망전(朔望奠)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蕒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蕒菜(1器), 雀舌茶(1器)
출전 : 『[순조]빈전혼전도감의례』 제2책, 1방의례, 祭奠器數式	

제전[대제별전]은 국장 중 대행 대왕 또는 대행 왕비에게 올리는 전의 상차림을 나타낸 것이다. 찬품의 종류로 보아서는 빈전에서 사용되는 것만 나타내고 혼전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 제전[대제별전]의 찬품 구성은 중박계, 홍산자, 백산자, 약과, 병류(餅類) 5기, 실과(實果) 6기, 청주 1병, 삼량축(三兩燭) 3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찬품 구성은 『국조오례서례』, 『국조상례보편』 등에 나오지 않는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례』 「제전기수식」에 나오는 찬품의 구성은 『국조상례보편』 「도설」에 실린 「전찬도(奠饌圖)」의 찬품과 동일하다. 『국조상례보편』의 「전찬도」와 본 의례에 나온 제전의 찬품을 비교하면 본 의례에는 “탕면(1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삭망전(朔望奠)’의 찬품에 기록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의례에서는 ‘삭망전’의 찬품으로 15개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증(煎蒸), 잡탕, 청주, 삼량축이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례』를 보더라도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중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

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탕면(1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丁)”는 보이지 않는다. “탕면, 전증, 잡탕, 청주, 삼량축”은 「제전」의 내용이 이곳에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잘못 추가된 것을 제외한 후 이를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비교하면 의례에 보이는 중박계가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소박계로 된 것 외에는 동일하다.

「조석전」은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菩萐菜), 청주, 삼량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찬품의 내용과 그릇 수는 『국조상례보편』에 나오는 「조석전찬품(朝夕奠饌圖)」의 구성과 동일하다. 한편 의례에서는 병류(餅類)는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올리고, 실과는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올린다고 하였다.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이하 7종류가 실려있다. 「삭망전」과 마찬가지로 병류 2기는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올리고, 실과 2기는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올린다. 그런데 이 의례의 내용을 역시 『[정조]빈전혼전도감의례』와 비교하면 본 의례에 착간이 있는 것 같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례』에는 작설차 다음에 청주 1병과 삼량축 3정이 더 있다. 「주다례」에 있어야 할 ‘청주 1병, 삼량축 3정’이 「대제」에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 2) 도설의 상차림

<표 2>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麵,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순조]빈전혼전도감의례』 제2책, 2방의례, 陳設圖式

<표 3>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餅<外>, 追淸<內>, 餅<內>,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외>, 實果<외>
1	藥果<外>

『[순조]빈전혼전도감의례』 제2책, 2방의례, 陳設圖式

본 의례에는 「조석전」과 「주다례」의 두 개 진설도(陳設圖)가 있다. 「조석전」의 도식은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2>은 의례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겼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과 그 양쪽에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표 3>은 주다례(晝茶禮)의 도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의 특징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는 점이다. ‘내’는 내전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순조]빈전혼전도감의궤』 (규13567)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29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43년(헌종 9) 8월에 승하한 헌종(憲宗)의 비(妃) 효현왕후(孝顯王后, 1828~1843)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는 국장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의례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효현왕후 국장 때 빈전은 창경궁의 환경전(歡慶殿)이고, 혼전은 창경궁의 문정전(文政殿)이었다. 두 곳 모두에서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례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33.1×25.8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7.2×32.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05)

‘道光二十三年癸卯八月日 孝顯王后 五臺山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805)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08·奎 13806·奎 13807), 파리국립도서관(244 6·2444)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3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목록」과 「권지일(卷之一)」로 구분된다. 권지일은 거행일기(舉行日記), 좌목(座目), 사목(事目) 등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책은 「일방의례(一房儀軌)」이며, 제3책은 「이방의례(二房儀軌)」, 「삼방의례(三房儀軌)」, 「별공작의례(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삼방과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2책의 일방의례이다. 「일방의례」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설(圖說)이 있어서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43년(헌종 9) 효현왕후의 국장 과정

효현왕후는 1843년 8월 25일에 승하하였다. 같은 날 복(復)을 시작으로 국장이 시작되었다. 26일에 목욕과 습, 27일에 소렴, 29일 대렴하고 성빈하였는데 빈전은 환경전으로 하였다. 12월 1일에 발인하여 2일에 현궁에 재궁을 내렸다. 같은 날 우주목에 제주하고 반우하여 창경궁 문정전에 반우(返虞)하였다. 다음해인 1844년 10월 1일에 담제를 거행하고 상기를 마쳤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 도설의 상차림

본 의례의 제2책 「일방의례(一方儀軌)」의 도설(圖說)조에는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조석상식(朝夕上食)’, ‘우제찬도(虞祭饌圖)’, ‘혼전속절(魂殿俗節)·삭망제찬도(朔望祭饌圖)’ 등 5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표 1>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麵,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2>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餅<外>, 追淸<內>, 餅<內>, 麵<內>,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外>, 實果<外>
1	藥果<外>

출전 :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3>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良醬<內>, 芥子<內> 魚<內>, 食醢<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士麻<外>, 沈菜<外>, 良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4>虞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麪, 湯,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皐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烏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5>魂殿俗節·朔望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麪,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罍>, 醴酒<尊>, 醴酒<尊>

출전 :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의례에 실린 '조석전' 찬도(饌圖)는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1>은 의례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겼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로(香爐) 및 향함(香盒)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조석전은 빈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표 2>는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의 특징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는 점이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의 종류와 수량이 비슷하지만 제전기수식에 비해 餅 1기가 모자란다.

<표 3>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시접, 향로, 향합을 제외한 그릇수는 33개이다. 이 중에서 외식이 14가지이고, 내식이 16가지이다. 나머지 잔(盞) 3기에는 내, 외의 표시가 없다.

<표 4>의 「우제찬도」는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줄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다. 제상의 8행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과 같다.

<표 5>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 작(爵) 대신에 잔(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것과 동일하다.

## 2) 제전식(祭奠式)의 상차림

본 일방의례의 「제전식(祭奠式)」의 ‘제전기수(祭奠器數)’에는 ‘대전(大奠)’,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삭망전(朔望奠)’ 등에 대한 찬품의 기수(器數)를 기록하였다. 대전은 소렴, 대렴,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전, 견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에 실린 ‘전찬도(奠饌圖)’의 동일하다. 과일이나 떡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더 자세한 측면도 있다. 찬품은 중박계 4기, 홍산자 2기, 백산자 2기, 약과 5기, 떡 5기, 과실 6기, 황율 1기, 탕면 1기, 전증 1기, 잡탕 1기, 청주 3병, 3량황축 3정이다. 떡은 송고병(松古餅), 산삼병(山蔘餅), 자박병(自朴餅), 유사병(油沙餅), 절병(切餅) 등 5가지인데 그 주(註)에서 경단병(敬團餅), 두단병(豆團餅), 상화병(霜花餅), 유병(油餅) 등이 더 있어서 모두 9가지로 돌아가면서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탕면(湯麵)의 주(註)에 의하면 4월에서 7월까지의 다면(茶麵)을 준비하고 8월부터는 탕면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菘蕒菜), 청주, 삼량축 등이다. 이것은 의례의 「도설(圖說)」조에 나오는 ‘조석전’의 구성과 동일하며,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朝夕奠饌圖)」와도 동일한 것이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注)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표 6>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대전(大奠)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切餅(1器), 實栢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大棗(1器), 榧子(1器), 黃栗(1器),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淸酒(1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蕒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蕒菜(1器), 雀舌茶(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삭망전(朔望奠) (別奠 同)	藥果(3器), 小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출전 :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式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면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질경채 1기, 작설차 1기, 청주 1병, 삼량축 3정으로 되어 있다. 병은 5가지 중 돌아가며 준비하고, 실과는 여섯 가지 과일 중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설차는 수라간에서 준비해 올린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제주에서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소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규13805)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0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49년(철종 즉위) 6월에 승하한 헌종(憲宗, 1834~1849)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궤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는 국장을 치를 때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의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헌종 국장 때 빈전은 창경궁의 환경정(歡慶殿)이고, 혼전은 창덕궁의 선정전(宣政殿)이었다. 두 곳 모두에서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궤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32.2×25.6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4.7×31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印文未詳,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789)

‘道光二十九年六月日 憲宗大王 春秋館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789)은 춘추관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788·奎 13790·奎 13792·奎 14840), 파리국립도서관(2489·2488·2490)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궤는 3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목록」과 「권지일(卷之一)」로 구분된다. 권지일은 거행일기(舉行日記), 좌목(座目), 사목(事目), 승전(承傳)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책은 「일방의궤(一房儀軌)」이며, 제3책은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과장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삼방과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궤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2책의 일방의궤이다. 「일방의궤」의 감膳식(監膳式)에는 제전(祭奠)의 종류와 준비하는 관서를 기록하였고,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서는 각 제전의 찬품 구성 및 수량, 그리고 도설(圖說)을 실었다.

【음식관련내용】

1. 1849년(철종 즉위) 국장의 설행 과정

헌종은 1849년 6월 6일에 승하하였는데 같은 날에 복(復)을 하고, 7일에 목욕과 습을 거행하고 10일 성빈하였는데 빈전은 환경전으로 하였다. 10월 26일에 발인하여 28일에 현궁에 재궁을 내렸다. 같은 날 우주목에 제주하고 초우제를 지낸 후 반우하여 20일에 창덕궁이 선정전에 봉안하였다. 1837년 1월 1일에 담제를 거행하고 동월 7일에 종묘에 부묘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본 의례의 「일방의례」의 목차에는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고 제목 아래 세주(細註)로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이라 적혀있다. 그 다음 줄에 곧바로 음식명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형태는 영조의 빈전혼전도감의례부터이다. 그 이전의 『[경종]빈전도감의례』에서는 ‘제전기수식’의 편명 아래 ‘대제별전(大祭別奠)’라는 제전의 명칭이 줄을 달리하여 별도로 있다. 즉,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아래 ‘대제별전’, ‘삭망전’, ‘주다례’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의례에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대제’ 때의 음식을 가리킨다. <표 1>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전기수식’이란 이름을 제전명으로 사용하지만 괄호로 ‘대제’을 괄호에 넣어 부기하였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제전의 종류는 대제, 삭망전, 조석전, 주다례 등이다.

<표 1>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제전기수식 (祭奠器數式)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實栢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切餅(1器), 大棗(1器), 實榧子(1器), 黃栗(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삭망전(朔望奠)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萹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萹菜(1器), 雀舌茶(1器)
출전 :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제전기수식[대제(大祭)]은 소렴, 대렴,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건, 견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중박계, 홍산자, 백산자, 약과, 병류(餅類) 5기, 실과(實果) 6기, 청주 1병, 삼량촉(三兩燭) 3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찬품 구성은 『국조오례서례』, 『국조상례보편』 등에 나오지 않는다. 『국조상례보편』의 「전찬도」와 본 의례에 나온 제전의 찬품을 비교하면 본 의례에는 “탕면(1기), 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촉(3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삭망전(朔望奠)’의 찬품에 기록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의례에서는 「삭망전」의 찬품으로 15개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진증(煎蒸), 잡탕, 청주, 삼량촉이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



례』를 보더라도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중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탕면(1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丁)”은 보이지 않는다. “탕면, 전증, 잡탕, 청주, 삼량축”은 「제전」의 내용이 이곳에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순조)빈전혼전도감의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잘못 추가된 것을 제외한 후 이를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비교하면 전자에 보이는 의례에 보이는 중박계가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소박계로 된 것 외에는 동일하다.

「조석전」은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苦蕒菜), 청주, 삼량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찬품의 내용과 그릇 수는 『국조상례보편』에 나오는 「조석전찬품(朝夕奠饌圖)」의 구성과 동일하다. 한편 의례에서는 병류(餅類)는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올리고, 실과는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올린다고 하였다.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이하 7종류가 실려있다. 「삭망전」과 마찬가지로 병류 2기는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올리고, 실과 2기는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올린다. 그런데 이 의례의 내용을 역시 『[정조]빈전혼전도감의례』와 비교하면 본 의례에 착간이 있는 것 같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례』에는 작설차 다음에 청주 1병과 삼량축 3정이 더 있다. 「주다례」에 있어야 할 ‘청주 1병, 삼량축 3정’이 「대제」에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 역시 『[순조]빈전혼전도감의례』와 동일하다.

## 2) 도설의 상차림

<표 2> 朝夕奠

행	찬품
7	蠶, 蠶, 蠶
6	餅, 餅, 麵,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표 3>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蠶, 蠶, 蠶
5	匙楪, 餅<外>, 追淸<內>, 餅<內>, 麵<外>,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外>, 實果<外>
1	藥果

출전 :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표 4>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良醬<內>, 芥子<內> 魚<內>, 食醢<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士麻<外>, 沈菜<外>, 良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표 5>虞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麪, 湯,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斝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烏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표 6>魂殿俗節·朔望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麪, 湯,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罍>, 醴酒<尊>, 醴酒<尊>

출전 :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본 의례에는 ‘조석전’, ‘주다례’, 조석상식, 우제찬도, 혼전속절·삭망제찬도 등 5개의 진설도(陳設圖)가 있다. ‘조석전’의 도식은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2>은 의례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

졌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로(香爐) 및 향합(香奩)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표 3>은 주다례(晝茶禮)의 도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의 특징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는 점이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전기수식에 비해 餅 1기가 모자라며, 麪 1기가 더 있다. 藥果에는 내, 외의 구분이 없다.

<표 4>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시접, 향로, 향합을 제외한 그릇 수는 33개이다.

<표 5>의 「우제찬도」는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졸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다. 제상의 8행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과 같다.

<표 6>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 爵 대신에 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것과 동일하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1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57년(철종 8) 8월에 승하한 순조비(純祖妃)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1789-1857)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하였던 빈전혼전도감에서 기록한 의례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는 국장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의례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제향을 거행하던 곳이다. 순원왕후 국장 때 빈전은 창경궁의 환경전(歡慶殿), 혼전은 문정전(文政殿)을 사용하였는데 전호(殿號)는 효정(孝正)이었다. 빈전과 혼전 모두에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례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32.3×25.6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4.8×3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88)

‘咸豐七年丁巳八月日 純元王后 五臺山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688)은 오대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엇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689·奎 13690·奎 13691·奎 13692·奎 13693·奎 14851)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3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목록」과 「권지일(卷之一)」로 구분된다. 권지일은 거행일기(舉行日記), 좌목(座目), 사목(事目) 등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책은 「일방의례(一房儀軌)」이며, 제3책은 「이방의례(二房儀軌)」, 「삼방의례(三房儀軌)」, 「별공작의례(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삼방과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2책의 일방의례이다. 「일방의례」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설(圖說)이 있어서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57년(철종 8) 순원왕후 국장의 설행 과정

1857년 8월 4일에 창덕궁 양심합(養心閣)에서 승하하였는데 같은 날에 복(復)을 하고, 다음날에 목욕과 습, 소렴을 거행하고, 8일에 대렴하고 성빈하였다. 12월 16일에 발인하여 17일에 재궁을 현궁에 내렸다. 18일에 창덕궁 문정전에 반우하여 혼전에서 상기를 마치고 1859년(철종 10) 10월 7일에 종묘에 부묘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 도설의 상차림

본 의례의 제2책 「일방의궤(一方儀軌)」의 도설(圖說)조에는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조석상식(朝夕上食)’, ‘우제찬도(虞祭饌圖)’, ‘혼전속절(魂殿俗節)·삭망제찬도(朔望祭饌圖)’ 등 5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표 1>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麵,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方儀軌」陳設圖式

<표 2>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餅<外>, 追淸<內>, 餅<內>, 麵<內>,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外>, 實果<外>
1	藥果<外>

출전 :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方儀軌」陳設圖式

<표 3>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楸,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艮醬<內>, 芥子<內> 魚<內>, 食醢<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士麻<外>, 沈菜<外>, 艮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4>虞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麪, 湯,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皐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鳥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5>魂殿俗節·朔望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麪,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罍>, 醴酒<尊>, 醴酒<尊>

출전 :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의례에 실린 ‘조석전’ 찬도(饌圖)는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1>은 의례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겼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로(香爐) 및 향함(香盒)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조석전은 빈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표 2>는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의 특징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는 점이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의 종류와 수량이 비슷하지만 제전기수식에 비해 병(餅) 1기가 모자란다.

<표 3>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시접, 향로, 향합을 제외한 그릇수는 33개이다. 이 중에서 외식이 14가지이고, 내식이 16가지이다. 나머지 잔(盞) 3기에는 내, 외의 표시가 없다.

<표 4>의 「우제찬도」는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줄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다. 제상의 8행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과 같다.

<표 6>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 작(爵) 대신에 잔(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것과 동일하다.

## 2)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본 「일방의례」에는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고 제목 아래 세주(細註)로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이라 적혀있다. 그 다음 줄에 곧바로 음식명이 나오고 있다.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대제’ 때의 음식을 가리킨다. <표 1>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전기수식’이란 이름을 제전명으로 사용하지만 괄호로 ‘대제’를 괄호에 넣어 부기하였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제전의 종류는 대전, 삭망전, 조석전, 주다례 등이다.

제전기수식[大祭]은 소림, 대림,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건, 견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중박계, 홍산자, 백산자, 약과, 병류(餅類) 5기, 실과(實果) 6기, 청주 1병, 삼량촉(三兩燭) 3정, 전증, 잡탕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찬품 구성은 『국조오례서례』, 『국조상례보편』 등에 나오지 않는다. 『국조상례보편』의 「전찬도」와 본 의례에 나온 제전의 찬품을 비교하면 본 의례에는 탕면(1기)이 부족하고, 청주가 3병에서 1병으로 줄어들었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세주에서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중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촉(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비교하면 『국조상례보편』의 ‘소박계’가 중박계로 바뀐 것 외에는 동일하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菘蕒菜), 청주 등이다. 이것은 의례의 「도설(圖說)」조에 나오는 ‘朝夕奠’의 구성과 동일하며,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朝夕奠饌圖)」와도 동일한 것이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注)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면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길경채 1



기, 작설차 1기 등으로 되어 있다. 병은 5가지 중 돌아가며 준비하고, 실과는 여섯 가지 과일 중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설차는 수라간에서 준비해 올린다. 이전의 것과 비교하면 청주와 삼랑축이 빠져있다.

<표 6>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祭奠器數式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實栢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切餅(1器), 大棗(1器), 實榧子(1器), 黃栗(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煎蒸(1器), 雜湯(1器)
삭망전(朔望奠) (別奠 同)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菩萁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菩萁菜(1器), 雀舌茶(1器)
출전 : 『[純元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陳設圖式	

【참고문헌】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규13688)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2 [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63년(고종 즉위) 12월에 승하한 철종(哲宗, 1849~1863)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는 국장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의례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철종 국장 때 빈전은 창경궁의 환경전(歡慶殿)이고, 혼전은 창덕궁의 선정전(宣政殿)이었다. 두 곳 모두에서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례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32.2×25.6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5×3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46)

‘同治二年癸亥十二月日 哲宗大王 春秋館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846)은 춘추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47·奎 13849·奎 14850)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5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도감의 전반적인 일을 기록한 것으로 거행일시(舉行日時), 좌목(座目), 사목(事目) 등 1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책은 「일방의례(一房儀軌)」이며, 제3책은 「이방의례(二房儀軌)」, 「삼방의례(三房儀軌)」, 「별공작의례(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삼방과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2책의 일방의례이다. 「일방의례」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 있어서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63년(고종 즉위) 국장의 설행 과정

철종은 1863년 12월 8일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이에 같은 날에 복(復)을 행하고, 목욕과 습, 소렴을 마쳤다. 11일 대렴하고 성빈하였는데 빈전은 환경전으로 하였다. 다음해 4월 6일에 발인하여 7일에 재궁을 현궁에 내렸다. 같은 날 우주목에 제주하고 반우하여 창덕궁이 선정전에 봉안하였다. 1866년(고종 3) 2월 1일에 답제를 거행하고 동월 6일에 종묘에 부모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본 의례의 「일방의례」의 목차에는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고 제목 아래 세주(細註)로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이라 적혀있다. 그 다음 줄에 곧바로 음식명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형태는 영조의 빈전혼전도감의례부터이다. 그 이전의 『[경종]빈전도감의례』에서는 ‘제전기수식’의 편명 아래 ‘대제별전(大祭別奠)’라는 제전의 명칭이 줄을 달리하여 별도로 있다. 즉,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아래 ‘대제별전’, ‘삭망전’, ‘주다례’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의례에 ‘제전기수식’의 다음 줄에 나오는 음식은 ‘대제’ 때의 음식을 가리킨다. <표 1>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전기수식’이란 이름을 제전명으로 사용하지만 괄호로 ‘대제’를 괄호에 넣어 부기하였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제전의 종류는 대전, 삭망전, 조석전, 주다례 등이다.

<표 1>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제전(祭奠)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實栢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切餅(1器), 大棗(1器), 實榧子(1器), 黃栗(1器), 淸酒(1瓶), 三兩黃燭(3丁)
삭망전(朔望奠)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萹菜, (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萹菜, (1器), 雀舌茶(1器)
출전 : 『[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제전기수식[대전(大祭)]은 소렴, 대렴,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건, 견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중박계, 홍산자, 백산자, 약과, 병류(餅類) 5기, 실과(實果) 6기, 청주 1병, 삼량촉(三兩燭) 3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찬품 구성은 『국조오례서례』, 『국조상례보편』 등에 나오지 않는다. 『국조상례보편』의 「전찬도」와 본 의례에 나온 제전의 찬품을 비교하면 본 의례에는 “탕면(1기), 전증(1기), 잡탕(1기)”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순조, 현종의 빈전혼전도감의 「제전기수식」에 나온 대제의 찬품과 동일하다.

「삭망전」의 찬품으로 15개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증(煎蒸), 잡탕, 청주, 삼량촉이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대제의 찬품에 있어야 될 것들이다. 이러한 중복

역시 『[순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잘못 추가된 것을 제외한 후 이를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비교하면 전자에 보이는 의궤에 보이는 중박계가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소박계로 된 것 외에는 동일하다.

「조석전」은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苦蕒菜), 청주, 삼량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찬품의 내용과 그릇 수는 『국조상례보편』에 나오는 「조석전찬품(朝夕奠饌圖)」의 구성과 동일하다. 한편 의궤에서는 병류(餅類)는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올리고, 실과는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올린다고 하였다.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이하 7종류가 실려있다. 「삭망전」과 마찬가지로 병류 2기는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올리고, 실과 2기는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올린다. 그런데 「주다례」의 찬품을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의 것과 비교하면 본 의궤에 착간이 있는 것 같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작설차 다음에 청주 1병과 삼량축 3정이 더 있다. 「주다례」에 있어야 할 ‘청주 1병, 삼량축 3정’이 「대제」에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 역시 『[순조]빈전혼전도감의궤』와 동일하다.

## 2) 도설의 상차림

<표 2>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麵,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표 3>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餅<外>, 追淸<內>, 餅<內>, 麵<內>,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외>, 實果<외>
1	藥果<外>

출전 : 『[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표 4>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良醬<內>, 芥子<內> 魚<內>, 食醢<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士麻<外>, 沈菜<外>, 良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 『[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祭奠器數式」

<표 5> 虞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麪, 湯,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斝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烏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祭奠器數式

<표 6> 魂殿俗節·朔望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麪, 湯,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罍>, 醴酒<尊>, 醴酒<尊>

출전 : 『[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祭奠器數式

본 의례에는 ‘조석전’, ‘주다례’, 조석상식, 우제찬도, 혼전속절·삭망제찬도 등 5개의 찬도(饌圖)가 있다. ‘조석전’의 도식은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2>은 의례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겼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로(香爐) 및 향합(香盒)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표 3>은 주다례(晝茶禮)의 도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의 특징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는 점이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전기수식에 비해 餅 1기가 모자란다.

<표 4>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시집, 향로, 향합을 제외한 그릇수는 33개이다.

<표 5>의 「우제찬도」는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줄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다. 제상의 8행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과 같다.

<표 6>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 爵 대신에 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것과 동일하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3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78년(고종 15) 5월에 승하한 철종비(哲宗妃) 철인왕후(哲仁王后) 김씨(1837-1878)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하였던 빈전혼전도감에서 기록한 의례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는 국장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의례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제향을 거행하던 곳이다. 순원왕후 국장 때 빈전은 창경궁의 환경전(歡慶殿), 혼전은 문정전(文政殿)을 사용하였는데 전호(殿號)는 효휘(孝徽)였다. 빈전과 혼전 모두에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례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31.5×25.2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4×31.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66)

‘光緒四年戊寅三月日 哲仁王后 春秋館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866)은 춘추관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65·奎 13867·奎 13868·奎 13869·奎 1484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021), 일본궁내청(305-77)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5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목록(目錄), 거행일시(舉行日時), 좌목(座目), 사목(事目), 승전(承傳) 등 도감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였다. 제2책은 「일방의례(一房儀軌)」와 「이방의례(二房儀軌)」의 기록이며, 제 3책은 「삼방의례(三房儀軌)」와 「별공작의례(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삼방과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2책의 일방의례이다. 「일방의례」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설(圖說)이 있어서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78년(고종 15) 철인왕후 국장의 설행 과정

철인왕후는 1878년 5월 12일에 창경궁(昌慶宮) 양화당(養和堂)에서 승하하였다. 같은 날에 복(復)을 하고, 다음날에 목욕과 습(襲), 소렴(小斂)을 거행하고, 15일에 대렴(大斂)하고 성빈(成殯)하였다. 9월 16일에 발인(發引)하여 18일에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에 내렸다. 18일에 창덕궁 문정전에 반우(返虞)하여 혼전(魂殿)에서 상기를 마치고, 1859년(철종 10) 10월 7일에 종묘에 부묘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 도설의 상차림

본 의례의 제2책 「일방의궤(一方儀軌)」의 도설(圖說)조에는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조석상식(朝夕上食)’, ‘우제찬도(虞祭饌圖)’, ‘혼전숙절(魂殿俗節)·삭망제찬도(朔望祭饌圖)’ 등 5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표 1>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麵,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2>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餅<外>, 追淸<內>, 餅<內>, 麵<內>,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外>, 實果<外>
1	藥果<外>
출전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3>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艮醬<內>, 芥子<內> 魚<內>, 食醢<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士麻<外>, 沈菜<外>, 艮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4>虞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麪,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筭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鳥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표 5>魂殿俗節·朔望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麪,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罍>, 醴酒<尊>, 醴酒<尊>

출전 :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陳設圖式

의례에 실린 ‘조석전’ 찬도(饌圖)는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1>은 의례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겼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로(香爐) 및 향함(香盒)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조석전은 빈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표 2>는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의 특징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는 점이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의 종류와 수량이 비슷하지만 제전기수식에 비해 餅 1기가 모자란다.

<표 3>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시접, 향로, 향합을 제외한 그릇수는 33개이다. 이 중에서 외식이 14가지이고, 내식이 16가지이다. 나머지 잔(盞) 3기에는 내, 외의 표시가 없다.

<표 4>의 「우제찬도」는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줄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다. 제상의 8행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과 같다.

<표 5>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 작(爵) 대신에 잔(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것과 동일하다.

## 2) 제전기수(祭奠器數式)의 상차림

본 일방의례의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대제(大祭)’, ‘삭망전(朔望奠)’,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등에 대한 찬품의 기수(器數)가 기록되어있다.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고 제목 아래 세주(細註)로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이라 적혀있다. 그 다음 줄에 곧바로 음식명이 나오고 있다.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대제’ 때의 음식을 가리킨다. <표 1>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전기수식’이란 이름을 제전명으로 사용하지만 괄호로 ‘대제’를 괄호에 넣어 부기하였다. 여기서 대제(大祭)는 소렴, 대렴,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진, 건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에 실린 ‘전찬도(奠饌圖)’의 동일하다. 과일이나 떡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찬품은 중박계 4기, 홍산자 2기, 백산자 2기, 약과 5기, 떡 5기, 과실 6기, 황률 1기, 탕면 1기, 전증 1기, 잡탕 1기, 청주 3병, 삼량축 3정이다. 떡은 송고병(松古餅), 산삼병(山蔘餅), 자박병(自朴餅), 유사병(油沙餅), 절병(切餅) 등 5가지이다. 그리고 탕면(湯麵)의註에 의하면 4월에서 7월까지의 다면(茶麵)을 준비하고 8월부터는 탕면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세주에서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중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동일하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菩萐菜), 청주, 삼량축 등이다. 이것은 의례의 「도설(圖說)」조에 나오는 ‘조석전’의 구성과 동일하며,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朝夕奠饌圖)」와도 동일한 것이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註)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표 6>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祭奠器數式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實柏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切餅(1器), 大棗(1器), 實樅子(1器), 黃栗(1器),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삭망전(朔望奠) (別奠 同)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菩萁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菩萁菜(1器), 雀舌茶(1器)
출전 :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먼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질경채 1기, 작설차 1기 등이다. 청주와 삼랑죽이 보이지 않는다. 병은 5가지 중 돌아가며 준비하고, 실과는 여섯 가지 과일 중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설차는 수라간에서 준비해 올린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4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90년(고종 27) 4월에 승하한 익종비(翼宗妃)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 조씨(趙氏)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는 국장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의례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신정왕후 국장 때 빈전은 경복궁의 태원전(泰元殿), 혼전은 문경전(文慶殿)을 사용하였는데 전호(殿號)는 ‘孝慕’로 정하였다. 두 곳 모두에서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례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31.7×25.5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4.3×31.7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747)

‘光緒十六年庚寅四月日 神貞王后 鼎足山城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747)은 정족산성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 엮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742·奎 13743·奎 13744·奎 13745·奎 13746·奎 14847), 일본궁내청(305-85)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5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거행일시(舉行日時), 좌목(座目), 사목(事目) 등 빈전혼전도감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하였다. 제2책은 「일방의례(一房儀軌)」이며, 제3책은 「이방의례(二房儀軌)」, 「삼방의례(三房儀軌)」, 「별공작의례(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삼방과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2책의 일방의례이다. 「일방의례」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설(圖說)이 있어서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90년(고종 27) 국장의 설행 과정

신정왕후는 1890년 4월 17일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이에 같은 날에 복(復)과 목욕을 행하고 18일에 습과 소렴을 마쳤다. 20일 대렴하고 성빈하였는데 빈전은 태원전으로 하였다. 다음해 8월 29일에 발인하여 30일에 재궁을 현궁에 내렸다. 같은 날 우주목에 제주하고 반우하여 경복궁 문경전에 봉안하였다. 1892년(고종 29) 6월 10일에 종묘에 부묘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 도설의 상차림

본 의례의 제2책 「일방의례(一方儀軌)」의 도설(圖說)조에는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조석상식(朝夕上食)’, ‘우제찬도(虞祭饌圖)’, ‘혼전속절(魂殿俗節)·삭망제찬도(朔望祭饌圖)’ 등 5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표 1>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麵,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2>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櫛, 餅<外>, 追淸<內>, 餅<內>, 麵<內>,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外>, 實果<外>
1	藥果<外>

출전 :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3>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良醬<內>, 芥子<內> 魚<內>, 食鹽<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士麻<外>, 沈菜<外>, 良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4>虞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湯,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筓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鳥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5>魂殿俗節·朔望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湯,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罍>, 醴酒<尊>, 醴酒<尊>	

출전 :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의궤에 실린 ‘조석전’ 찬도(饌圖)는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1>은 의궤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겼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로(香爐) 및 향합(香盒)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조석전은 빈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표 2>는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의 특징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는 점이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의 종류와 수량이 비슷하지만 제전기수식에 비해 餅 1기가 모자란다.

<표 3>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시접, 향료, 향합을 제외한 그릇수는 33개이다. 이 중에서 외식이 14가지이고, 내식이 16가지이다. 나머지 잔(盞) 3기에는 내, 외의 표시가 없다.

<표 4>의 「우제찬도」는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줄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과 비교하면 제 7행에 나오는 면(麪) 1기가 의례에서는 탕(湯)으로 바뀌었다. 나머지는 동일하다.

<표 5>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爵 대신에 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것과 비교하면 제7행에 나오는 면(麪) 1기가 의례에서는 탕으로 바뀌었다. 나머지는 동일하다.

## 2)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본 일방의례의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大祭’, ‘朔望奠’, ‘朝夕奠’, ‘晝茶禮’ 등에 대한 찬품의 기수(器數)가 기록되어있다. 먼저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고 제목 아래 세주(細註)로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이라 적혀있다. 그 다음 줄에 곧바로 음식명이 나오고 있다.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대제’ 때의 음식을 가리킨다. <표 1>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전기수식’이란 이름을 제전명으로 사용하지만 괄호로 ‘대제’을 괄호에 넣어 부기하였다. 여기서 대제(大祭)는 소렴, 대렴,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전, 견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에 실린 ‘전찬도(奠饌圖)’의 동일하다. 과일이나 떡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찬품은 중박계 4기, 홍산자 2기, 백산자 2기, 약과 5기, 떡 5기, 과일 6기, 황률 1기, 탕면 1기, 전증 1기, 잡탕 1기, 청주 3병, 삼량축 3정이다. 떡은 송고병(松古餅), 산삼병(山蔘餅), 자박병(自朴餅), 유사병(油沙餅), 절병(切餅) 등 5가지이다. 그리고 탕면(湯麵)의 註에 의하면 4월에서 7월까지의 다면(茶麵)을 준비하고 8월부터는 탕면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세주에서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중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동일하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苦蕒菜), 청주, 삼량축 등이다. 이것은 의례의 「도설(圖說)」조에 나오는 ‘朝夕奠’의 구성과 동일하며,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朝夕奠饌圖)」와도 동일한 것이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註)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

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표 6>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祭奠器數式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實柏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切餅(1器), 大棗(1器), 實榧子(1器), 黃栗(1器),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삭망전(朔望奠) (別奠 同)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菘萁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菘萁菜(1器), 雀舌茶(1器)
출전 :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면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질경채 1기, 작설차 1기 등이다. 청주와 삼량축이 보이지 않는다. 병은 5가지 중 돌아가며 준비하고, 실과는 여섯 가지 과일 중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설차는 수라간에서 준비해 올린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5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895년(고종 32) 10월(음력 8월)에 일본인에 의해 시해당한 고종비(高宗妃)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 민씨(閔氏)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명성황후는 시해를 당한 후 2달이 지나서야 사망이 공식화되고 국장이 준비되었다. 애초 빈전과 혼전이 경복궁의 태원전과 문경전으로 정해졌지만 둘 다 경운궁으로 옮겨졌다. 이 의례를 통해서 빈전과 혼전 두 곳에서 거행하였던 각종 제전(祭奠)의 찬품을 살펴볼 수 있다.

【서지】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3冊: 圖, 四周雙邊, 半郭 30.3×20.9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4.4×32.9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殯殿都監提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90)

‘開國五百四年乙未十月日 明成皇后 鼎足山城上 殯殿魂殿都監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890)은 정족산성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85·奎 13887·奎 13888·奎 13889·奎 14858), 일본궁내청(305-90)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3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목록(目錄), 거행일시(舉行日時), 좌목(座目), 사목(事目), 승전(承傳) 등 도감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였다. 제2책은 「일방의례(一房儀軌)」와 「이방의례(二房儀軌)」의 기록이며, 제 3책은 「삼방의례(三房儀軌)」와 「별공작의례(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방에서는 제전(祭奠)과 재궁(梓宮)에 관한 일, 명정(銘旌)을 고치는 일, 인산(因山) 때 인마(人馬)를 파정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방에서는 성복(成服)과 혼전의 수리 및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삼방과 별공작(別工作)에서는 국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2책의 일방의례이다. 「일방의례」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설(圖說)이 있어서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895년 국장의 설행 과정

명성황후는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에 일본인의 자객에 의해 절명하였다. 그러나 황후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895년 12월 1일(음력 10월 15일)이었고 이

때부터 국장이 준비되었다. 빈전은 경복궁(景福宮) 태원전(泰元殿), 혼전은 문경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1896년 3월 2일(음력 1월 28일)에 국장은 연기되고 같은 해 9월 4일에 빈전을 경운궁으로 옮긴다. 이후 국장은 여러 차례 연기가 되었다가 대한제국이 성립된 후인 1897년 11월 21일(음력 10월 27일)에 발인하여 다음날 재궁을 안장하고 반우하여 혼전인 경운궁 경소전(慶昭殿)에 신주를 봉안하였다.

##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 1) 도설의 상차림

본 의례의 제2책 「일방의궤(一方儀軌)」의 도설(圖說)조에는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조석상식(朝夕上食)’, ‘우제찬도(虞祭饌圖)’, ‘혼전속절(魂殿俗節)·삭망제찬도(朔望祭饌圖)’ 등 5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표 1>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麵,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2>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櫟, 餅<外>, 追淸<內>, 餅<內>, 麵<內>, 麵<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外>, 實果<外>
1	藥果<外>

출전 :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3> 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櫟,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艮醬<內>, 芥子<內> 魚<內>, 食醢<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士麻<外>, 沈菜<外>, 艮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4> 虞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糲,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斝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鳥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5> 魂殿俗節·朔望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糲,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罍>, 醴酒<尊>, 醴酒<尊>		

출전 :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의례에 실린 ‘조석전’ 찬도(饌圖)는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1>은 의례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겼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로(香爐) 및 향함(香盒)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조석전은 빈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표 2>는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의 특징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는 점이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의 종류와 수량이 비슷하지만 제전기수식에 비해 병(餅) 1기가 모자란다.

<표 3>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시접, 향로, 향함을 제외한 그릇수는 33개이다. 이 중에서 외식이 14가지이고, 내식이 16가지이다. 나머지 잔(盞) 3기에는 내, 외의 표시가 없다.

<표 4>의 「우제찬도」는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줄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과 동일하다.

<표 5>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 작(爵) 대신에 잔(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것과 동일하다.

## 2)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본 일방의례의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대제(大祭)’, ‘삭망전(朔望奠)’,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등에 대한 찬품의 기수(器數)가 기록되어있다. 먼저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고 제목 아래 세주(細註)로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이라 적혀있다. 그 다음 줄에 곧바로 음식명이 나오고 있다.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대제’ 때의 음식을 가리킨다. <표 1>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전기수식’이란 이름을 제전명으로 사용하지만 괄호로 ‘대제’을 괄호에 넣어 부기하였다. 여기서 대제(大祭)는 소림, 대림,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진, 견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에 실린 ‘전찬도(奠饌圖)’의 동일하다. 과일이나 떡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찬품은 중박계 4기, 홍산자 2기, 백산자 2기, 약과 5기, 떡 5기, 과일 6기, 황률 1기, 탕면 1기, 전증 1기, 잡탕 1기, 청주 3병, 삼량축 3정이다. 떡은 송고병(松古餅), 산삼병(山蔘餅), 자박병(自朴餅), 유사병(油沙餅), 절병(切餅) 등 5가지이다. 그리고 탕면(湯麵)의 주(註)에 의하면 4월에서 7월까지의 다면(茶麵)을 준비하고 8월부터는 탕면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세주에서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중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동일하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菩萐菜), 청주, 삼량축 등이다. 이것은 의례의 「도설(圖說)」조에 나오는 ‘朝夕奠’의 구성과 동일하며,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朝夕奠饌圖)」와도 동일한 것이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注)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표 6>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祭奠器數式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實柏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切餅(1器), 大棗(1器), 實榧子(1器), 黃栗(1器), 湯糰(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삭망전(朔望奠) (別奠 同)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糰(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糰(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蕒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糰(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蕒菜(1器), 雀舌茶(1器)
출전 :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면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질경채 1기, 작설차 1기 등이다. 청주와 삼랑축이 보이지 않는다. 병은 5가지 중 돌아가며 준비하고, 실과는 여섯 가지 과일 중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설차는 수라간에서 준비해 올린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6 [孝定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903년(광무 7) 11월에 승하한 헌종의 계비(繼妃) 효정왕후(孝定王后, 1831~1903) 홍씨(洪氏)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궤이다. 국장을 치르기 위해 국장도감, 빈전도감, 혼전도감, 산릉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일이 많아 같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고 이로 인해 의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효정왕후 국장 때 빈전은 경운궁의 흥덕전(興德殿), 혼전은 인소전(仁昭殿)을 사용하였는데 전호(殿號)는 ‘孝惠’로 정하였다. 두 곳 모두에서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궤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孝定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5冊: 圖, 四周雙邊, 半郭 30.6×20.9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3.6×30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殯殿都監提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23)

‘光武七年癸卯十一月日 孝定王后 鼎足山城上 殯殿魂殿都監都廳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823)은 정족산성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819·奎 13822·奎 13824·奎 13828·奎 14843), 일본궁내청(306-2)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궤는 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거행일시(舉行日時), 좌목(座目), 사목(事目) 등 빈전혼전도감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하였다. 제2책은 「일방의궤(一房儀軌)」이며, 제3책은 「이방의궤(二房儀軌)」, 제4책은 「삼방의궤(三房儀軌)」, 제5책은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의궤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2책의 일방의궤이다. 「일방의궤」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설(圖說)이 있어서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903년(광무 7) 국장의 실행 과정

효정왕후는 1903년 11월 15일에 경운궁 수인당에서 승하하였다. 이에 같은 날에 복(復)과 목욕을 행하고 16일에 소렴을 거행하고, 18일에 대렴 후 성빈하였다. 1904년 4월

28일에 산릉에 도착하여 다음날에 재궁을 현궁에 내렸다. 그리고 우주목에 제주하고 반우하여 경운궁 인소전에 봉안하였다. 1906년(광무 10) 2월 18일에 종묘에 부모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 도설의 상차림

본 의례의 제2책 「일방의궤(一方儀軌)」의 도설(圖說)조에는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조석상식(朝夕上食)’, ‘우제찬도(虞祭饌圖)’, ‘혼전속절(魂殿俗節)·삭망제찬도(朔望祭饌圖)’ 등 5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표 1>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麪,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2>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櫟, 餅<外>, 追淸<內>, 餅<內>, 麪<內>, 麪<外>, 湯<內>
4	肉<內>, 醋醬,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外>, 實果<外>
1	藥果<外>

출전 :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3> 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櫟,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艮醬<內>, 芥子<內> 魚<內>, 食醢<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士麻<外>, 沈菜<外>, 艮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4> 虞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糲,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罇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鳥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5> 魂殿俗節·朔望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糲,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罍>, 醴酒<尊>, 醴酒<尊>		

출전 :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의례에 실린 ‘조석전’ 찬도(饌圖)는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1>은 의례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겼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로(香爐) 및 향함(香盒)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조석전은 빈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표 2>는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의 종류와 수량이 비슷하지만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 비해 병(餅) 1기가 모자란다.

<표 3>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시접, 향로, 향함을 제외한 그릇수는 33개이다. 이 중에서 외식이 14가지이고, 내식이 16가지이다. 나머지 잔(盞) 3기에는 내, 외의 표시가 없다.

<표 4>의 「우제찬도」는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줄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

리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의 구성과 동일하다.

<표 5>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 작(爵) 대신에 잔(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찬품의 구성과 동일하다.

## 2)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본 일방의례의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大祭’, ‘朔望奠’, ‘朝夕奠’, ‘晝茶禮’ 등에 대한 찬품의 기수(器數)가 기록되어있다. 먼저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고 제목 아래 세주(細註)로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이라 적혀있다. 그 다음 줄에 곧바로 음식명이 나오고 있다.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대제’ 때의 음식을 가리킨다. <표 1>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전기수식’이란 이름을 제전명으로 사용하지만 괄호로 ‘대제’를 괄호에 넣어 부기하였다. 여기서 대제(大祭)는 소림, 대림,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전, 견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에 실린 ‘진찬도(奠饌圖)’의 동일하다. 과일이나 떡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찬품은 중박계 4기, 홍산자 2기, 백산자 2기, 약과 5기, 떡 5기, 과실 6기, 황률 1기, 탕면 1기, 전증 1기, 잡탕 1기, 청주 3병, 삼량축 3정이다. 떡은 송고병(松古餅), 산삼병(山蔘餅), 자박병(自朴餅), 유사병(油沙餅), 절병(切餅) 등 5가지이다. 그리고 탕면(湯麵)의 註에 의하면 4월에서 7월까지의 다면(茶麵)을 준비하고 8월부터는 탕면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세주에서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중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동일하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苦蕒菜), 청주, 삼량축 등이다. 이것은 의례의 「도설(圖說)」조에 나오는 ‘朝夕奠’의 구성과 동일하며,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朝夕奠饌圖)」와도 동일한 것이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註)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표 6>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祭奠器數式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實柏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切餅(1器), 大棗(1器), 實榧子(1器), 黃栗(1器), 湯麵(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삭망전(朔望奠) (別奠 同)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麵(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麵(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蕒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麵(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蕒菜(1器), 雀舌茶(1器)
출전 :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면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질경채 1기, 작설차 1기 등이다. 청주와 삼랑축이 보이지 않는다. 병은 5가지 중 돌아가며 준비하고, 실과는 여섯 가지 과일 중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설차는 수라간에서 준비해 올린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7 [純明妃] 殯殿魂殿都監儀軌

【정의】

1904년(광무 7) 9월에 사망한 황태자비(皇太子妃) 민씨(1872~1904)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황태자비 민씨는 순종의 부인으로 뒤에 순명황후(純明皇后)로 추존된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황태자비의 빈전은 경운궁의 흥덕전(興德殿)이고, 혼전은 문경전(文慶殿)을 사용하였는데 전호(殿號)는 ‘의효(懿孝)’로 정하였다. 당시엔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빈소를 빈궁이 아닌 빈전이라 불렀다. 혼전도 마찬가지이다. 빈전과 혼전에서는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례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純明妃] 殯殿魂殿都監儀軌  
線裝. 5冊: 圖, 四周雙邊, 半郭 30.4×20.9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43.6×29.7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殯殿都監提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906)

‘光武八年甲辰九月日 純明妃 鼎足山城上 殯殿魂殿都監廳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3906)은 정족산성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908·奎 13909·奎 13910·奎 13911·奎 14859), 일본궁내청문서(305-102)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거행일시(舉行日時), 좌목(座目), 사목(事目) 등 빈전혼전도감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하였다. 제2책은 「일방의례(一房儀軌)」이며, 제3책은 「이방의례(二房儀軌)」, 제 4책은 「삼방의례(三房儀軌)」, 제 5책은 「별공작의례(別公作儀軌)」로 이루어져 있다. 의례 가운데 국장의 상차림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2책의 일방의례이다. 「일방의례」에는 감선식(監膳式),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진설)도설(圖說)이 있어서 제전의 종류와 각각의 찬품 구성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904년(광무 8) 국장의 실행 과정

황태자비는 1904년 9월 28일 경운궁 강대실에서 승하하여 당일에 복의(復儀)를 거행하였다. 10월 1일에 목욕과 습, 그리고 소렴을 거행하고, 3일에 대렴 후 성빈하였다. 11월 28일에 발인하여 다음날 재궁을 현궁에 내렸다. 그리고 우주목에 제주하고 반우하여 경운궁

문경전에 봉안하였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도설의 상차림

본 의례의 제2책 「일방의궤(一方儀軌)」의 도설(圖說)조에는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조석상식(朝夕上食)’, ‘우제찬도(虞祭饌圖)’, ‘혼전속절(魂殿俗節)·삭망제찬도(朔望祭饌圖)’ 등 5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표 1>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麪,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純明妃]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2>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櫟, 餅<外>, 追淸<內>, 餅<內>, 麪<內>, 麪<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外>, 實果<外>
1	藥果<外>

출전 : 『[純明妃]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3> 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櫟,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艮醬<內>, 芥子<內> 魚<內>, 食醢<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土麻<外>, 沈菜<外>, 艮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 『[純明妃]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4> 虞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糲,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筓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鳥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純明妃]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표 5> 魂殿俗節·朔望祭饌圖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糲,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罍>, 醴酒<尊>, 醴酒<尊>		

출전 : 『[純明妃]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

의례에 실린 ‘조석전’ 찬도(饌圖)는 제상(祭床), 향안(香案), 준상(樽床)의 구별 없이 한 칸에 그리고 있다. <표 1>은 의례 도식의 방식을 존중하여 제일 하단부터 행의 순서를 매겼다.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로(香爐) 및 향합(香盒)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석전과 동일하다. 조석전은 빈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표 2>는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설은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의 종류와 수량이 비슷하지만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 비해 병(餅) 1기가 모자란다.

<표 3>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시접, 향로, 향합을 제외한 그릇 수는 33개이다. 이 중에서 외식이 14가지이고, 내식이 16가지이다. 나머지 잔(盞) 3기에는 내, 외의 표시가 없다.

<표 4>의 「우제찬도」는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줄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의 구성과 동일하다.

<표 6>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 爵 대신에 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찬품의 구성과 동일하다.

## 2)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본 일방의례의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大祭’, ‘朔望奠’, ‘朝夕奠’, ‘晝茶禮’ 등에 대한 찬품의 기수(器數)가 기록되어있다. 먼저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이란 항목이 있고 제목 아래 세주(細註)로 ‘대제진향동(大祭進香同)’이라 적혀있다. 그 다음 줄에 곧바로 음식명이 나오고 있다. ‘제전기수식’이란 편명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대제’ 때의 음식을 가리킨다. <표 1>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전기수식’이란 이름을 제전명으로 사용하지만 괄호로 ‘대제’을 괄호에 넣어 부기하였다. 여기서 대제(大祭)는 소렴, 대렴,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전, 견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에 실린 ‘전찬도(奠饌圖)’의 동일하다. 과일이나 떡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찬품은 중박계 4기, 홍산자 2기, 백산자 2기, 약과 5기, 떡 5기, 과일 6기, 황률 1기, 탕면 1기, 전증 1기, 잡탕 1기, 청주 3병, 삼량축 3정이다. 떡은 송고병(松古餅), 산삼병(山蔘餅), 자박병(自朴餅), 유사병(油沙餅), 절병(切餅) 등 5가지이다. 그리고 탕면(湯麵)의 註에 의하면 4월에서 7월까지의 다면(茶麵)을 준비하고 8월부터는 탕면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세주에서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중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동일하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 병, 수정과, 세면(細麵), 잡탕, 전증(煎蒸), 실과(實果), 길경채(苦荬菜), 청주, 삼량축 등이다. 이것은 의례의 「도설(圖說)」조에 나오는 ‘朝夕奠’의 구성과 동일하며,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朝夕奠饌圖)」와도 동일한 것이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註)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표 6>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祭奠器數式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松古餅(1器), 山蔘餅(1器), 自朴餅(1器), 油沙餅(1器), 實柏子(1器), 實榛子(1器), 乾柿(1器), 切餅(1器), 大棗(1器), 實榧子(1器), 黃栗(1器), 湯糲(1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黃燭(3丁)
삭망전(朔望奠) (別奠 同)	藥果(3器), 中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糲(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細糲(1器), 雜湯(1器), 煎蒸(1器), 實果(3器), 苦蕒菜(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糲(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苦蕒菜(1器), 雀舌茶(1器)
출전 : 『[純明妃]殯殿魂殿都監儀軌』 「一房儀軌」 祭奠器數式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면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질경채 1기, 작설차 1기 등이다. 청주와 삼랑축이 보이지 않는다. 병은 5가지 중 돌아가며 준비하고, 실과는 여섯 가지 과일 중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설차는 수라간에서 준비해 올린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육(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8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정의】

1919년 1월에 사망한 고종(高宗, 1863~1907)의 국장(國葬)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조선시대 도감과 달리 일제시기에는 주감(主監)이 설치되어 국장을 담당하였다. 고종의 빈전과 혼전은 경운궁의 함녕전(含寧殿)에 설치되었는데 전호(殿號)는 ‘효덕(孝德)’이었다. 빈전과 혼전에서는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례를 통해 국장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線裝. 2冊: 四周雙邊, 半郭 26.9 × 20.8cm,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朱魚尾; 42.3 × 30.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謨堂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919)

반곽 12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2918)에 한 질 더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상, 하 2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은 시일(時日), 좌목(座目), 어친척이하제집사급고문가계원(御親戚以下諸執事及顧問各係員), 사무분장내규(事務分掌內規) 등 17개 항목이 있고, 하권에는 거행제구(舉行諸具), 물품조성(物品造成) 등 8개 항목이 있다. 국장 중 상차림에 관한 항목인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과 진설도식(眞設圖式)은 상권에 있다. 이전의 의례와 달리 다른 도설과 구별하여 ‘진설도식’이라 묶어서 제전기수식 아래에 두었다.

【음식관련내용】

1. 1919년 국장의 설행 과정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경운궁 함녕전에서 승하하여 당일에 복의(復儀)를 거행하였다. 1월 24일에 목욕과 습, 그리고 소렴을 거행하고, 26일에 대렴 후 성빈(成殯)하였다. 3월 3일에 발인하여 국장식(國葬式)을 행하고 산릉에 도착하여 다음날 재궁을 현궁에 내렸다. 3월 5일에 반우하여 경운궁 함녕전에 신주를 모셨다.

2. 빈전혼전에서의 상차림

1)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상권의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龔奠以下’, ‘朝夕奠’, ‘晝茶禮’, ‘朔望奠’, ‘虞祭卒哭’ 등에 대한 찬품의 기수(器數)가 기록되어 있다. ‘습전이하’는 조선후기 빈전혼전도감의례에서 ‘제전기수식’에 나오는 大祭를 가리킨다. 즉 소림, 대림,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진, 건진, 노제, 하산릉전, 천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에 실린 ‘전찬도(奠饌圖)’나 조선후기 빈전혼전도감에 나오는 대제의 찬품보다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찬품은 중박계 4기, 홍산자 2기, 백산자 2기, 약과 5기, 과실 6기, 떡 5기, 청주 1병, 삼량축 3정이다. 『국조상례보편』과 비교하면 탕, 면, 전증 등이 보이지 않는다. 떡은 송고병(松古餅), 경단병(瓊團餅), 산삼병(山蔘餅), 자박병(自朴餅), 유사병(油沙餅) 등 5가지인데, 조선후기와 비교하면 절병(切餅)은 사라지고 경단병이 보인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藥果), 병(餅), 수정과(水正果), 실과(實果), 세면(細麵), 채(菜), 잡탕(雜湯), 전증(煎蒸), 청주(淸酒), 삼량축(三兩燭) 등이다. 이것은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朝夕奠饌圖)」와도 동일한 것이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注)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면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채 1기, 작설차, 청주(1餅), 삼량축(3정) 등이다. 조선후기 빈전혼전도감의례에는 길경채(桔梗菜)라고 하여 채의 구체적인 종류를 밝혔으나 여기에는 ‘채’라고만 하였다. 후기 의례에 ‘淸酒 1병, 삼량축 3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과 같이 청주와 삼량축이 포함되어 있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세주에서 속절(俗節)과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소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동일하다.

조선이나 대한제국기 빈전혼전도감의 도설과 달리 이 의례에는 도설조에 ‘우제졸곡’이란 항목이 있다. 이것은 우제와 졸곡, 그리고 사시, 납제, 속절, 연제, 상제, 담제도 이와 같이 지낸다. 다만 속절에서는 울금주와 폐가 없다. 우제의 찬품은 조선후기 영조대의 『국조상례보편』 「도설」조에 기재된 음식 종류와 가지수가 동일하다. 탕 5그릇은 전증(煎蒸), 잡탕(雜湯), 장육(獐肉), 생치(生雉), 연경(軟肉) 등이다. 속편 3그릇은 장두(獐頭), 장육(獐肉), 장내(獐內) 등이다.

<표 1>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祭奠器數式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實柏子(1器), 實榛子(1器), 實榧子(1器), 乾柿(1器), 大棗(1器), 黃栗(1器), 自朴餅(1器), 山蔘餅(1器), 油沙餅(1器), 松古餅(1器), 淸酒(1瓶), 三兩黃燭(3丁)
조석전(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實果(3器), 細麵(1器), 菜(1器), 雜湯(1器), 煎蒸(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주다례(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麵(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菜(1器), 雀舌茶(1器), 淸酒(1瓶), 三兩燭(3丁)
삭망전(朔望奠) (別奠 同)	藥果(3器), 小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細麵(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淸酒(3瓶), 三兩燭(3丁)



虞祭卒哭	藥果(5器), 中朴桂(4器), 散子(4器), 餅(6器), 湯(5器), 實果(6器), 醴酒(3瓶), 鬱金酒(1瓶), 白幣(1丹), 炙(3器), 魚煎(1器), 熟肉片(3器), 細麵(1器), 三兩燭(3丁)
출전 :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祭奠器數式	

2) 진설도식(陳設圖式)의 상차림

상권의 「진설도식」에는 ‘조석상식(朝夕上食)’, ‘우제(虞祭)’, ‘조석전(朝夕奠)’, ‘주다례(晝茶禮)’, ‘혼전속절(魂殿俗節)·삭망제(朔望祭)’ 등 5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표 2> 朝夕上食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湯<外>, 湯<內>, 水刺<內>, 水刺<外>
4	肉湯<內>, 炙<內>, 魚湯<內>
3	佐飯<內>, 醢<內>, 肉<內>, 醋醬<內>, 菜<內>, 沈菜<內>, 良醬<內>, 芥子<內> 魚<內>, 食醢<內>
2	(佐飯)海衣<外>, (佐飯)多土麻<外>, 沈菜<外>, 良醬<外>, 湯<外>, 炙<外>, 湯<外>, 生菜<外>, 熟菜<外>, 牛毛<外>, 雀舌茶<外>
1	實果<內>, 盒, 爐, 實果<外>
출전 :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說	

<표 3> 虞祭 陳設圖式

	행	찬품	
祭床	8	爵, 爵, 爵	
	7	糲,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尊床		秋冬及臘	春夏
	4	明水<罍彝>, 鬱鬯<黃彝>	明水<鷄彝>, 鬱鬯<鳥彝>
	3	明水<著尊>, 醴齊<著尊>	明水<犧尊>, 醴齊<犧尊>
	2	明水<壺尊>, 盎齊<壺尊>	明水<象尊>, 盎齊<象尊>
	1	玄酒<山罍>, 醴酒<山罍>	玄酒<山罍>, 醴酒<山罍>
출전 :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說			

<표 4> 朝夕奠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餅, 餅, 糲, 湯, 煎蒸
5	蔬菜, 正果
4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2	燭, 香爐, 香盒, 燭
1	尊

출전 :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說

<표 5> 晝茶禮 陳設圖式

행	찬품
6	盞, 盞, 盞
5	匙楪, 餅<外>, 迫清<內>, 餅<內>, 糲<內>, 糲<外>, 湯<內>
4	肉<內>, 醋醬<內>, 芥子<內>, 魚<內>
3	菜<外>, 水正果<外>, 雀舌茶<外>
2	實果<內>, 實果<內>, 實果<外>, 實果<外>
1	藥果<外>

출전 :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說

<표 6> 魂殿俗節·朔望祭 陳設圖式

	행	찬품
祭床	8	盞, 盞, 盞
	7	糲, 湯, 湯, 湯, 湯, 湯
	6	熟肉, 熟肉, 熟肉, 肉炙, 肉炙, 肉炙, 魚煎
	5	餅, 餅, 餅, 餅, 餅, 餅
	4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實果
	3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2	散子, 散子, 散子, 散子
	1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小朴桂
尊床		醴酒<山疊>, 醴酒<尊>, 醴酒<尊>

출전 :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說

<표 2>의 조석상식은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찬품 옆에 작은 글씨로 ‘내(內)’, ‘외(外)’의 표기가 있다. ‘내’는 대내(大內)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리키며 ‘외’는 관(官)에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시접, 향로, 향합을 제외한 그릇수는 33개이다. 이중에서 외식이 15가지이고, 내식이 15가지이다. 나머지 잔(盞) 3기에는 내, 외의 표시가 없다.

<표 3>의 우제진설도식은 축, 향로, 향합, 축점을 제외하고 찬품만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후 거행하는 우제, 졸곡, 사시제, 납향, 분황제, 연제, 상제, 담제 때에 올리는 제찬이다. 하단의 준소상에 올려지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조에 나오는 찬품의 구성과 동일하다.

<표 4>의 조석전진설도에서 하단 제 1행은 준상을 나타낸 것이고, 제 2행은 향안의 향

로(香爐) 및 향합(香盒)과 그 양쪽의 초를 표기한 것이다. 제 3행부터가 제상을 나타낸다. 제상의 진실 찬품은 '제전기수식'의 조식전과 동일하다. 조식전은 빈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표 5>는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제전기수식에 나온 찬품과 '외'로 표기된 것의 종류와 수량이 비슷하지만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 비해 병(餅) 1기가 모자란다.

<표 6>의 「혼전속절·삭망제찬도」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속절은 속제(俗祭)에 속한 것으로 유밀과 중심의 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그릇도 작(爵) 대신에 잔(盞)을 사용하였다. 8행의 찬품은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찬품의 구성과 동일하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3-39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정의】

1926년 4월에 사망한 순종(純宗, 1907~1910)의 국장을 치루기 위해 설치한 빈전과 혼전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빈전은 재궁을 능에 안장하기 전까지 모시는 곳이며, 혼전은 재궁을 안장한 후 상기(喪期) 동안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조선시대 도감과 달리 일제시기에는 주감(主監)이 설치되어 국장을 담당하였다. 순종의 빈전과 혼전은 창덕궁의 선정전(宣政殿)에 설치하였다. 빈전과 혼전에서는 전(奠)이나 제(祭), 그리고 상식(上食)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례를 통해 상례 중 상차림을 볼 수 있다.

【서지】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線裝. 2冊 : 彩色插圖, 四周雙邊 半郭 26.6 ×20.9 cm, 朱絲欄, 半葉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朱魚尾 ; 41.6×29.0 cm  
인장정보 奉謨堂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K2-2975)

권수제(卷首題)는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이며, 가선이 둘러진 제침(題簽)에 필사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상, 하 2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은 시일(時日), 좌목(座目), 어친척이하제 집사급고문가계원(御親戚以下諸執事及顧問各係員), 사무분장내규(事務分掌內規) 등 17개 항목이 있고, 하권에는 거행제구(舉行諸具), 물품조성(物品造成) 등 8개 항목이 있다. 국장 중 상차림에 관한 항목인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과 진설도식(眞設圖式)은 상권에 있다.

【음식관련내용】

1. 1926년 국장의 실행 과정

순종은 1926년 4월 26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여 당일에 복의(復儀)를 거행하였다. 4월 27일에 목욕과 습, 그리고 소렴을 거행하고, 29일에 대렴 후 성빈(成殯)하였다. 6월 9일에 발인하여 국장식(國葬式)을 행하고 산릉에 도착하여 다음날 재궁을 현궁에 내렸다. 6월 12일에 반우하여 창덕궁 선정전에 신주를 모셨다.

2. 빈전 · 혼전에서의 상차림

1)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의 상차림

상권의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에는 ‘襲奠以下’, ‘朝夕奠’, ‘晝茶禮’, ‘朔望奠’, ‘虞祭卒哭’ 등에 대한 찬품의 기수(器數)가 기록되어 있다. ‘습전이하’는 조선후기 빈전혼전도감의례에서 ‘제전기수식’에 나오는 大祭를 가리킨다. 즉, 소렴, 대렴, 성빈, 성복, 진향, 청시종묘, 계빈, 조전, 견전, 노제, 하산릉전, 천전, 입주전, 안릉전 등과 같이 상례의 주요 절차를 거

행할 때에 올리는 음식이다. 음식의 구성은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에 실린 ‘진찬도(奠饌圖)’나 조선후기 빈전혼전도감에 나오는 대체의 찬품보다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찬품은 중박계 4기, 홍산자 2기, 백산자 2기, 약과 5기, 과실 6기, 떡 5기, 청주 1병, 삼량축 3정이다. 『국조상례보편』과 비교하면 탕, 면, 전증 등이 보이지 않는다. 떡은 송고병(松古餅), 경단병(瓊團餅), 산삼병(山蔘餅), 자박병(自朴餅), 유사병(油沙餅) 등 5가지인데, 조선후기와 비교하면 절병(切餅)은 사라지고 경단병이 보인다.

조석전 찬품의 종류는 약과, 병, 수정과, 실과(實果), 세면(細麵), 채(菜), 잡탕, 전증(煎蒸), 청주, 삼량축 등이다. 이것은 『국조상례보편』의 「조석전찬도(朝夕奠饌圖)」와도 동일한 것이다. 병(餅) 2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세주(細注)에서 5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과(實果) 3기 역시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며 준비한다고 하였다.

‘주다례(晝茶禮)’의 찬품은 약과 1기, 병 2기, 면 1기, 수정과 1기, 실과 2기, 채 1기, 작설차, 청주(1餅), 삼량축(3정) 등이다. 조선후기 빈전혼전도감의례에는 길경채(桔梗菜)라고 하여 채의 구체적인 종류를 밝혔으나 여기에는 ‘채’라고만 하였다. 후기 의례에 ‘清酒 1병, 삼량축 3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과 같이 청주와 삼량축이 포함되어 있다.

‘삭망전’은 혼전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다. 세주에서 속절(俗節)과 별전(別奠)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삭망전의 찬품은 “약과(3기), 소박계(4기), 산자(2기), 병(4기), 면(1기), 실과(5기), 전증(1기), 잡탕(1기), 청주(3병), 삼량축(3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의 「삭망전찬도(朔望奠饌圖)」와 동일하다.

조선이나 대한제국기 빈전혼전도감의 도설과 달리 이 의례에는 도설조에 ‘우제졸곡’이란 항목이 있다. 이것은 우제와 졸곡, 그리고 사시, 납제, 속절, 연제, 상제, 담제도 이와 같이 지낸다. 다만 속절에서는 울금주와 폐가 없다. 우제의 찬품은 조선후기 영조대의 『국조상례보편』 「도설」조에 기재된 음식 종류와 가지수가 동일하다. 탕 5그릇은 전증(煎蒸), 잡탕(雜湯), 장육(獐肉), 생치(生雉), 연경(軟肉) 등이다. 숙편 3그릇은 장두(獐頭), 장육(獐肉), 장내(獐內) 등이다.

<표 1> 祭奠器數式

제전의 종류	찬품
祭奠器數式 [大祭]	中朴桂(4器), 紅散子(2器), 白散子(2器), 藥果(5器), 實柏子(1器), 實榛子(1器), 實樺子(1器), 乾柿(1器), 大棗(1器), 黃栗(1器), 自朴餅(1器), 山蔘餅(1器), 油沙餅(1器), 松古餅(1器), 清酒(1瓶), 三兩黃燭(3丁)
朝夕奠	藥果(3器), 餅(2器), 水正果(1器), 實果(3器), 細麵(1器), 菜(1器), 雜湯(1器), 煎蒸(1器), 清酒(1瓶), 三兩燭(3丁)
晝茶禮	藥果(1器), 餅(2器), 細麵(1器), 水正果(1器), 實果(2器), 菜(1器), 雀舌茶(1器), 清酒(1餅), 三兩燭(3丁)
朔望奠 <別奠同>	藥果(3器), 小朴桂(4器), 散子(2器), 餅(4器), 細麵(1器), 實果(5器), 煎蒸(1器), 雜湯(1器), 清酒(3瓶), 三兩燭(3丁)
虞祭卒哭	藥果(5器), 中朴桂(4器), 散子(4器), 餅(6器), 湯(5器), 實果(6器), 醴酒(3瓶), 鬱金酒(1瓶), 白幣(1丹), 炙(3器), 魚煎(1器), 熟肉片(3器), 細麵(1器), 三兩燭(3丁)

출전 :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上, 祭奠器數式

2) 진설도식(陳設圖式)의 상차림

상권의 「진설도식」에는 ‘빈전조석전(朝夕奠)[外饌]’, ‘殯殿 魂殿朝夕上食[內饌]’, ‘殯殿晝茶禮[外饌]’, ‘魂殿晝茶禮[內饌]’, ‘우제(虞祭)’, ‘속절(俗節)·삭망제(朔望祭)’ 등 5건의 찬도(饌圖)가 있다. 각 제향명 아래 ‘외찬’, ‘내찬’ 등의 세주가 부기되어 있다. 고종 국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찬과 외찬을 합설하였는데 이때에는 제향마다 분리되어 음식이 제공되었다.

<표 2> 殯殿 朝夕奠[外饌]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糲
5	湯, 菜, 蒸
4	水正果
3	餅, 餅
2	果, 果, 果
1	藥果, 藥果, 藥果

출전 :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式

<표 3> 殯殿 魂殿 朝夕上食[內饌] 陳設圖式

행	찬품
6	匙櫟, 湯, 盞, 盞, 盞, 茶, 水刺, 水刺
5	生果, 花菜, 醋菜, 沈菜, 菁醢, 艮醬, 助治, 醬菜
3	佐飯, 菜蔬, 片肉, 炙, 煎油魚, 醬肉, 醢
1	香爐, 香盒

출전 :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式

<표 4> 殯殿晝茶禮[外饌] 陳設圖式

행	찬품
7	盞, 盞, 盞
6	糲
5	餅, 餅
4	菜
3	果, 果
2	水正果
1	藥果<外>

출전 :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式

<표 5> 魂殿晝茶禮[內饌] 陳設圖式

행	찬품
4	匙櫟, 盞, 盞, 盞, 糲
3	花菜, 醋醬, 芥子, 白清, 湯
2	生果, 片肉, 炙, 煎油魚, 餅
1	香爐, 香盒

출전 :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式

<표 6> 虞祭 陳設圖式

행	찬품
9	匙楪, 糲
8	盞, 盞, 盞
7	雜湯, 煎蒸, 猪肉湯, 生鮮湯, 軟肉湯
6	生鮮炙, 生鷄炙, 猪肉炙, 猪頭熟肉, 猪肉熟肉, 猪肉熟肉, 魚煎
5	自朴餅, 敬團餅, 油餅, 山蔘餅, 切餅, 霜花餅
4	乾栗, 大棗, 胡桃(去殼), 榧(去殼), 松實(去殼), 乾柿
3	白散子, 白散子, 紅散子, 紅散子
2	藥果, 藥果, 藥果, 藥果, 藥果
1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中朴桂

출전 :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式

<표 7> 俗節·朔望祭 陳設圖式

행	찬품
8	匙楪, 糲
7	盞, 盞, 盞
6	雜湯, 煎蒸, 猪肉湯, 生鮮湯, 軟肉湯
5	生鮮炙, 生鷄炙, 猪肉炙, 醋薑, 猪肉熟肉, 猪頭熟肉, 猪肉熟肉, 魚煎
4	煮朴餅, 敬團餅, 油餅, 白淸, 山蔘餅, 切餅
3	乾栗, 大棗, 胡桃(去殼), 榧(去殼), 松實(去殼)
2	白散子, 白散子, 紅散子, 紅散子
1	中朴桂, 藥果, 藥果, 藥果, 中朴桂

출전 :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上, 陳設圖式

「진설도식」에 있는 ‘빈전조석전’의 도식을 살펴보면 이전 고종 때의 진설도식과 달리 준소와 향로 등의 기물을 제외하고 음식만을 나타내었다. 찬품의 종류는 고종대 ‘조석전’과 동일하지만 찬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찬의 앞쪽에 면(糲) 한 가지가 한 줄을 차지한 것이나 병(餅)의 위치 등이 이전의 것과 다른 점이다. 조석전은 빈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을 가리킨다.

<표 3>의 ‘빈전혼전조석상식’은 빈전과 혼전에서 아침저녁의 식사 때 올리는 음식이다. 고종의 국장까지는 내찬과 외찬이 같이 있었는데 순종 국장에서는 내찬만을 올렸다. 그러나 이전에 대내에서 올리던 것만을 진설한 것이 아니다. 이전의 조석상식 찬품의 수가 잔을 포함하여 33 그릇이었지만 순종 국장에서는 23그릇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표 4>와 <표 5>는 빈전과 혼전의 주다례(晝茶禮)의 찬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다례를 빈전과 혼전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외찬과 내찬으로 구분한 것은 순종 국장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빈전과 혼전의 찬품은 이전 주다례 찬품에서 합설(合設)하였던 외찬과 내찬을 나누어 각설한 형태이지만 그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표 6>의 우제진설도식에 나오는 찬품의 종류는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탕, 병, 적 등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기로는 작(爵)이 잔(盞)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진설의 방식에서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이전의 우제 도식에서는 2행에 산자가 놓이고 3행에 약과가 놓였지만 여기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면(糲)의 위치도 바뀌었다. 「제전



기수식」의 ‘우제줄곡’에서 숙편육(熟片肉)에 노루고기[獐]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여기서는 돼지고기[猪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표 6>의 ‘혼전속절·삭망제’는 혼전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동지의 명절 때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찬을 가리킨다. 이전의 국장 속절 진설과 비교하면 유밀과의 수량이 줄어들었다. 「제전기수식」에서는 우제와 속절제의 찬품 구성이 동일하지만 속절에서는 울금주와 폐백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설도식에서는 속절제의 중박계와 약과의 숫자가 우제의 것보다 적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2008.

**【집필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 4. 迎 接



【자료명】 Ⅲ-4-01 迎接都監宴享色儀軌(1634)

【정의】

1634년(인조 12) 6월에 조선에 들어온 명(明) 사신(史臣) 영접시 베푼 연향(宴享) 관련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연향색(宴享色)이란 사신에게 베푸는 연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때 명 사신의 입경(入京) 목적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왕세자 책봉을 위한 것이었다. 본 의례에는 사신 일행이 6월 20일에 입경하여 21일의 하마연(下馬宴), 22일의 인정전 회례연(回禮宴), 24일의 왕세자 남별궁 별연(別宴), 29일의 남별궁 익일연(翌日宴), 7월 2일의 인정전 회례연, 7월 4일의 왕세자 남별궁연, 7월 5일의 남별궁 상마연(上馬宴), 7월 6일의 모화관 전연(餞宴) 등의 상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절차에서 예규대로 차려지는 각각의 상차림을 본 의례를 통해 볼 수 있다. 각 연향의 내용은 해당 날짜의 「품목(稟目)」에 기록되어 있다.

【서지】

迎接都監宴享色儀軌  
線裝. 1冊(99張) : 四周單邊, 半郭 37.5×27.7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0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6×33.9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567)

‘迎接都監 太白山上 宴享色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4567)은 태백산사고 분상용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례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568)에 한 질 더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1책 9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록은 없고 내지 첫 면에 “승정칠년 칠월 일 영접도감연향색의례(崇禎7年 7月 日 迎接都監宴享色儀軌)”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시작 된다. 가장 앞부분에는 조선에 들어온 명 사신의 명단과 원수(員數)를 기록하였고 6월 20일 입경 이후 7월 8일 모화관 전연(餞宴)까지의 일정을 날짜별로 적어 놓았다. 일정에 이어 담당관의 명단을 적은 좌목(座目), 도감사목(都監事目), 감결(甘結), 품목(稟目), 이문(移文), 계사(啓辭)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관련내용】

사신이 머무는 동안 베풀어지는 연향은 하마연(下馬宴), 인정전 회례연(回禮宴), 남별궁 별연(別宴), 남별궁 익일연(翌日宴), 왕세자 남별궁연(南別宮宴), 남별궁 상마연(上馬宴), 모화관 전연(餞宴) 등이다. 이들은 4작(酌)에서 8작(酌)에 이르는 규모의 연향이다. 이들 연향에 보이는 상차림 가운데 하마연과 상마연을 중심으로 상차림별 음식의 내용을 정리해 본

다.

사신들의 입경을 환영하는 연향인 하마연은 6월 21일에, 귀국을 위한 송별연인 상마연은 7월 5일에 각각 행해졌다. 하마연과 상마연의 상차림은 같다. 각 상차림과 재료, 분량을 행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下馬宴, 上馬宴 主床

行	饌品과 器數	재료와 분량
1行	中朴桂(4器씩 16器)	每器 : 上末 1斗씩 16斗, 淸蜜 1升5合, 油 7合씩 1斗7升2合
2行	藥果(5器씩 20器)	每器 : 上末 6升씩 12斗, 淸蜜 1升씩 2斗, 油 6合씩 1斗2升, 黑湯 3合씩 6升
3行	六色實果(24器)	每器 : 實栢子 3升씩 1斗2升, 實榧子 2升씩 8介, 粉上末 7合2夕씩 2升8合8夕, 實榛子 2升씩 8介, 粉上末 7合2夕씩 2升8合8夕, 大棗 2升5合씩 1斗, 俠實栢子 1合5夕씩 6合, 黃栗 2升씩 8升, 乾柿子 1貼씩 4貼, 俠實栢子 1合5夕씩 6合 출전: 『迎接都監宴享色儀軌』 6월 21일 稟目

<표 1>과 같이 하마연(상마연)의 찬품은 중박계 4기씩 16기, 약과 5기씩 20기, 육색실과 24기로 차려지며 중박계와 약과는 재료와 분량이 각각 명기되어 있다. 과일 종류로는 육색실과로서 실백자, 실비자, 실진자, 대추, 황율, 건시 등의 6종이 놓여진다.

다음으로 하마연, 상마연의 좌협(左俠), 즉 위의 주상(主床) 왼쪽에 놓일 상의 차림과 재료, 분량을 행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左俠床

行	饌品과 器數	재료와 분량
1行	紅望口消 2器씩 8器	每器 : 上末 6升씩 4斗8升, 油 1升씩 8合, 出油 4合씩 3升2合, 黑糖 1升씩 8升, 芝草 3兩5錢, 沙粉白米 2升7合2夕씩 2斗1升7合6夕.
	油沙望口消 1器씩 4器	每器 : 上末 7升씩 2斗8升, 油 1升3合씩 5升2合, 淸 5合8夕씩 2升3合2夕, 黑糖 1升2兩 4升8兩, 油沙上末 3升6合2里씩 1斗2升2合4夕8里
2行	白茶食 2器씩 8器	每器 : 上末 3升6合씩 2斗8升8合, 油 5合8夕씩 4升6合4夕, 黑糖 1升2兩6錢.
	全冊餅 2器씩 8器	上末 4升5合씩 3斗6升, 淸 7合씩 5升6合.
3行	雲氷 1器씩 4器	每器 : 上末 2升3合씩 9升2合, 淸 1合2夕씩 4合8夕, 淸汁 3夕씩 1合2夕, 油 2合2夕씩 4合8夕
	赤味子兒 2器씩 8器	每器 : 上末 1升4合씩 1斗1升2合, 淸 2合씩 1升6合, 淸汁 5夕씩 4合, 油 2合씩 1升6合
	松古味子兒 1器씩 4器	每器 : 熟松古 8兩4錢씩 2升1兩6錢, 膠淸 1合9夕씩 7合6夕, 淸汁 5夕씩 2合, 膠粘米 3合씩 1升2合, 沙粉白米 8合4夕씩 3升3合6夕, 油 2合6夕씩 1升4夕

출전: 『迎接都監宴享色儀軌』 6월 21일 稟目

<표 2>와 같이 1행에는 홍망구소(紅望口消) 2기씩 8기, 유사망구소(油沙望口消) 1기씩 4기가, 2행에는 백다식(白茶食) 2기씩 8기가, 전책병(全冊餅) 2기씩 8기가, 3행에는 운빙(雲

水) 1기씩 4기, 적미자아(赤味子兒) 2기 8기, 송고미자아(松古味子兒) 1기씩 4기가 각각 놓인다. 다음은 하마연, 상마연의 우협상, 즉 주상의 오른쪽에 놓이는 상의 찬품이다.

<표 3> 右俠床

行	饌品과 器數	재료와 분량
1行	紅尔条 2器씩 8器	上末 7升씩 5斗6升, 淸 1升씩 8升, 油 1合씩 8合, 膠淸 5合씩 4升, 沙粉白米 1升6合1夕씩 1斗2升8合8夕, 芝草 2兩8錢씩 1斤6兩4錢, 出油 3合씩 2升4合
	油沙粉尔条 1器씩 4器	每器 : 上末 7升씩 2斗8升, 淸 1升씩 4升 油 5合씩 2升, 膠淸 5合씩 2升, 油沙上米 1升7合3夕씩 6升9合2夕, 淸 3合씩 1升2合, 油 1合씩 4合
2行	松古尔条 2器씩 8器	每器 : 熟松古 1斤8兩1錢씩 12斤8錢, 膠淸 5合8夕씩 4升6合4夕, 油 4合5石씩 3升6合, 沙粉白米 2升4合8夕씩 1斗9升8合4夕.
	染紅尔条 2器씩 8器	每器 : 上末 5升씩 4斗, 淸 1升씩 8升, 芝草 2兩2錢씩 1斤1兩6錢, 出油 5合씩 4升, 黃蜜 5錢씩 4兩.
3行	栗味子兒 1器씩 4器	每器 : 黃栗 1升3合씩 5升2合, 膠粘米 1合5夕씩 6合, 膠淸 2夕씩 8夕, 沙粉白米 8合4夕씩 3升3合6夕, 油 1合씩 4合, 淸 5夕씩 2合.
	松古味子兒 1器씩 4器	每器 : 熟松古 8兩 4錢씩 2斤1兩6錢, 膠粘米 3合씩 1升2合, 膠淸 1合9夕씩 7合6石, 沙粉白米 8合4夕씩 3升3合6夕, 油 2合6夕씩 1丞4夕, 淸 5夕씩 2合.
	赤味子兒 1器씩 4器	每器 : 上末 1升씩 4升, 油 1合씩 4合, 淸 5夕씩 2合.
	油沙味子兒 1器씩 4器	每器 : 上末 1升씩 4升, 淸 2合씩 8合, 油 1合씩 4合..
출전: 『迎接都監宴享色儀軌』 6월 21일 稟目		

<표 3>과 같이 우협상의 경우 찬품의 숫자가 1행과 3행이 3기, 2행이 4기로서 좌협상의 숫자와 같다. 다음은 명 사신 2床 및 어전(御前) 상마연상이다.

<표 4> 天使俠二床 및 御前上馬宴床

行	饌品과 器數	재료와 분량
1行	魚肉 4器씩(3床 所入)	全鰻 5串씩 1貼5串, 片脯 1条씩 3条, 文魚 2条씩 6条.
2行	乾南 5器씩 15器(3床 所入)	羊肝串 半部씩 半部串, 鷄兒 串首씩 1首串, 鷄卵 8介씩 24介, 大全鰻 5串씩 1貼 5串.
3行	煎魚肉 5器씩 15器(3床 所入)	煎魚中生鮮1尾씩 3尾, 山鳩 1首씩 3首, 小雀 10首씩 30首.
	菜 1器씩 3器(절기에 따름)	猪肉 10兩씩 30兩, 古物菘豆末 2合씩 6合, 糊椒 3錢씩9錢, 生芋 5錢 씩 1兩5錢, 鹽 3合씩 9合, 醋 3合씩 9合, 芥子 2合씩 6合, 都煮油 1升씩 3升, 艮醬 6合씩 1升8合.
출전: 『迎接都監宴享色儀軌』 6월 21일 稟目		

이하 익일연(翌日宴), 회례연(回禮宴), 전연(錢宴) 등의 상차림이 제공되어 사신연을 위한 음식 내용을 알 수 있다. 이하 상차림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참고문헌】**

『영접도감연향색의궤』 (규14567)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집필자】** 송지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명】 Ⅲ-4-02 迎接都監雜物色儀軌(1634)

【정의】

1634년(인조 12) 6월에 조선에 들어온 명(明) 사신(使臣) 영접시 소요된 잡비, 잡물 관련 내용을 기록한 의궤이다. 잡물색(雜物色)이란 사신접대에 필요한 잡물을 담당할 분장을 말한다. 명 사신의 입경(入京) 목적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책봉을 위한 것이었다. 연향색 의궤에 사신들의 공식의례와 관련된 음식 내용이 기록되는 것과 달리 잡물색의궤에서는 사신들의 일상에 쓰이는 음식의 내용 및 잡물, 잡비 등을 기록하는 차이가 있다.

【서지】

迎接都監雜物色儀軌

線裝. 1冊(61張) : 四周單邊, 半郭 37.6×27.7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0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5.7×33.9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571)

‘太白山上 雜物色儀軌’라는 표지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 소장본(奎 14571)은 태백산사고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崇禎七年七月日雜物色儀軌’이다. 반곽 12행,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572)에 한 질 더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본 의궤는 1책 6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록은 없고 내지 첫 면에 “승정칠년 칠월 일 잡물색의궤(崇禎7年 7月 日 雜物色儀軌)”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시작된다. 가장 앞부분에는 조선에 들어온 명 사신의 명단과 원수(員數)를 기록하였고 6월 20일 입경(入京)하여 17일 유경(留京)한다고 일정을 기록했다. 이어 좌목(座目), 품목(稟目), 감결(甘結) 등의 기록이 날 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음식관련내용】

잡물색 의궤에는 명 사신 일행의 하루 세 끼 음식 제공을 위해 쓰이는 식재료들이 주로 제시되어 있다. 연향색의궤에는 주로 공식 연향인 하마연(下馬宴), 익일연(翌日宴), 회례연(回禮宴), 상마연(上馬宴), 별연(別宴), 전연(餞宴) 등을 위한 상차림별 음식을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들 식재료 가운데에는 어류(魚類), 육류(肉類), 양념류, 버섯류, 해조류, 식혜 기록을 통해 식재료들을 정리해 본다. 다음은 입경 제 3일차, 1일 3시(時) 음식에 쓰이는, 일상식을 위한 재료이다.

生秀魚(3尾), 鯉魚(3尾) 또는 鮒魚(3尾), 葦魚(1尾), 豬肉(4斤), 鷄卵(20介), 海蔘(3升), 生鰓(15介), 獐肉(5斤), 米蝦(1升), 乾秀魚(1尾), 鴨子(1首), 錦鱗魚(1尾), 活鷄(3首), 生雉(2

首), 胡椒(1兩), 生薑(10兩), 生蔥(1束), 藜古(1升), 石茸(2升), 豆泡(10隅), 良醬(2升), 塩(2升), 醋(1升), 眞油(2升), 𩵑菜(1丹), 是根菜(1丹), 水芹(1丹), 菘豆(1升), 蓮根(15介)

清蜜(1升), 甘醬(5升), 醋(5升), 眞油(6升), 良醬(5升), 白塩(5升), 木蕈(5升), 胡椒(3兩), 川椒(3兩), 生薑(半斤), 海蜇(3網), 乾鰻(15介), 文魚(15首), 鷄卵(30介), 活鴨(6首), 猪脚(3隻), 獐脚(3隻), 活鮒魚(10尾), 生蔥(10丹), 四色醬菹(各3介), 𩵑菜(10束), 菘豆芽(3斤), 白菜(6網), 豆泡(30塊), 青瓜(30介), 白蘿蔔(30介), 蒜(5升)

다음은 천사(天使)별 주방 1일 3시 음식에 쓰이는 식재료이다.

生雉(1首半), 生秀魚(3尾), 生鰻(40斤), 猪肉(4斤), 海蔘(2升), 活鷄(2首), 生鱸魚(1尾), 鯉魚(1尾), 絡蹄(30斤), 紅蛤(5合), 錦鱗魚(1尾), 竹蛤(2升), 訥魚(1尾), 藜古(3錢), 眞油(1升5合), 甘醬(1升5合), 眞末(1升), 胡椒(3錢), 塩(3合), 生薑(1兩), 生蔥(3握), 醋(8合), 鷄卵(9介), 茶末(2合), 乾文魚(半条), 乾秀魚(1尾半), 乾鮒魚(3尾), 乾銀口魚(6尾), 石首魚(6介), 秀魚卵(1隻半), 沉銀口魚(6介), 菩蕒(9兩), 水芹(4握), 菘豆芽(3合), 加士里(3合), 蓼芽(3合), 生蒜(10), 沉采四色(절기에 따름), 醬菹(3斤)

**【참고문헌】**

『영접도감연향색의궤』(규14571)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집필자】** 송지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명】 Ⅲ-4-03 迎接都監宴享色儀軌(1643)

【정의】

1643년(인조 21) 3월에 조선에 들어온 청(淸) 사신(使臣) 영접시 베푼 연향(宴享) 관련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례이다. 연향색(宴享色)이란 사신에게 베푸는 연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말한다. 청 사신의 입경(入京) 목적은 병자호란 이후 청에 잡혀간 최명길과 김상헌, 고충원, 신금 등 8인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 황제의 칙서(勅書) 전달을 위한 것이었다. 본 의례에는 사신 일행이 3월 25일에 입경한 이후 4월 6일의 교외 전연(餞宴)을 행하기까지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머무는 동안 하마연(下馬宴), 익일연(翌日宴), 회례연(回禮宴), 상마연(上馬宴), 별연(別宴), 전연(餞宴) 등의 공식 연향이 행해지며 사신 대접을 위한 교자상인 별다담(別茶啖)이 별도로 올려진다. 이러한 각각의 절차에서 예규대로 차려지는 각각의 상차림을 본 의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서지】

迎接都監宴享色儀軌  
線裝. 1冊(33張) : 四周雙邊, 半郭 35.4×25.3cm, 有界, 朱絲欄, 半葉 11行22字  
(字數不同), 註雙行 ; 44.8×32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579)

표지서명은 ‘崇德八年延勅儀軌’로, 제침(題簽)에 필사되어 있다. 국화동(菊花幢)이 다섯 개 박혀있고,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 대신 주사란(朱絲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람용(御覽用)으로 보인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1책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록은 없고 내지 첫 면에 “승덕팔년계미사월 일 연향색의례(崇德八年癸未四月 日 宴享色儀軌)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시작 된다. 가장 앞 부분에는 조선에 들어온 청 사신의 명단과 원수(員數)를 기록하였고 3월 25일 입경 이후 4월 6일 전연(餞宴)까지의 일정을 날짜별로 적어 놓았다. 일정에 이어 담당관의 명단을 적은 좌목(座目), 각 연회를 담당할 부서와 관리의 명단, 계사(啓辭), 품목(稟目)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례 후반부에는 ‘본색후고사실(本色後考事實)’에 이어 각 연향의 상차림과 기관별 담당에 대해 기록하였다. 사옹원(司饗院), 내자시(內資寺), 예빈시(禮賓寺), 사축서(司畜署) 등 각 기관에서 담당할 음식 및 각 상차림, 식재료 등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

【음식관련내용】

사신이 머무는 동안 베풀어지는 연향은 하마연(下馬宴), 익일연(翌日宴), 회례연(回禮宴), 상마연(上馬宴), 별연(別宴), 전연(餞宴)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들 연향 가운데에는 겸행(兼行)을 하는 경우도 있어 연향의 횟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1643년 연향의 경우 익일

연과 회례연이 겸행되고 상마연과 별연이 겸행되어 연회의 횟수는 2회가 줄어 총 4회가 치러졌다. 기록에서 보이는 연향의 상차림 가운데 하마연(下馬宴)과 상마연(上馬宴), 익일연(翌日宴)의 음식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하마연(下馬宴)과 상마연(上馬宴)의 상차림

사신들의 입경을 환영하는 연향인 하마연은 3월 28일에, 귀국을 위한 송별연인 상마연은 4월 4일에 각각 행해졌다. 『영접도감연향색의궤』에는 하마연과 상마연의 상차림이 같다고 하였다. 각 상차림과 재료, 분량을 행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下馬宴一床所入

行	饌品과 器數	재료와 분량
1行	中朴桂(4器)	上末 9升, 淸 6合7勺5分, 造淸 1升1合1勺5里, 油 6合3勺
2行	漢藥果(5器)	上末 5升, 淸 4合1勺7分8里, 造淸 6合5勺3分1里, 油 5合, 黑湯 2合5勺
3行	六色實果(6器); 實柏子(1器), 實胡桃(1器), 生栗(1器: 生梨대신), 大召(1器), 黃栗(1器), 乾柿(1器)	實柏子 3升, 實胡桃 2升5合, 生栗 1升, 大召 2升5合, 黃栗2升, 乾柿1貼
출전: 『迎接都監宴享色儀軌』 司饗院所掌移屬		

재료 가운데 상말(上末)은 밀가루를, 청(淸)은 꿀을 조청(造淸)은 물게 다린 엿을, 유(油)는 기름을, 흑탕(黑湯)은 흑당(黑糖)으로, 엿을 달여서 갈색으로 만든 것을 지칭하는 듯하다. 실과 가운데 大召은 대추이며 3행에 실과 가운데 하나인 생울은 당시 계절이 음력 3, 4월이므로 배 대신 흰색 실과 자격으로 놓인 것이다.

<표 1>과 같이 하마연(상마연)의 찬품은 중박계 6기, 한약과 5기, 육색실과 6기로 차려지며 중박계와 한약과는 재료와 분량이 각각 명기되어 있다. 과일 종류로는 육색실과로서 실백자, 실호도, 생울, 대추, 황울, 건시 등의 6종이 놓여진다.

다음으로 좌협(左俠), 즉 위의 주상(主床) 왼쪽에 놓일 상의 차림과 재료, 분량을 행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左俠床

行	饌品과 器數	재료와 분량
1行	紅望口消(2器)	上末 5升4合, 淸 2合2勺, 造淸 3合3勺, 油 7合, 芝草 2兩, 出油 2合3勺, 黑湯 1升3合, 沙粉白米 2升1合3勺
	油沙望口消(1器)	上末 5升4合, 油 1升, 淸 2合2勺, 造淸 3合3勺, 黑湯 1升4合2勺, 油沙上末 2升4合, 油 1合4勺
2行	白茶食(2器)	上末 3升2合4勺, 淸 2合6勺5分, 造淸 3合9勺7分5里
	全冊餅(2器)	上末 3升, 淸 2合4勺, 造淸 3合6勺, 油 3合7勺, 黑湯 1升4合7勺.
3行	小雲氷(1器)	上末 2升, 淸 5勺5分, 造淸 8勺2分2里, 油 1合1勺, 汁淸 1勺3里, 造淸 1勺5分4里.
	赤味子兒(1器)	上末 1升2合, 淸 8勺2分5里, 造淸 1合2勺7分8里, 油 1合7勺3里, 汁淸 1勺5分3里, 造淸 2勺3分.
	白味子兒(1器)	上末 1升2合, 淸 8勺5分2里, 造淸 2合2勺7分8里, 油 1合7勺3里, 淸 1勺5分3里, 造淸 2勺2分9里.

	松古味子兒(1器)	熟松古 7兩, 淸8夕, 造淸 1合2夕, 油2合3夕, 膠粘米 2合2夕, 沙粉白米 7合, 汁淸 3夕, 造淸 3夕.
출전: 『迎接都監宴享色儀軌』		

<표 2>와 같이 1행에는 홍망구소(紅望口消) 2기, 유사망구소(油沙望口消) 1기가, 2행에는 백다식(白茶食) 2기, 전책병(全冊餅) 2기, 적미자아(赤味子兒) 1기, 백미자아(白味子兒) 1기, 송고미자아(松古味子兒) 1기가, 3행에는 소운빙(小雲氷) 1기, 적미자아(赤味子兒) 1기, 백미자아(白味子兒) 1기, 송고미자아(松古味子兒) 1기가 각각 놓인다. 다음은 우협상, 즉 주상의 오른쪽에 놓이는 상의 찬품이다.

<표 3> 右俠床

行	饌品과 器數	재료와 분량
1行	紅尔条(2器)	上末 5升4合, 淸 3合8夕5分, 造淸 5合7夕7分5里, 油 8夕, 汁淸 1合9夕式, 造淸 2合8夕5分, 沙粉白米 9合4夕, 芝草 2兩, 出油 2合3夕.
	油沙尔条(1器)	上末 5升4合, 淸3合8夕5分, 造淸 5合7夕7分5里, 油 3合7夕, 油沙上末 1升3合3夕, 汁淸 1合1夕5分, 造淸 1合6夕7分5里, 油 8合.
2行	松古尔条(2器)	熟松古 1斤5兩, 淸 2合, 造淸 3合, 油 3合, 膠粘米 5合, 沙粉白米 1升8合3夕.
	染紅尔条(2器)	上末 4升, 淸4合, 造淸 6合, 油 3合7夕, 芝草 2兩, 出油 3合, 黃蜜 2錢5分.
3行	栗味子(1器)	黃栗 1升3合, 油 1合, 淸 1合, 造淸 1合5夕, 膠粘米 1合5夕, 沙粉白米 8合4夕, 汁淸 2夕5分, 造淸 3夕2分5里.
	松古味子兒(1器)	熟松古 8兩, 膠粘米 2合5夕, 淸 8夕, 造淸 1合2夕, 油 2合3夕, 沙粉白米 7合, 汁淸 2夕, 造淸 3夕.
	赤味子兒(1器)	上末 1升, 淸 一合, 造淸 1合5夕, 油 1合, 汁淸 2夕5分.
	油沙味子兒(1器)	上末 1升, 淸 1合, 造淸 1合5夕, 油 1合, 淸 2夕5分, 造淸 3夕2分5里.
출전: 『迎接都監宴享色儀軌』		

<표 3>과 같이 우협상의 경우 찬품의 숫자가 1행과 3행이 3기, 2행이 4기로서 좌협상의 숫자와 같다. 다음은 면협상(面俠床)의 찬품이다. 면협상은 육류와 어류가 중심이 된다.

<표 4> 面俠床

行	饌品과 器數	재료와 분량
1行	魚肉(4器)	全鰻 4串, 片脯 1条, 文魚 2条, 乾雉2首
2行	乾南(5器)	猪肉 半部, 鷄兒 3脚, 生蛤 30개, 鷄卵 8介, 大全鰻 1貼.
3行	煎魚肉(5器)	煎魚中生鮮1尾, 軟鷄 1首, 海參 10介.
	菜(1器)	山參 10兩, 猪肉 每器 10兩, 古物菘豆末 2合, 艮醬 6合, 糊椒 1棗, 生芋 三棗, 鹽 3合, 醋 2合, 芥子 2合, 都煮油 1升

다음으로 궁중의 각종 연향과 제사, 사신의 공궤(供饋) 등에 공급할 각종 가축을 사육하는 기관인 사축서(司畜署)가 상마연과 하마연을 위해 공급한 육류의 목록을 살펴본다. 육류는 소膳(小膳), 대膳(大膳)을 올리는 절차에서 제공되는데, 그 종류는 소, 양, 오리, 돼지 등이다. 다음은 칙사 2원을 위해 제공한 육류의 목록이다.

<표 5> 칙사 2원의 小膳과 大膳

칙사(勅使) 2원(員)의 상·하마연시 素膳과 大膳	
小膳	牛芻非 1/2隻, 羊 1口, 鴨子 2首
大膳	牛脚 1隻, 猪 1口, 鴨子 2首

## 2. 익일연(翌日宴)의 상차림

익일연의 상차림은 하마연의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으므로 각 음식의 재료와 분량은 생략하고 상의 각 행별로 놓이는 찬품만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익일연상은 4행으로 차려진다.

<표 6> 翌日宴床

1行	白茶食(2器), 全冊餅(2器)
2行	中朴桂(1器), 赤味子兒(1器), 栗味子(1器), 油沙味子(1器), 染紅味子(1器)
3行	赤味子(2器), 白味子(1器), 雲氷(1器), 添水(1器)
4行	六色實果(6器); 實柏子, 實胡桃, 大召, 乾柿子, 黃栗, 生栗

다음은 익일연의 면협상 차림이다. 익일연의 면협상도 4행으로 차려진다.

<표 7> 翌日宴 面俠床

1行	四色菜(4器), 山參菜(1器) 기타 계절에 따른 음식(3器)
2行	魚肉(4器): 脯, 乾雉, 文魚, 紅蛤
3行	乾南(5器): 鷄兒, 鷄卵, 猪頭, 大全鰻, 中全鰻
4行	煎魚肉(5器): 猪肉, 猪肝, 煎魚中生鮮, 軟鷄, 海參
양념	古物良醬, 菘豆末, 糊椒, 生芋, 鹽, 芥子, 醋, 都煮油

익일연에서 쓰이는 육류 또한 상마연, 하마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 양, 돼지, 오리가 쓰였고 여기에 닭이 포함되었다. 사축서가 이를 담당하였다. 익일연과 전연의 소膳(小膳)으로 저갈비(猪芻非) 1척(隻), 양(羊) 1구(口), 압자(鴨子) 2수(首), 대膳(大膳)으로 저각(猪脚) 2척(隻), 저(猪) 1구(口), 압자(鴨子) 2수 이하 여러 사신들이 먹을 육류를 담당하였다. 육류는 소, 양, 돼지, 오리, 닭 등이 제공되었으며 역시 소膳상, 대膳상에서 이들 육류가 차려졌다.

**【참고문헌】**

『영접도감연향색의궤』(규14579)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집필자】** 송지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명】 Ⅲ-4-04 迎接都監雜物色儀軌(1643)

【정의】

1643년(인조 21) 9월에 조선에 들어온 청(淸) 사신(史臣) 영접시 소요된 잡비, 잡물 관련 내용을 기록한 의례이다. 잡물색(雜物色)이란 사신접대와 관련된 잡비, 잡물 등을 담당 부서를 말한다. 청 사신의 입경(入京) 목적은 청 태종(太宗)의 상(喪)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본 의례에는 사신 일행이 9월 3일에 입경(入京)하여 10일 회정(回程)하기까지의 일정에서 소요된 물목이 기록되어 있다. 음식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기록 면에서 볼 때 연향색의례에는 주로 공식 연향과 관련하여 소요된 음식과 상차림을 기록한 것에 비해 잡물색의례에서는 주로 일상식(日常食)을 위해 쓰인 음식재료를 기록하는 차이가 있다.

【서지】

迎接都監雜物色儀軌  
線裝. 1冊(17張) : 四周雙邊, 半郭 36×25.1cm, 有界, 朱絲欄, 半葉 11行20字(字數不同), 註雙行 ; 44.7×31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580)

표지서명은 ‘仁祖癸未 淸使迎接都監雜物色儀軌’이다. 국화동(菊花幢)이 다섯 개 박혀있고, 목판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 대신 주사란(朱絲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람용(御覽用)으로 보인다.

【목차와 구성】

본 의례는 1책 1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록은 없고 내지 첫 면에 “승덕팔년계미9월 일 잡물색의례(崇德八年癸未九月 日 雜物色儀軌)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시작 된다. 가장 앞 부분에는 조선에 들어온 청 사신의 명단과 원수(員數), 서울에 머무는 기간, 좌목(座目)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이어 품목(稟目), 이문(移文), 감결(甘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 재료에 대한 내용은 해당 날짜별로 기록해 놓았다.

【음식관련내용】

사신이 머무는 동안 하마연(下馬宴), 상마연(上馬宴), 전연(餞宴) 등의 공식 의례가 행해 질 때에는 거기에 참여하여 음식을 제공받지만 공식 의례 외의 일상시 등에도 음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에는 일상식(日常食)이 제공된다. 잡물색의례에는 이들에게 제공된 일상식의 식재료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므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재료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조선에 들어온 칙사(勅使)는 박씨(博氏) 2인이었고 1등두목(頭目) 1인, 2등두목 2인, 3등두목 3인이었다. 본 의례에는 이들을 위한 일상식재료를 그 대상별로 적어 놓았다.

다음은 칙사 2인의 매일 세끼 식사에 들어간 재료이다.

<표 1> 兩博氏每日各三時飯俸所入素膳

片豆泡(6片), 生蒜(45本), 石茸(2升), 多士尔(12條), 土卵(1升5合), 甘醬(2升), 甘藷(6立), 眞末(1升5合), 生薑(9兩), 良醬(4四升), 鹽(2升), 苳醬俎(3介), 菁根醬俎(3介), 沈菜(1沙鉢), 醋(1升), 生蔥(90本), 胡椒(3錢), 眞油(2升), 沈苳(3介), 菁根(15本), 清蜜(1升5合), 禁古(1升5合), 黃角(1升5合), 軟豆泡(12塊), 眞茸(15介), 海衣(1張半), 實柏子(3合), 青泡(15塊), 冬花(2), 水芹(3丹), 茄子, 沈菜(3介씩), 白菜(3丹), 白菜, 沈菜(1沙鉢), 蔓青根(10本)
출전 : 『迎接都監雜物色儀軌』 9월 10일 稟目

다음은 직사의 다담(茶啖)을 위해 필요한 재료의 목록이다.

<표 2> 兩博氏一處茶啖所用每牀每貼是

藥果, 方味子 : 眞末(4升8合), 清蜜(1升4合), 清酒(2合), 眞油(9合). 雜果(1貼)所入: 眞末(8合), 清蜜(2合8夕), 眞油(3合2夕). 水正果(1甫兒): 清蜜(1合), 實柏子(2夕). 各色細實果合盛一器所入: 實榛子(2合), 實胡桃(2合), 實銀杏(2合). 薏苡粥一甫兒式所入: 清蜜(2合), 式菜(1器). 乾正果一器式所入 : 獼猴萄正果(7合). 生實果: 實生栗(1升), 大棗(1升), 紅柿(7介), 生梨(5介). 各色切肉每貼是所入: 多士尔(5條), 海衣(1張), 眞茸(10角), 片豆泡(3片), 片豆泡(1片半) 味數所入 : 生蔥(10本), 眞末(1升), 眞油(2升), 禁古(5合), 胡桃(4錢), 良醬(2升), 實柏子(1合), 生解卵交代片豆泡(2片), 熟片次片豆泡(3片), 麪次菘豆末(1升), 沈菜(1器), 猪肉將方代軟豆泡(3塊), 醋(5合), 生薑(5錢)
출전 : 『迎接都監雜物色儀軌』 9월 10일 稟目

다음은 1, 2등두목(頭目) 3인을 위한 것이다.

<표 3> 一二等頭目三人切肉每貼是代

多士尔(1條), 海衣(半半張), 實柏子(5夕), 實榛子(5夕), 實胡桃(5夕), 實生栗(5夕), 生梨(2介), 紅柿(5介), 大棗(5夕), 麪菘豆末(5合), 熟片次片豆泡(1片), 甫只次軟豆泡(1塊), 鷄炙代多士尔(1條), 清醬(2合), 醋(1夕), 菜(1器), 鹽(1夕).
출전 : 『迎接都監雜物色儀軌』 9월 10일 稟目

다음은 3등두목의 매 상(床)에 들어간 재료 목록이다.

<표 4> 三等頭目三人每牀所入

切肉每貼是代多士尔(1條), 海衣(半半立), 皮柏子(5夕), 皮榛子(5夕), 皮栗(5夕), 生大棗(5夕), 紅柿(3介), 麪菘豆末(5夕), 清醬(3合), 卜只次軟豆泡(1塊), 清醬(2合), 醋(1夕), 胡椒(1分), 菜(一器), 鹽(1夕)
출전 : 『迎接都監雜物色儀軌』 9월 10일 稟目

다음은 1, 2, 3등두목 6명의 매 상에 들어간 재료이다.

<표 5> 一二三等頭目六名每牀所入

地方果一立式所入：眞末(2合), 太末(6合), 眞油(3夕2里), 黑湯(2夕). 蜂蝶果一立式所入：眞末(5夕2里), 太末(2夕6里), 黑湯(1夕), 眞油(1夕5里). 常藥果一立式所入：眞末(1合), 造清(2夕), 清酒(2里), 眞油(1夕). 銀丁果一立式所入：眞末(3夕9里), 造清(1夕3里), 犀角果一立式所入：眞末(3夕9里), 眞油(3夕), 造清(1夕3里). 常方味子四介式所入：眞末(1夕), 眞油(5里), 造清(1里). 茶食一立式所入：眞末(7七夕), 造清(2夕), 眞油(1里).
『迎接都監雜物色儀軌』 9월 10일 稟目

다음은 식사 2명이 관소에 머물 때 조반(早飯)의 매 상(床)에 들어간 재료이다.

<표 6> 博氏二員留館時早飯每牀所入

藥果每貼是方味子并：眞末(4升8合), 眞油(6合), 合眞油(3合), 清蜜(1升4合), 清酒(2合). 雜果每貼是所入：眞末(8合), 清蜜(2合8夕), 眞油(3合2夕), 片蒸次多士尔(3條), 古物次實 柏子(3夕), 麪次菘豆末(1升), 沈菜(1器), 薏苡(1甫兒), 清蜜(2合), 熟片次片豆泡(1片半), 藁 古(2合), 於音次軟豆泡(3塊), 乾正果(7合), 生大棗(1升), 實生栗(1升), 紅柿(7介), 生梨(5五 介), 西瓜(1介). 味數所入：艮醬(2升), 藁古(5合), 生薑(1兩), 胡椒(2錢), 眞油(1升), 醋(5合), 鹽(5合), 左肝南石茸(3升), 實柏子(1合), 雜頭蹄次片豆泡(1片), 生蔥(10本), 右肝南煎片次片豆泡(1一片). 牀花餅每貼是所入：眞末(5升), 眞油(2合), 起酒米(1升), 菁根(20本), 實柏子(5夕), 生薑(5 錢), 石茸(2合), 胡椒(1錢), 鹽(1合), 艮醬(2合), 軟豆泡(3塊), 其火(3升), 山蔘餅每貼是所入：實山蔘(2斤), 粘米末(2升), 清蜜(2合3夕3里), 眞油(1升), 實柏子(1合), 菘豆餅每貼是所入：實菘豆(1升5合), 眞油(7合)
『迎接都監雜物色儀軌』 9월 10일 稟目

다음은 1, 2등두목 3명의 매 상에 들어간 식재료이다.

<표 7> 一二等頭目三名每牀所入

熟片次多士尔(1條), 甫只次軟豆泡(1塊), 雜湯次黃角(3合), 炙次片豆泡(半片), 實生栗(2合), 生大棗(2合), 紅柿(3介), 醋(1半合), 麪菘豆末(5合), 清醬(2合), 胡椒(1分), 菜(1器), 漢果每貼是所入：眞末(1升3合5夕), 太末(1升2合5夕), 黑湯(5合8夕), 眞油(1合), 造清(1合5夕). 牀花餅每貼是所入：眞末(1升), 丁舍(3合), 清蜜(5夕), 起酒米(2合).
『迎接都監雜物色儀軌』 9월 10일 稟目

【참고문헌】

『영접도감잡물색의궤』(규14580)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집필자】 송지원(규장각한국학연구원)



## 5. 其他



【자료명】 Ⅲ-5-01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정의】

1604년(광해군 3)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 문묘(文廟)에서 국가 전례(典禮)를 거행할 때에 필요한 제기(祭器)를 새로 제작하였는데, 그 제작 과정을 기록한 의궤(儀軌)이다. 표제는 ‘제기도감의궤(祭器都監儀軌)’이며, 1책이다. 각종 도설(圖說)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제기의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서지】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線裝. 1冊(43張) : 圖, 四周單邊, 半郭 39.2×28.8cm, 有界, 筆寫印札空冊紙, 半葉 12行25字(字數不同), 註雙行, 無魚尾 ; 46.1×34.6cm  
재질 표지: 홍포, 본문: 저주지  
필사본  
紙質 楮紙  
印 議政府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930)

표지서명은 ‘祭器都監臚錄’이다. 표지 이면(裏面)에 ‘議政府上’이라는 기록이 있다. 반곽 12행, 무어미(無魚尾)의 필사된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서두에 목록(目錄)은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궤사목(祭器都監儀軌事目)」·「도설(圖說)」·「예조계목(禮曹啓目)」·「이조단자(吏曹單子)」·「도감사목(都監事目)」·「계사(啓辭)」·「감결(甘結)」·「서계(書啓)」·「논상(論賞)」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설」에 각종 제기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음식관련내용】

「도설」을 살펴보면, 보(篋), 궤(篋), 형(銅), 모혈반(毛血盤) 등 1604년에 만든 제기의 실제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그림 옆에 제기의 성분, 실제 용도와 높이, 너비, 지름 등을 기재해 놓았다.

【참고문헌】

종묘제례보존회, 『宗廟·宗廟祭禮』, 2005.

【집필자】 김세은(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5-02 祭器都監儀軌

【정의】

1611년(광해군 3)에 종묘(宗廟)와 왕릉(王陵)에서 국가 전례(典禮)를 거행할 때에 필요한 제기(祭器)를 새로 제작하였는데, 그 과정을 기록한 의궤(儀軌)이다. 표제는 ‘제기도감의궤(祭器都監儀軌)’이며, 1책으로 편찬되었다. 제기 관련 각종 도설(圖說)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 시대 제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지】

祭器都監儀軌  
線裝. 1冊(131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4.2×27.2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2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4.9×34.6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議政府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931)

제1면 광곽 우측하단의 ‘議政府上’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목차와 구성】

서두에 목록(目錄)은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기도감의궤사목(祭器都監儀軌事目)」·「도설(圖說)」·「예조계목(禮曹啓目)」·「이조단자(吏曹單子)」·「도감사목(都監事目)」·「계사(啓辭)」·「감결(甘結)」·「서계(書啓)」·「논상(論賞)」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설」에 여러 제기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음식관련내용】

「도설」을 살펴보면, 이(彝)·정(鼎)을 비롯하여 작(爵), 비(篚), 용작(龍勺), 중박계우리(中朴桂亏里), 산자우리(散子亏里), 실과우리(實果亏里), 시탁(是卓) 등 1611년에 만든 제기의 실제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그림 옆에 높이, 너비, 지름을 비롯하여 사용 용도와 사용처를 기재해 놓았다.

【참고문헌】

종묘제례보존회, 『宗廟·宗廟祭禮』, 2005.

【집필자】 김세은(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5-03 祭器樂器都監儀軌

【정의】

1624년(인조 2)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서 국가 전례(典禮)를 거행할 때에 필요한 제기(祭器)·제복(祭服)·의장(儀仗)·악기(樂器) 등을 제작하였는데, 그 과정을 기록한 의궤(儀軌)이다. 표제는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軌)’이며, 1책이다. 각종 도설(圖說)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 시대의 제기와 악기, 의복 등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지】

祭器樂器都監儀軌  
線裝. 1冊(93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7.7×27.5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4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5.3×33.5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734)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932)에 한 질 더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목록(目錄)은 없다. 계사(啓辭)와 논상(論賞)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도감의궤(都監儀軌)」와 「일방소장(一房所掌)」, 「이방소장(二房所掌)」, 「삼방소장(三房所掌)」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방소장」 말미에 새로 제작한 제기 및 악기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다.

【음식관련내용】

「일방소장」의 도설을 살펴보면, 우정(牛鼎)·양정(羊鼎), 주대화로(鑄大火爐), 주량동해(鑄梁東海), 유주선(鑰酒鐔), 유개(鑰槩), 유대야(鑰大也), 유함지(食函之), 목두(木豆), 유식축(鑰食祝) 등 1624년에 만든 제기의 실제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종묘제례보존회, 『宗廟·宗廟祭禮』, 2005.

【집필자】 김세은(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명】 Ⅲ-5-04 親臨本府時儀軌

【정의】

1865년(고종 2) 고종(高宗, 1863~1907)이 의정부(議政府)에 친림한 행사 과정을 기록한 의궤(儀軌)이다. 표제는 ‘친림본부시의궤(親臨本府時儀軌)’이다. 1책으로 편찬되었다.

【서지】

親臨本府時儀軌 線裝. 1冊(93張) : 圖, 四周雙邊, 半郭 37.7×27.5cm, 有界, 木板印札空冊紙, 半葉 12行24字(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45.3×33.5cm 필사본 紙質 楮紙 印 奉使之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3734)
--

동일한 내용의 의궤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4932)에 한 질 더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구성】

「전교(傳敎)」와 「계사(啓辭)」가 날짜별로 수록되어 있으며, 「어상단자(御床單子)」, 「별단(別單)」, 「전문(箋文)」, 「의주(儀註)」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음식관련내용】

1865년 고종의 의정부 친림 행사는 경복궁(景福宮) 앞에 있는 의정부 관아 건물의 중건(重建)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해 10월 12일 고종은 의정부를 친히 방문하였고, 이때 어상(御床)과 협상(挾床)을 진상 받았다. 「어상단자」를 살펴보면, 어상과 협상의 상차림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865년 의정부 친림 행사의 어상과 협상

상(床)	찬품(饌品)
어상(御床)	방약과(方藥果), 각색다식(各色茶食), 각색건정(各色乾丁), 감사과(甘砂果), 매화연사과(梅花軟砂果), 세건반료화(細乾飯寥花), 절육(截肉), 각색정과(各色正果), 생리(生梨), 홍시(紅柿), 유자(柚子), 석류(石榴), 생울(生栗), 대조(大棗), 편육(片肉), 전유어(煎油魚), 화양적(華陽炙), 갑회(甲膾), 각색적(各色炙), 각색병(各色餅), 증(蒸), 탕(湯), 알면(軋麵), 이숙(梨熟), 백청(白淸), 초장(醋醬), 개자(芥子)
협상(挾床)	온면(溫麵), 만두(饅頭), 구자탕(口子湯), 병(餅), 약식(藥食), 증(蒸), 치각적(雉脚炙), 전유어(煎油魚)+ 편육(片肉)+ 족편(足片), 화양적(華陽炙)+ 전복숙(全鰓熟), 숙실과(熟實果), 생실과(生實果), 각색정과(各色正果), 이숙(梨熟), 침채(沈菜), 백청(白淸), 초장(醋醬), 개자(芥子)
출전 : 『親臨政府時儀軌』 「御床單子」	

음식은 각 찬품마다 1기(器)씩 마련하였는데, 협상에 올라간 전유어와 편육, 족편은 한 그릇에 담았고, 화양적과 전복숙도 한 그릇에 담아 올렸다. 백청과 초장, 개자 등을 제외하면 어상은 모두 24기이고, 협상은 14기(음식은 17종류)이다.

「전교」를 살펴보면, 어상의 진상을 위하여 7일 전에 1772년(영조 48)의 고사(故事)에 따라 검상(檢詳)과 같은 담당 관원을 차출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행사 당일에는 호조판서(戶曹判書) 이돈영(李敦榮)의 책임 아래 사인(舍人) 등이 의정부로 어상을 운반해왔다. 어상이 올려진 다음 시립(侍立)하고 있던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과 찬성(贊成), 참찬(參贊)에게는 차(茶)가 내려졌다[사다(賜茶)].

**【참고문헌】**

김상보, 『조선왕조 혼례연향 음식문화』, 서울: 신광출판사, 2003.

한복려·정길자, 『조선왕조 궁중음식』, 서울: 궁중음식연구원, 2003.

**【집필자】** 김세은(한국학중앙연구원)